113
2d set

ORR/A/F
Tachine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勤勞者

2호 2월 1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8

근로자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잡 지

제2호 (147)

1958년2월 1 일

내 용

신년 축하연에서 한 연설

김 일 성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뜻 깊은 1957년을 보내고 새해 1958년을 맞이하면서 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1957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빛나는 승리의 해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커다란 기쁨과 긍지감을 가지고 지난해에 이루어 놓은 거대한 성과와 업적들을 회고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인민 경제의 복구 사업을 완성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습니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민의 모든 생활에서는 거대한 전변이 일어 났습니다.

전체 인민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되였으며 그들의 정치적 열성은 전례 없이 앙양되였습니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무비의 창발성과 로력적 위훈을 발휘하였습니다.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은 진실로 대중적인, 전 인민적인 운동으로 전변되였습니다.

제2기 최고 인민 회의 선거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 대중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보여 주었으며 그들의 높은 정치적 앙양을 시위하였습니다.

우리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 계획 수행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공업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40% 이상이나 장성하였으며 전쟁전 수준을 이미 2.8 배나 릉가하였습니다.

모든 성들과 모든 공업 부문들은 례외 없이 자기의 공업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알곡 총수확고는 전년에 비하여 근 40만 톤이나 더 증가하여 320 여 만 톤에 달하였습니다. 모든 도에서 례외 없이 알곡 생산 계획은 초과 수행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는 더욱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승리적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 농민 경리의 95% 이상이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민이 지난해에 쟁취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사회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생활은 즐거운 것으로 었으며 더욱 흥겨워졌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어난 장애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경제 건설에는 는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더우기 미국 침 들과 리 승만 역도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기 위하여 비방과 및 각종 파괴 암해 활동을 더욱 강화 습니다.

그러나 우 민은 적들의 발악적인《공세》를 철저히 하였으며 경제 건설에서의 모든 난관을 적으로 이겨 내였습니다.

1957년 리가 거둔 거대한 성과와 승리는 조선 당과 공화국 정부 정책의 생활력

과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광명한 미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심을 더욱 굳게 하여 주며 그들의 민족적 긍지감을 더욱 높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 생활의 가일층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은 이에 기초하여 1958년 1월부터 전체 로동자, 사무원들의 기본 임금을 평균 10% 더 높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이 부단히 향상되여 가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나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한 우리의 로동자와 농민과 전체 인[illegible]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그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적으로도 1957년은 평화와 사회주의 력량의 거대한 승리로써 충만된 해였습니다.

1957년의 모든 국제적 사변들은 오늘 사회주의가 세계무대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illegible]여 주었습니다.

위대한 쏘[illegible] 인민은 공산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획기적 [illegible]를 달성하였으며 쏘련의 위력은 더욱 장성[illegible]였습니다.

쏘련은 대륙간[illegible]도 로케트를 완성하였으며 세계에서 처음으[illegible] 두 개의 인공 지구 위성을 발사하였습니다. [illegible]늘 쏘련이 발사한 평화의 별들은 지구의 주위[illegible] 돌면서 전 세계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의 불[illegible] 힘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민 민주주의 [illegible]가들에서 인민 경제는 급속히 발전하였으[illegible]민 생활은 더욱 개선되였습니다.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illegible]영과 세계 공산주의 운동은 국제 반동의 [illegible]》를 물리치고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illegible]아 국제주의의 기치 밑에 더욱 튼튼히 단결[illegible]습니다.

1957년에 전 세계 진보적 [illegible]는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을 [illegible]게 경축하였습니다.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10월 혁[illegible] 40주년 기념 경축 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들은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불패의 통일과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시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더욱더 고무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한 쏘련과 모든 형제적 국가의 벗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새해에 그들에게 새로운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 인민은 앞으로도 그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동지들!

1958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큰 승리의 해로 될 것입니다. 조선 인민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한 명확한 전망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는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할 것이며 인민 생활은 더욱 개선 향상될 것입니다.

1958년 인민 경제 계획에 의하면 공업 총생산액은 1957년 예정 실적에 비하여 122% 이상으로, 알곡 총수확고는 약 102%로 증가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도시와 농촌에 400만 평방메터 이상의 새로운 주택과 많은 교육 문화 기관들을 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1958년 계획을 수행하면 우리는 전체 5개년 계획의 수행에서 높은 고개를 넘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에 반드시 이 고개를 정복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지난해와 같이 새해의 계획도 넘쳐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의 정책은 정확하며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와 인민은 불패의 통일을 이루고 있으며 이 통일은 앞으로 더욱 공고화될 것입니다. 인민 대중의 애국적 열성은 고조되였으며 그

들의 창발성은 더욱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혹심하게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였으며 지난해에 그것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킨 고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사회주의적 공업 토대와 협동화된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 인민들이 우리를 지지 성원하고 있습니다.

1958년에 조선 인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거대한 전진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성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리 승만 역도의 반동 통치는 파탄되여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남조선 인민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움에 따라 그들의 불행은 더욱 심하여지고 있습니다. 광범한 인민 대중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지배하에서 더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 력량은 장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애국적 력량이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고무되여 평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결정적으로 나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력량을 단합하여 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바쳐야 하겠습니다. 1958년을 우리 나라의 가일층의 번영의 해로, 우리 인민의 새로운 거대한 승리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과 사업에서의 보다 큰 성과를 위하여,

우리 나라의 로동자, 농민, 인테리 및 전체 인민의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와 승리가 있을 것을 축원하여,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의 가일층의 강화와 평화와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축배를 들 것을 제의합니다.

당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당 지도 기관들의 역할

당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이것은 맑스—레닌주의 당 건설의 기본 문제이다.

작년 11월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모든 경험은 사회주의 혁명의 제 과업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필수적인 담보로 되는 것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자기 대렬의 맑스—레닌주의적 통일을 고수하는 것이며 이 통일을 파괴하는 종파와 그루빠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첨예한 계급 투쟁 속에서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 전후의 오랜 기간을 통하여 로동 운동에 엄중한 죄악을 끼친 종파의 여독이 완전히 가셔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우리 당에 있어서 자기 대렬의 조직 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견지하기 위한 투쟁의 의의를 더욱 증대시킨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1957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우리 당의 통일을 가일층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서 종파의 여독을 뿌리채 근절하고 당의 통일을 강화하며 당의 튼튼한 맑스—레닌주의적 조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력사적인 과업이 오늘 우리 세대의 당원들에게 부과되였다》라고 교시하였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당 단체들과 당원들 앞에는 우리 당 대렬을 와해시키려 하는 적대 세력들의 시도를 분쇄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보장하며 과거 우리 나라 로동 운동 내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종파 여독을 철저히 근절하고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조직적 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는 중대한 과업이 제기되여 있다.

우리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의 임무와 역할은 극히 중대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기초하여 조직된 전일체이며 당적 지도의 최고 원칙은 집체적 협의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각급 당 단체들은 유일한 당 중앙 위원회에 복종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옹호 실천하는 당의 전투적 단위들이며 전 당을 구성하는 지주(支柱)들이다. 각급 당 단체들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투쟁은 당적 지도의 최고 원칙인 집체적 협의제에 의하여 진행된다. 따라서 각급 당 단체들의 선두에는 집체적 지도 기관들인 각급 당 위원회들이 서 있다.

조선 혁명의 승리를 위한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은 각급 당 단체들을 통하여 전체 당원들과 비당원 대중 속에서 실천되는바, 이들을 당 정책 실천에로 조직 동원하며 그의 성과적 실행을 보장하며 전체 당원 및 비당원 대중을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킬 데 대한 책임은 우선 각급 당 지도 기관들에 부여되여 있다.

또한 우리 당에 있어서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당 생활을 일상적으로 지도 통제하며 당성을 단련하며 그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당 력량을 적절히 배치하고 간부들을 료해하며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출세주의, 개인 영웅주의 및 기타 온갖 불순한 요소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조직 전개하는 등의 모든 당 내부 사업들은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을 통하여 집행된다. 이것은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이 당의 조직 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전 당 앞에서 특별히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로 우리의 각급 당 위원회들은 해당 지역 및 단위들에 있어서의 정치적 지도 기관들이며 당 단체들에 있어서의 기본 핵심체이다. 당 지도 기관들의 구성 정형과 그의 역할 여하는 대중 속에서의 당 정책 집행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당 단체들과 전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는 전 당의 제1차적 과업으로 된다.

최근 년간 당 중앙 위원회가 취한 일련의 대책들과 그의 일상적인 지도에 의하여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의 역할은 현저히 제고되였다. 특히 대부분의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은 당의 통일과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당내 사상 투쟁에 있어서 높은 당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것은 최 창익을 비롯한 종파 분자들의 반당, 반혁명 음모의 진상을 철저히 적발 폭로하고 그의 여독을 청산하며 당원들의 당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최근 년간의 투쟁에서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우리 당 지도 기관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투쟁의 결과에 오늘 우리 당 대렬은 일층 순결해졌으며 전 당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통일 단결되였다.

지나 온 모든 시기에 있어서 그러했던 바와 같이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전 당이 철석같이 단결하여 그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일치하게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므로 하여 전후 년간에 그 어려운 난관과 시련들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오늘과 같은 승리와 성과들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의 공고화를 위한 당 지도 기관들의 사업에는 결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많은 당 단체들에서는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를 위한 사상 투쟁이 고조되고 있으며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가 잘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 기관들의 역할은 급속히 발전하는 객관적 현실과 당적 요구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경제, 문화 사업은 그 규모와 내용이 더 확대되고 발전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에 걸치는 우리 당 정책들을 정확하고 기동성 있게 실행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이 당 단체들을 더욱 강화하며 당 력량 배치를 새로운 조건에 부합되게 계속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당적 지도를 일층 개선하여야 한다. 이 과업들의 성과적 해결의 기본 고리는 주로 해당 당 지도 기관들의 역할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 단체들은 금번 진행되는 지도 기관 결산—선거 사업을 통하여 당 지도 기관들을 튼튼히 꾸리는 데 특별히 큰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 지도 기관들이 당에 충실하고 당성이 강한 당원들로 잘 째워 있는 그러한 당 단체들에서는 당의 모든 정책이 정확하게 집행된다. 특히 이러한 당 단체들에서는 일체 불건전한 요소들이 적시에 폭로 제거되며 당의 통일이 견결히 수호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당 지도 기관들이 건실치 못한 당원들로 구성되였을 때에는 그 당 단체들에서 당 정책이 철저히 관철되지 못하며 불순한 요소들의 부식이 허용되며 나아가서는 반당 종파 분자들이 발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을 주며 결과에 당에 엄중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은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당 지도 기관들의 성원은 실제 사

업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대중에게 신망이 있고 당성이 강한 우수한 당원들로써 튼튼히 꾸리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당내에는 전쟁 전후의 평화적 건설 투쟁과 또한 조국 해방 전쟁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당성이 강한 많은 당원들이 있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지도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 지도 기관들이 수행하는 임무와 역할을 옳게 리해하고 그러한 우수한 당원들로 당 지도 기관들을 꾸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 있다.

이것은 당 지도 기관들을 강화하며 그의 역할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의 하나이다.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이 당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정치적 지도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상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업은 사람들, 특히 간부들과의 사업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간부들은 당 및 국가적 지도의 결정적 력량이다. 그들은 혁명 사업의 매개 부문 및 단위들에서 당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대중에게 당 정책을 해석 침투시키며 대중을 당의 주위에 집결시키며 정치, 경제, 문화적 과업 실행에로 조직 동원하고 지도하는 지휘 성원이다. 간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실행 보장할 데 대하여 당 앞에서 책임지는 동시에 대중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인민 대중은 간부들에게 지도적 책임과 커다란 신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며 그의 실행에로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 동원하며 당 정책을 외곡하거나 당의 통일을 저해하는 일체 불건전한 요소들과 견결히 투쟁하며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하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 당적 원칙을 고수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을 육성하여 지도적 지위에 선발 배치하는 당 간부 사업이 당 단체들의 사업에서 제1차적 의의를 가지며 기타의 모든 사업을 해결하는 기본 고리로 된다.

변천하는 생활의 요구에 상응하게 간부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며 그를 공고히 하는 사업은 비단 당 기관들 뿐만 아니라 정권 기관, 사회 단체 등의 지도 기관들과 그의 모든 부서들의 의무적인 기본 과업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항상 간부 사업을 한 개의 전문 부서의 사업으로만 국한시키지 말 것을 강조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당 기관들의 간부 사업 전문 부서들을 폐지하고 각 부서들의 책임하에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간부 정책에 의하여 이미 강력한 간부 대렬을 가지게 되였으며 당 기관 각 부서들의 사업 수준이 제고된 현실적 조건으로부터 출발한 정당한 조치이다. 각급 당 지도 기관들과 매개 일'군들은 당의 이 조치가 가지는 본질적 의의를 옳게 파악하고 우선 간부 사업에 당 기관 각 부서들과 지도 일'군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의 간부 선발 배치의 당적 원칙은 그의 정치적 자질과 실무적 능력에 의거하는 그것이다. 이에 있어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그의 정치적 자질 즉 당성이다. 우리 당은 이미 많은 어려운 난관들을 거쳐 왔는바 그 경험이 보여 주는 바에 의하면 비록 실무, 기술적 능력이 높다 하더라도 만일 그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 부족하다면 난관을 돌파하고 대중을 당 정책 관철에로 인도하기가 곤난하며 그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도 당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원만히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반대로 현재에는 비록 실무, 기술적 수준이 좀 어리다 하더라도 정치적 자질 즉 당성이 강한 그러한 사람은 당에 충실히 복무하려는 꾸준한 노력으로 하여 자기의 실무 능력을 급속히 제고하며 당 정책을 책임성 있게 옹호 관철하는 것이다.

우리 앞에는 금후에도 많은 난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은 간부를 우선 당성이 강한 사람들로 선발 배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간부의 당성이란 그 어떤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 생활과 당 정책 실천을 위한 투쟁 속에서

그 자신의 노력과 당 단체들의 지도 방조 및 교양에 의하여 제고되며 단련된다. 또 당원들의 당성 정도는 그의 말이나 기타 표면상 표징으로써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투쟁을 통하여서만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은 전체 당원들 속에서 당성 단련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조직 전개하여 우선 전체 간부들의 당성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과거 정치 생활이 순결하고 일편단심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 복무하는 그러한 당원들을 대담하게 지도적 직위에 등용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물론 간부의 실무적 능력을 무시하여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간부의 실무적 능력이 응당히 고려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 기술적 능력에 편중함으로써 정치적 표징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제3차 당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간부의 정치적 표징을 과소 평가하고 실무적 기능에 편중함으로써 간부 대렬의 질적 구성을 약화시키며 당 사업의 정치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현상들을 더욱 철저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는 우리 당 단체들이 계속 명심하여 실천하여야 할 지침으로 된다.

문제는 각급 당 위원회들이 간부 사업을 당 지도 기관들의 사업의 제1차적 위치에 올려 세우며 친척, 친우, 안면 관계 등에 의하여 간부를 선발 등용 배치하는 경향과 결정적으로 투쟁하며 간부들을 정치적 및 실무적 표징에 의하여, 우선 무엇보다도 당성이 강한 당원들로 선발 배치하고 그들의 당 생활을 일상적으로 지도 통제하며 사업을 통하여 그의 장점과 결점들을 정확히 료해하고 그의 장점을 지지 발전시키며 결함을 극복하도록 일상적으로 방조하며 계통적으로 교양 육성하는 데 있다.

우리 당을 조직적 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의 사업에서 다음의 중요한 고리는 당 핵심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그것이다. 당 핵심 육성 사업은 간부 사업의 불가분적 한 부분이다. 그것은 당 핵심이란 개념 가운데 당과 혁명에 충실한 모든 간부들이 포함되여 있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당 핵심이야말로 혁명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간부를 길러 내는 가장 풍부한 후비 원천이며 저수지로 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특수한 사회 력사적 환경과 또 당 대렬이 비교적 급속하게 장성된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일찍부터 당 핵심 육성 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여 왔으며 또 부여하고 있다. 당 핵심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 대렬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고리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시키며 당 간부 후비 원천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당 핵심이란 어떠한 당원들인가 하는 표징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당 간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높은 당성이 그의 가장 중요한 표징으로 된다. 당 핵심이란 과거 정치 생활이 순결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에 무한히 충실하며 어떤 곤난한 조건하에서도 동요 없이 당 정책을 옹호하며 그의 관철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바쳐 투쟁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에 배치되는 일체 불건전한 요소들과 견결히 투쟁하며 자기의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인민 대중 속에 신망이 높은 그러한 당원들이다.

우리 당은 자기 대렬내에 실제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많은 핵심 당원들을 가지고 있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튼튼히 단결되였고 그에 무한히 충실한 핵심 진지――이것은 우리 당의 공고화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밑천이다.

이러한 핵심 진지가 있으므로 하여 우리 당이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무력 침공을 격파할 수 있었으며 또 박 헌영, 리 승엽 간첩

종파 도당을 비롯하여 최근의 최 창익, 박 창옥 도당의 반당, 반혁명 음모를 제때에 철저히 적발 폭로 분쇄할 수 있었으며 당의 모든 정책을 대중 속에서 승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당의 핵심 진지를 공고화하기 위한 당 위원회들의 사업에는 결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최근 년간 당내 투쟁 행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당 지도 기관들은 의거할 수 없는 불견실한 당원들을 당 핵심이라고 의거하였으며 그 결과 당 사업에 적지 않은 손실을 초래하였다.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일부 당 지도 기관들이 핵심 대렬을 확대 공고화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동시에 이것은 당 단체들의 귀중한 교훈으로 된다.

그러므로 당 지도 기관들은 우리 당내에서 당 핵심들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옳게 리해하고 전 당을 강화하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기본 고리의 하나로서 당 핵심 진지를 강화하기에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간부 사업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핵심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실지 사업을 통하여 검열하고 료해한 기초 우에서 당성이 강하고 발전성 있는 그러한 당원들을 발견 장악하며 그들을 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입하며 그들을 계통적으로 교양 육성하기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핵심 당원이란 어떠한 부족점도 없는 그러한 공산주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핵심 당원들의 혁명적 의식 정도와 그의 당성 단련 정도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에 대한 그들의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적극성과 창발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옳게 분별하여 그들을 계통적으로 훈련하고 교양 육성하는 데 있다.

일부 일'군들은 당 핵심 육성 사업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을 흔히 초급 당 단체들의 사업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는바 이에 잠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초급 당 단체들은 전체 당원들을 소속시키고 있는만큼 핵심 육성 사업의 주되는 고리이며 또 초급 당 단체들을 당 핵심들로써 튼튼히 꾸리는 것은 전 당을 강화하는 기본 고리이다. 그러나 핵심 육성 사업은 초급 당 단체 사업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당 단체들의 중요한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당 핵심은 초급 당 단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타 모든 지도적 기관들에도 있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사업의 모든 단위들과 기관들이 당 핵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들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사업함으로써만 당 정책을 정확히 집행할 수 있으며 당의 위력을 가일층 제고할 수 있다.

당의 공고화를 위한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의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의 또 하나는 당 핵심에 튼튼히 의거하여 전체 당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그것이다.

이에 있어서도 우선 당원들을 사회주의 의식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당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는 이미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지배적 력량으로 되였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사회주의적 합법칙성, 사회주의적 원칙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은 생활의 변천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다. 그리하여 아직 일부 당원들은 사회주의의 기본 원리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로동에 대한 태도 및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에 대한 부정확한 리해, 착취 현상과 적대 세력에 대한 경각성의 부족 등 기타 문제들에서 특히 표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은 당원들을 사회주의적 의식으로써 교양하는 사업을 변천된 현실 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수준에로 제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모든 당원들을 그들이 사회주의적 원리를 옳게 파악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혁명자적 자주성을 발휘하며 당의 로선을 견지 관철할 줄 아는 계급적 각성이 높은 혁명 투사들로 길러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은 모든 당원들이 다 당 규약상 규범들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며 당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실지 투쟁 속에서 자기의 당성을 검열하고 단련하도록 그들을 당 사업에 적극 인입시키며 그들의 당 생활과 당적 임무 수행 정형을 검열하며 지도 방조하며 통제하여야 한다. 그 어떠한 당원도 당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당적 통제 밖에 방임되여서는 안된다.

당원들에 대한 당 단체들의 일상적인 통제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사업이 결합됨으로써만 그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사회주의적 사상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체 당원들의 당성과 사회주의적 사상 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당 대렬을 질적으로 강화하며 비당원 대중 속에서의 당원들과 당 단체들의 선봉적 역할을 제고하는 기본 고리이며 당 핵심 대렬을 확대하는 기본 대책으로 되는 것이다. 당 지도 기관들은 전체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제고하며 그에 의거함으로써만 광범한 비당원 대중 속에서의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당 지도 기관들이 간부들과 핵심들에게 의거함이 없이는 전체 당 단체들과 당원들과의 사업을 옳게 진행할 수 없으며 또 전체 당원들에게 튼튼히 의거함이 없이, 그들의 선도적이고 창발적인 활동이 없이는 전체 근로 대중과의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모든 사람들과의 사업이 없이는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도, 대중 속에서의 당 정책의 실행도 상상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당 사업이란 바로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동시에 그것은 고도의 창발성과 정치적 자주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일부 우리 당 지도 기관들은 당 사업의 창조적 성격을 완전히 체득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당 기관들과 특히 그의 경제 지도 부서들에서는 표면상에 나타난 이러저러한 현상과 경제 수'자들 만을 장악하는 데 관심하면서 더 중요한, 그런 현상 혹은 그런 수'자를 낳게 한 사람들 속에서의 조직 정치 사업을 찬요시하고 있다. 당 사업을 행정식 방법으로 진행하며 행정 사업을 대행하는 등 현상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당 지도 기관들의 역할을 응당한 수준에까지 제고시킬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지도 기관들과 당 일'군들의 활동에서 자주적인 창발성을 제고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어떤 과업이 우에서부터 내려 올 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며 실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당 결정의 개개의 조항을 기계적으로 대하는 일체 소극적이며 형식적인 사업 태도를 극복 시정할 것을 교시하였다.

매개 당 지도 기관들은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허다한 과업들을 이것저것 어루만지면서 어느 한 문제도 똑똑히 결속짓지 못하는 현상을 시정하고 매 시기에 제기되는 당 단체들의 기본적 중심 과업들을 옳게 설정하고 그에 당 력량을 집중하여 해결하며 차요한 과업들을 그에 복종시켜 해결하는 능숙한 사업 방법들을 체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이 당 중앙 위원회의 로선과 정책에 엄격히 근거하여 창발적으로 활동함으로써만 각이한 지방적 조건 혹은 특수적 조건하에서도 당 정책을 외곡함이 없이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으며 당 사업에서 도식주의를 극복하고 변천되는 구체적 조건에 부합되게 당 사업 방법을 발전시키며 하부에서 새로이 성숙된 문제들을 적시에 포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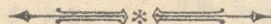
당 기관들의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놀아야 할 것은 당 기관의 부서들과 지도원들이다. 이러한 부서들과 지도원들을 통하지 않고, 그의 적극적인 방조가 없이 당 지도 기관들은 자기의 지도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은 부서들 및 지도원들을 당 핵심들로써 튼

튼히 꾸리며 그들의 정치적 지도 수준과 실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 당 지도 기관들이 이와 같이 당 기관 내부를 튼튼히 꾸리고 당 사업을 당 간부들과 당 핵심들과 전체 당원 및 근로자들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창발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행한다면 당을 공고화하는 방면에 있어서나 경제 문화 건설 방면에서 얼마나 더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8월 및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 행정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각급 당 지도 기관들의 사업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당 위원회들의 집체적 지도가 더욱 강화되여야 하며 또 그것이 당의 군중 로선 원칙과 긴밀히 결합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우선 당 위원들과 전체 간부 및 당 핵심들이 한편으로는 당 정책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 속에서 일상적으로 사업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대중의 진정한 의사와 생동하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문제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도 일'군들의 경험을 대중의 경험과 결합시키며 문제 해결의 일면성을 극복하는 가장 검열된 방법이다. 이러한 집체적 지도는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된 과업 집행에 있어서 엄격한 개인 책임제를 요구하며 그를 전제로 한다.

개개의 간부 및 당원들이 이미 결정된 문제를 집행하기 위한 대중 속에서의 책임적인 사업이 없이는, 그 행정에서 자기 자신과 대중의 경험을 체득함이 없이는 어떠한 집체적 토의도 결코 원만한 것으로 될 수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당 지도 기관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그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그에게 부과된 당의 공고화를 위한 중대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조선 로동당은 조선 인민군의 창건자이며 그의 승리의 조직자

최　　종　　학

전체 조선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앙양된 정치적 및 로력적 투쟁의 환경 속에서 영웅적 조선 인민군 창건 1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10년간 조선 인민군은 조선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 고무자인 우리 당의 지도하에 영광스러운 승리적인 행로를 걸어 왔다.

조선 로동당은 우리 조국의 국방력의 조직자이며 지도자이다. 우리 당은 인민 무력 건설 문제를 우리 혁명 발전과 인민 민주 독재의 강화를 위한 근본적 문제의 한 부분으로서 제기하고 《새로운 사회적 계급은… 곤난한 국내 전쟁 가운데서 새로운 계급의 새로운 군대와 새로운 기률과 새로운 군사 조직체를 창건함이 없이는 그 어느 때도 결코 이 지배권을 장악하고 공고화할 수 없었으며 또 현재도 그러하다》(전집 28권 262 페지)라고 하신 웨. 이. 레닌의 교시를 인민군 건설의 실제적 사업의 리론적 기초로 하여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당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 인민군을 제때에 창건하였으며 그의 건설과 교육 교양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그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 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의 국방력 강화와 인민 군대의 모든 군사적 활동은 당의 지도하에 진행된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 군대의 불패의 위력과 모든 승리의 원천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 인민 무력의 건설을 위한 준비 사업은 벌써 8.15 해방전 반일 민족 해방 투쟁 과정에서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였다.

일제 식민지 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우리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최선두에 나선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국제 로동 운동 및 반파쑈 민주 력량과의 튼튼한 련계 밑에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주객관적 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을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조선 인민의 반일 혁명 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민족 해방 투쟁을 지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 준비에 거대한 력량을 경주하였으며 당 창건을 위한 준비는 역시 항일 빨찌산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사업과 긴밀히 련결되여 진행되였다.

김 일성 원수는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하여 분산된 공산주의자들을 집결시켰으며 핵심을 육성.단련 보존함으로써 당 창건의 튼튼한 토대를 축성함과 동시에 이들이 항일 무장 대렬 내에서의 튼튼한 핵심을 이루게 하였다.

또한 맑스—레닌주의를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조선 혁명의 성격과 과업을 정확히 규정하고 무장 투쟁과 대중과의 련계 문제, 반일 투쟁의 주되는 형태를 무장 투쟁으로 규정하고 그의 투쟁 과정에서 혁명 근거지와 인민 정권 수립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당 창건과 통일 전선 결성 문제들을 제기하고 당 창건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당 창건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한편 혁명적인 로동자, 농민 및 애국적 청년들과 학생들로 되는 첫 항일 무장 대오를 조직하였으며 그의 력량을 부단히 확대 강화함으로써 1934년에 이르러 대련합 부대인 조선 인민 혁명군을 창설하였다.

항일 빨찌산 내에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적 핵심이 구성됨으로써 당 생활을 강화하며 부대 생활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를 보장하였다.

항일 빨찌산 부대들은 우리 민족의 지망을 훌륭히 체현한 혁명적인 인민 무력의 첫 대오로서 15 성상에 걸쳐 온갖 간난신고를 극복하면서 일본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항일 빨찌산 부대는 우리 민족 해방 투쟁 사상에 길이 빛날 자기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열화같은 혁명적 애국주의 정신과 일본 강도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 해방 투쟁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 고상한 전투 도덕적 품성 등으로 되는 혁명적 애국적 전통을 수립하였으며 가렬한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고귀한 군사적 경험들을 축적하고 우수한 군사 정치 간부들을 수 많이 육성 단련하였으며 특히 무장 투쟁에 대한 당적 지도의 고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과 항일 빨찌산들에 의하여 발전된 혁명적 전통은 해방 후 주권을 장악한 우리 인민이 새형의 군대를 창건하고 그를 강화 발전시키는 력사적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으로 되였다.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한 8.15 해방 후 김 일성 원수를 수위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창건된 우리 당은 우리 나라 혁명 세력 앞에 조성된 유리한 정세들을 리용하면서 남북 조선의 전체 인민들을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였다.

우리 당은 해방 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다단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초 우에서 우리 혁명의 성격과 당면 임무들을 정확히 규정하고 매 시기에 적응하게 구체적인 투쟁 형태와 조직 형태들을 규정하였다.

우리 당의 지도하에 우리 인민 정권은 쏘베트 군대가 지어준 유리한 조건하에 국내의 광범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력량을 집결하면서 반제 반봉건 혁명의 과업으로서 제반 민주 개혁들을 수행하고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면서 공화국 북반부에 민주 기지를 창설 공고화하며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는 길에 들어 섰다.

그러나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의 주구 리 승만 역도들을 사촉하여 남조선의 민주 력량을 탄압하고 반동 세력을 규합하여 낡은 식민지적 통치 제도를 복구하며 우리 나라에 대한 오래 전부터의 침략 계획을 실현하려고 발광하였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을 대륙 침략의 교두보로 전환시키는 한편 이전의 일본군, 위만군 및 장 개석 군대 장교로 복무하던자, 친일파, 친미파, 민족 반역자, 일제 경찰, 북반부에서 도주한 반동 분자들을 규합하여 자기들의 침략 도구인 리 승만 괴뢰군과 괴뢰 경찰대를 조직하고 무력을 증강하면서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침공을 로골적으로 준비하였다.

우리 당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조선 인민의 반역자 리 승만 매국 도당이 우리 조국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전쟁 준비 정책을 감행하며 동족 상쟁의 내란 도발을 획책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인민 무력을 창설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당은 우리 조국에 조성된 이러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창설된 민주 기지와 인민들의 혁명적 전취물들을 수호하기 위하여 1948년 2월 8일 진정한 인민의 무장력인 조선 인민군을 창건하였다. 김 일성 원수는 인민군 창건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조국과 인민을 반대하는 목적을 가진 침략 세력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우리 국가를 건설 공고화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부와 로동당은 자기의 군대 즉 인민군을 창건할 필요성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선집 4권 418 페지).

전쟁의 근원으로 되는 제국주의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국가를 막론하고 자주 독립 국가로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의 군대를 가져야 한다.

력사적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자기의 군대를 가지지 못한 나라가 완전한 독립 국가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던 사실도 그 당시 일제의 침략 군대를 격파할 수 있는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완전 자주 독립 국가로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을 방위하며 어떠한 원쑤들도 우리 조국과 인민을 침략할 수 없게 하는 인민 군대를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김 일성 선집 1권 537 페지).

조선 인민군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와 우리 혁명의 발전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사변이였다. 해방된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의 지도하에 자기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 및 전체 근로 인민의 자제들로 구성된 진정한 자기의 인민 무력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인민군의 건군 원칙을 규정하고 명확한 군사 로선을 제시하였다. 군대는 어데까지나 계급 투쟁의 도구이며 당의 정치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무장 집단이란 것을 명확히 밝히면서 혁명 사업과 국가 건설에 적극 참가할 것을 규정하였다.

우리 당은 인민군 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기초하여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적 전통을 토대로 하고 선진적 쏘베트 군사 과학과 위대한 쏘련 군대의 풍부한 경험을 참작하면서 창건되는 군대의 계급적 성격, 조직 형태, 교육 교양의 원칙을 정확히 규정하였다.

조선 인민군은 우리 나라의 해방된 근로 인민들의 자제들로 조직되였으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며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의·혁명적 애국 전통을 계승한 군대이며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되며 백전 백승의 쏘베트 군사 과학의 원칙들로 무장되며 쏘련 군대의 풍부한 전투 경험을 부단히 섭취하고 있는 새형의 군대이다.

조선 인민군은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 창설된 인민 민주 제도, 사회주의 전취물 및 인민들의 창조적 로력 성과들을 수호하며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완전 통일과 자주 독립을 보장하며 극동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자기의 력사적 사명으로 하고 있다.

당은 인민 군대를 창건함에 있어서 현대적 정규군으로의 형성에 주력하면서 장구한 항일 무장 투쟁에서 단련된 군사, 정치 간부들을 군대의 지도적 핵심으로 하고 우수한 당 간부들과 당원들을 첫 인민군 대렬에 파견하는 한편 새로운 지휘 간부들의 육성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였다.

현대적 정규군의 중요 표징은 군대의 조직 및 관리에 대한 유일한 제도, 엄격한 자각적 군사 기률, 군인들에 대한 교육 및 교양에 대한 유일한 원칙, 군인 성원들의 군사적 복무의 유일한 절차 등이다.

당은 인민 군대를 현대적 정규군으로 건설 공고화함에 있어서 우선 인민 군대는 철두철미 근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복무하며 그의 구성과 조직 형태 및 온갖 생활과 전투 활동이 당과 혁명의 리익에 엄격히 복종되여야 한다는 그의 계급적 본질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당은 또한 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관한 문제, 군대 내에 엄격한 중앙 집권적 유일 관리 체계와 자각적인 군사 기률을 확립할 데 대한 문제 등 인민 군대 강화를 위한 일련의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당은 항상 군인들에 대한 사상 정치 교양 사업에 제1차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당은 정치적 교양의 지도적 역할하에 정치 교양과 군사 교양을 밀접히 결부시키며 전체 군인들을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열렬한 애국주의 및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당과 인민의 리익에 끝까지 충실한 강철의 혁명 투사로 육성 단련하기 위한

당 정치 사업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청소한 우리 군대는 당의 부단한 지도와 배려 밑에 최신 무기와 전투 기술 기재로 장비되였으며 고상한 전투 도덕적 품성을 소유한 우리 조국의 믿음직한 방위자로, 현대적 정규군으로 급속히 장성 강화되였다.

력사는, 우리 당이 인민 군대를 제때에 창건하였고 그를 당의 군사 전략적 임무를 충실히 집행하며 사회주의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현대적 무력으로 육성 강화한 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하였다.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인민 군대는 당의 지도하에 38 연선에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막대한 인원과 전투 기재를 동원하여 끊임 없이 감행한 침략적 무장 도발들을 제때에 좌절시키고 북반부 인민들의 민주 건설의 성과들을 믿음직하게 보위함으로써 자기 앞에 부과된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의 수령이며 혁명의 참모부로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선 인민과 인민 군대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인민 군대를 강화하며 그의 전투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적 역할과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은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더욱 확증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제와 리 승만 도배들이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무력 침공을 개시하자 당은 전체 우리 인민과 인민 군대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위대한 항전에로 불러 일으켰다.

당은 인민 군대의 공고한 후방을 조성하며 증대되는 전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조직적 기능과 력량을 집중시키였으며 짧은 시일내에 우리 나라의 국가 및 사회 경제 생활을 전시 체제로 개편하고 전시하 군수 생산과 농촌 경리의 강화와 인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제 대책들을 취하였으며 근로자들의 류례 없는 로력적 앙양을 조직하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전쟁의 전 기간을 통하여 인민 군대에 대한 군사 전략적 지도에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당과 최고 사령관 김 일성 원수는 전쟁의 매 계단에서 조성된 군사 정치 정세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과 평가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군사 전략적 방침을 작성하였다.

당은 정확한 군사 전략적 방침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쏘베트 군사 과학의 제 원칙을 참작하며 우리 나라의 지형 조건, 우리 군대의 조직 장비, 현대적 군사 기술로 장비된 적의 행동 성격 및 기타 조선 전쟁의 일련의 특성들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당의 군사 전략적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투쟁 방도들을 명시하였으며 그의 실현에로 인민 군대를 조직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 군대는 당의 지도하에 반공격전에 있어서와 간고한 후퇴 및 방어전에 있어서 항상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적의 전략적 기도를 매 걸음마다 파탄시켰으며 혁혁한 전투 승리를 쟁취하였다.

조선 인민군은 오직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군사 전략적 방침과 김 일성 원수께서 직접 지도하신 최고 사령부의 정확한 전략—작전적 지도하에서만 소위 《기술적 우세》를 자랑하던 미제의 침공을 성과 있게 분쇄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은 전쟁 기간 인민 군대의 전투적 위력을 백방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심심한 배려를 돌려 왔다.

당 중앙 위원회의 지도 밑에 군대내 정치 기관, 당 단체들은 지휘관의 믿음직한 지주(支柱)로서 전체 당원들과 군인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 부동한 신심,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교양하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의 용감성과 대담성 및 완강성의 정신으로 무장시켰으며 그들을 전투 임무의 성과적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였다.

군대 내의 로동당원들은 가렬한 전투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당과 조국에 대한 헌신성과 영웅성의 모범으로써 전체 군인들을 원쑤 격멸을 위한 영웅적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였다. 인민군 장병들은 전투의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당의 고무에서 무한한 용기와 승리의 신심을 얻었으며 자기들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를 영예로운 조선 로동당원이라고 칭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한결같은 지망을 표시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 당에 대한 인민군 군인들의 열렬한 사랑과 신뢰와 무한한 충성심을 말하여 주고 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조선 인민이 력사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나라의 선진적 국가 사회 제도하에서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주위에 전체 조선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이 철석같이 단결되여 원쑤 격멸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궐기하였으며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와 희생을 무릅쓰고 무비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한 데 기인된다.

조선 인민의 승리는 또한 위대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위시한 국제 민주 진영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막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조와도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만일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로 무장되고 투쟁에서 세련되고 단련된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가 보장되지 않았더라면, 또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련대성에 의거함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민과 인민 군대는 국제 제국주의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와 같은 흉악한 침략자들을 타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도 우리 당은 전후 복구 건설의 경제적 과업과 동시에 정전의 공고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군사 정치적 과업을 제시하고 이 과업들의 실천을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을 조직 동원하였다. 전후 기간에 우리가 달성한 성과와 실지 생활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똑똑히 실증하여 주고 있다.

전후 시기에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면서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며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 인민 무력 강화를 위한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은 인민 군대를 강철같은 간부 군대로 육성 강화하는 데 있다.

김 일성 원수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인민 군대를 강철같은 군대로 만들며 어느 때든지 자기의 민주 기지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무장력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업을 완수한다면 적들의 침략 기도를 미연에 좌절시킬 수 있으며 만약 적들이 침략 행동을 또 다시 감행한다 하더라도 침입하는 적을 물리치고 그 적을 따라가 완전히 소멸하도록 할 것입니다》.

간부 군대——이는 군대 전체 성원이 군사 정치적 준비를 꾸준히 완성함으로써 자기 직무의 군사적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하고 그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군대이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인민 군대를 간부 군대로 육성 강화하기 위하여 그를 정치적 기술적으로 강화하며 군인들의 군사적 기능을 제고하며 부대 전투력과 전투 준비를 가일층 강화하는 데 거대한 주의를 돌렸다.

당의 배려하에 전후 인민 군대의 전투력과 전투 준비는 더욱 강화되고 군인들의 전투 도덕적 품성은 일층 제고되였으며 적들의 어떠한 군사적 모험에 대하여서도 결정적 타격을 주고 당과 조국과 인민들의 사회주의 건설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불패의 군대로 장성 강화되고 있다.

우리 당은 인민 군대를 강화함에 있어서 군인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에 항상 제1차적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당은 군인들 속에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세계관을 확립하며 그들을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당과 정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우리 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증오심으로 교양하며 근로 인민들이 주인으로 되여 있는 사회주의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는 열렬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위대

한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제 국가 인민들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현대 전쟁에서 필요한 고상한 전투 도덕적 품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주의적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당은 군인 교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대내 모든 분야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하며 지휘관들과 정치 기관 및 당 단체들의 조직 교양자적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심중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당의 령도——이것은 인민 군대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우리 당은 오래'동안 당내에 잠재하면서 흉악한 책동을 감행하여 온 최창익, 박 창옥을 비롯한 반당, 반국가적 종파 분자들을 폭로 분쇄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였다. 전체 군무자들은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와 그 정책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당에 대한 다함 없는 충실성과 헌신성을 표명하면서 반당 반국가적 종파 분자들을 반대하고 당 대렬의 통일과 순결성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여 한사람같이 나섰다. 이리하여 인민 군대는 자기의 철옹성같은 정치—사상적 통일을 더 한층 강화하였다.

오늘 전체 조선 인민과 인민 군대 앞에는 우리 나라에서 정전을 공고화하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의 공고화를 위하여 투쟁하며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튼튼히 보위하면서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완수하여야 할 거대한 성스러운 과업이 서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우리 조국이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 평화적으로 통일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서 정전의 공고한 평화에로의 전화,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퇴, 남북 조선의 통상과 인민들 간의 자유로운 래왕과 통신 및 문화 교류의 실현,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남북 조선 대표가 참가하는 유관 국가들의 국제 회의의 소집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조선 정전의 공고화와 평화적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민 군대에서 수 많은 인원을 제대시켜 평화적 건설에 돌리였으며 1956년에는 인민군 무력 중에서 8만 명의 병력과 그에 해당하는 기술 장비를 축소하였다.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념원하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이미 19개 사단의 지원군을 조선으로부터 철거시켰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7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원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과 방안을 재천명하였으며 남북 조선의 현존 병력을 10만 혹은 그 이하로 축소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시종 일관한 노력을 확증하여 준다.

그러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우리의 이 모든 정당한 제의들을 무조건 반대하면서 남반부 인민들에 대한 식민지 략탈 정책을 더욱 강화하며 《북진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군사 분계선에서 각종 침략적 도발 사건을 계속 조작하는 한편 이미 중립국 시찰 소조들의 활동을 불가능케 하였으며 최근에 와서는 정전 협정의 일부 조항을 폐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미제는 전후 리 승만 괴뢰군 병력을 계속 증가시키여 그를 70만으로 확장하여 놓았으며 미국으로부터 각종 신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반입하여 괴뢰군을 무장시키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들은 이미 《유엔군 사령부》를 서울로 이동하였으며 우리 조국 남반부를 미국의 원자 기지화하기 위한 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으며 고용병들 속에서 《북진 전쟁》 선동과 《반쏘 반공》 깜빠니야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3차 대회는 《아세아와 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책동을 경각성 있게 주시하며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평화적 건설을 철옹성같이 수호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세계는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의 력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 조국에서도 적아간의 력량 관계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급격히 변동하고 있으므로 하여 사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더욱더 호전되고 있다. 이것은 동시에 몰락하는 원쑤들의 정치—사상적 및 군사적 책동과 발악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진보적 인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 인류 력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세계 각국 공산당, 로동당 대표들의 모쓰크바 회의 선언들은 세계에서의 사회주의와 평화 력량의 결정적 우세를 시위하는 동시에 평화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을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전체 진보적 인류의 가장 중대한 당면 과업으로 인정하였다.

오늘 전체 조선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날로 장성 강화되는 쏘련을 선두로 하는 국제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평화 진영의 위력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 회의 선언들과 우리 당 12월 (1957년) 확대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립각하여 형제적 국가들의 군대 및 인민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의 가일층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제지하며 긴장 상태의 격화와 전쟁을 반대하여 초미의 문제인 원자, 수소 무기 금지에 대한 국제 협정을 실현시키며 세계 평화를 공고화하며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동방의 전초에 굳건히 서 있다.

조선 인민군의 10 년간의 빛나는 승리와 영광에 찬 전투적 행로는 우리 당의 정확한 군사 로선과 인민 군대의 창설 및 그의 육성 강화를 위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해주고 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력사적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조선 혁명을 승리적으로 추진시키는 그의 과학적인 정확한 정책으로 하여, 자기 대렬의 불패의 통일 단결과 강철같은 혁명적 기률로 하여, 전체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 유일한 목적 달성에로 향도하는 능숙한 조직자적 능력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 인민 군대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고무자로 되고 있다.

어떠한 원쑤들도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되였으며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한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적극적 지지 성원을 받고 있으며 어떠한 곤난한 조건과 환경하에서도 당과 혁명의 리익을 끝까지 사수하기에 준비된 우리 인민 군대의 불패의 위력 앞에 멸망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자기의 창건 10주년을 맞이하는 조선 인민군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침략적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며 전투력과 전투 준비를 완성하며 공화국 북반부 혁명적 민주 기지와 인민들의 사회주의적 전취물을 철옹성같이 수호하며 당과 인민의 커다란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조 쏘 친선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구현

최 상 도

지난해 12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자기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모쓰크바 회의에서는…위대한 쏘련과 쏘련 공산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굳게 뭉쳐야 한다는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모쓰크바 회의는 또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형제적 관계와 친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국제주의를 애국주의와 결합시키는 정신에서 전체 근로자들을 교양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쏘련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문제와 국제주의 교양을 애국주의 교양과 결합시켜 강화하는 문제는 현 시기에 있어서 전 세계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국제주의적 단결과 사회주의 력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제국주의가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환경하에서 제국주의 침략 계층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면서 무엇보다도 쏘련과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들을 리간시키며 이 나라 인민들을 민족주의와 수정주의의 진흙탕으로 이끌기 위하여 《민족 공산주의》 등의 구호를 던지고 있다. 오늘 수정주의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에서의 주되는 위험으로 되고 있다. 그러니만큼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부르죠아 민족주의적 경향을 반대하여 애국주의와의 통일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현 시기에 있어서 중요한 실천적 과업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 맑스—레닌주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 국제주의적 단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애국주의를 요구한다. 이것은 력사적 조건들에 의하여 객관적, 필연적으로 규정되는 사실이다.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민족과 민족 국가를 발생시킨만큼 프로레타리아트는 《아직 그 자체가 민족적》이며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적 지배권을 전취하여야 하며…》(《공산당 선언》 참조) 이리하여 근로자들의 진정한 조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는 이것을 정당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강조한다.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조국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애국주의는 또한 필수적이다.

프로레타리아트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진정한 조국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전취될 수 있는바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은 우선 민족적, 일국적 범위에서 수행되여야 하는 동시에 국제주의적 련대성 없이는, 세계적 범위에서의 승리 없이는 종국적 승리를 달성할 수 없다.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업은 국제적인 동시에 애국적인 사업으로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국제주의와 함께 애국주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자,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자만이 진정한 애국자로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써 설명된다.

감정, 의식으로서의 국제주의와 애국주의——그것은 조화적으로 량립할 뿐만 아니라 호상 견인하며 호상 전화하는 감정이며 의식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맑스—레닌주의에 있어서 국제주의 의식의 표현으로서의 국제주의적 행동, 실천은 동시에 조국을 위해 리익으로 되며 애국주의 표현으로서의 애국주의적 행동, 실천은 동시에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와 세계 혁명의 공동의 리익에 대한 기여로 된다.

사회주의, 맑스—레닌주의는 매개 민족 프로레타리아트에게 국제주의적 단결과 동시에 자기 조국에 대한 애국주의를 요구하며 민족적 자주성과 주권, 전통 등 민족적인 것들 간의 호상 존중과 평등을 요구한다. 물론 이것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서 전체의 리익을 우위에 놓을 데 대한 요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적 단결은 사회주의 10월 혁명 이후 쏘련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형태로 되고 있다. 이것은 국제 로동 운동,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에서의 쏘련의 지위와 역할에 의하여 객관적, 필연적으로 조건 지어지고 《력사적으로 형성된》 (김 일성)사실이다.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단결——이것을 거부하거나 과소 평가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소여 나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사업을 위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많든 적든간 손실을 가져 올 따름이며 맑스—레닌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으로부터의 크든 작든간 리탈을 의미할 따름이다.

따라서 쏘련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는 매개 나라 민족 프로레타리아트와 전체 근로자들의 애국주의도 쏘련과의 친선 단결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었으며 또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주의적 단결의 중심으로 되는 쏘련 인민 자체에 있어서도 국제주의와 애국주의는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여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대한 레닌은 먼저 승리한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임무를 규정하면서 《각국에서 혁명을 발전시키며 지지하며 분기시키기 위하여 한 나라에서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을 실현하는 것》(《프로레타리아 혁명과 반역자 까우츠키》)이라고 교시하였다.

이 교시에서 우리는 쏘련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자기들의 사회주의 조국의 강화 발전을 위한 일체의 애국적 활동은 곧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에 대한 충실성으로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또 매개 나라 민족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있어서도 쏘련을 지지 옹호하며 그의 주위에 단결하는 것은 세계 혁명의 발전을 위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조국에서의 혁명을 촉진하며 보위하는 애국적 행동으로 되며 반대로 자기 조국의 혁명 사업을 충실히 하는 애국적 활동은 세계 혁명 발전에 대한 국제주의적 기여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인민에 있어서도 바로 쏘련 인민과의 친선 단결은 국제주의적 의무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조국과 자기들 자신에 대한 충실성으로 되고 있다.

조선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의 기치하에 쏘련 인민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에 의거함으로써만 자기들의 진정한 민족적, 사회적 해방, 진정한 조국 창건을 위한 투쟁의 길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 투쟁의 성과를 보장할 수 있었다. 일제 통치의 암담하던 시기, 서방 제국주의 승냥이들이 자기들의 강도적인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일제의 조선 통치를 지지하며 혹은 가능하다면 일제를 대신하여 조선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기도하던 시기에 오직 쏘련만이 우리 인민의 믿음직한 벗이며 등대였다. 따라서 쏘련에 의거하고 10월의 길을 따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는 진실한 공산주의자들 만이 진정한 애국자들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한 우리 나라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애국자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자기들의 무장 투쟁으로써 사회주의 조국 쏘련을 옹호하는 사업에 기여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애국주의는 쏘련을 사랑하며 옹호하는 국제주의와 직접으로 결부되여 있었다.

매개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활적인 문제——그것은 그들의 민족적 자주 독립이며 진정한 조국이며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발전이며 자기들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는 것이다. 모든 제국주의 승냥이들이 다른 인민들로부터 이것을 빼앗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을 때 쏘련은 시종일관 이것을 옹호하는 투사로서 결정적으로 출현하였으며 하고 있다.

우리 인민을 해방한 쏘련 군대와 쏘련 인민은 우리 인민의 새 조국 창건과 자유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 주었고 그것을 백방으로 방조하여 주고 있으며 오늘 우리 인민의 최대의 과업인 조국의 통일 독립 완수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해방전 시기로부터, 특히 해방 이후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권리를 옹호하며 우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정치 무대에서의 쏘련의 불굴의 투쟁——이것은 오늘 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존립과 그의 자유로운 발전,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조국의 존재는 쏘련의 정치적 도덕적 지원에만 힘입은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떤 민족도 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자주 독립이 없이는 완전한 국가적 독립을 유지할 수 없으며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없다. 때문에 전 세계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해방과 민족적 독립의 보장을 위한 쏘련의 국제주의적 지지 원조는 정치적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그 나라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물질적으로 보장할 조건의 조성을 방조하는 데까지 철저하다.

경제 문화 령역에서의 조 쏘 량국간의 호상 협조와 원조는 우리 조국의 자주 독립과 우리 인민의 복리 창조를 물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새형의 국제 관계의 모범적인 례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문화적 협조 및 원조는 금년 3월에 체결 9주년을 맞이하는 조쏘 경제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과 10억 루블리를 비롯한 국제주의적 원조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바 이는 조 쏘 량국 인민의 전통적인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데 거대한 력사적 역할을 놀았으며 또 놀고 있다.

혁명에 의하여 새로이 창건된 정권과 생산 관계가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보다 급속한 생산력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혁명은 정권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적어도 막대한 곤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레닌은 가르쳤으며 력사는 실지로 보여 주고 있다.

해방 직후 남북이 분리되고 공장, 기업소들이 무수히 파괴되고 우리 자신의 민족 간부들과 기술자, 기능자들이 거의 없는, 경제적으로 심히 곤난하고, 전복된 계급들의 반항은 맹렬하던 조건하에서와 재'더미만 남았던 정전 직후의 조건하에서 만약에 쏘련 인민의 사심 없는 물질적, 기술적 원조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였을 것이며 오늘의 처지가 어떠할 것인가를 상상해 보기는 어렵지 않다. 쏘련의 국제주의적 원조가 있으므로 하여 우리 인민은 전쟁 전후의 경제 문화의 급속한 앙양도,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승리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쏘련 인민의 물질 기술적 분야에서의 고귀한 국제주의적 원조의 의의는 비단 막대한 원조가 아무런 부대 조건도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였다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진정한 자주 독립과 영원한 행복을 위한 자립적 경제 토대를 구축하는 데 리용되도록 제공되였다는 거기에도 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원조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쏘련 인민과 쏘련 정부와 쏘련 공산당은 10억 루블리의 원조금을 배당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골간으로 되며 다른 경제 부문들을 복구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으로 되는 대공장들을 복구하며 이전에 우리 나라에 없던 새 공장들을 신설하는 데 사용》(김 일성)될 것을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이 원조에 의한 복구 건설 또는 신설 대상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골간으로 되는 김책 제철소, 성진 제강소, 남포 제련소, 수풍 발전소, 흥남 비료 공장

(절안 직장), 마동 쎄멘트 공장, 승호리 쎄멘트 공장, 평양 콩크리트 브록크 공장, 사리원 뜨락또르 수리 공장 등 중공업 기업소들과 경공업 부문에서는 평양 방직 공장, 염색 공장, 표백 공장, 평양 견방직 공장을 위시하여 룡성 육류 가공 공장, 신포 어류 통조림 공장, 평양 목재 가구 공장, 길주 합판 공장이며 또 중앙 방송국 등이다.

쏘련이 제공하는 설계, 시설들, 기계 설비들, 건축 자재들로써 쏘련 기술자들의 기술적 지도 방조하에 복구 확장 또는 신설되는 이 공장 기업소들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적 토대 우에서 건설되였으며 또 되고 있는바 쏘련은 새 기술로 장비된 이 기업소들이 조업을 개시한 후에는 우리 일'군들로써 능히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민족 기술 간부들을 양성하는 사업도 또한 보장하여 주고 있다. 쏘련은 물론 이 외에도 우리 자체의 힘으로 복구 건설되는 기업소들에 필요한 자재, 설비들도 제공하여 주었고 또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과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 비료, 종축, 어선 등 생산 수단과 직물, 뻐스 기타 생활 필수품도 제공하여 주었으며 교육, 문화, 보건 시설의 복구 확장을 위해서도 많은 설비들과 인원들을 보내여 우리들을 방조하여 주었다.

쏘련의 국제주의적 원조에 의하여 복구 건설된 중공업 및 경공업 기업소들이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우리 인민의 행복과 장래를 위하여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간단히 본다면 김책 제철소와 성진 제강소는 오늘 선철 및 특수 강재(기계 제작용)생산에서 각각 우리 나라에서 으뜸가는 존재로서 쏘련의 원조에 의하여 전자는 앞으로 흑색 금속 종합 공장으로 발전될 것이 예견되고 있으며 후자는 또한 확장되여 우리 나라 특수 강재 수요의 대부분을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새로이 복구 건설된 남포 제련소 아연 제련 직장은 우리 나라 첫째가는 유색 금속 공장으로서 아연 정광으로부터 전기 아연을 완성품으로 생산하며 각종 희금속 기타 부산물도 얻게 됨으로써 아연품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며 외화를 획득, 절약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장은 최신 설비와 기술로써 장비됨으로써 유색 금속 공업 부문 기술 발전의 기지로 되며 앞으로 5개년 계획 기간에 완성될 유색 금속 종합 공장의 모체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 쏘련의 원조하에 금속 공업 기업소들이 최신의 기술적 토대 우에서 복구 건설되고 또 풍부하고 다종다양한 지하 자원을 가공할 수 있는 공업 부문들이 적지 않게 창설됨으로써 원료 반 제품으로서 사용되거나 수출되던 많은 귀중한 지하 자원들을 가공된 완제품으로 생산 사용하며 수출할 수 있게 되고 있는바 이것은 바로 우리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당 정책의 실현을 방조하여 우리 나라 경제가 우리 인민을 위하여 보다 잘 복무하는 경제로 되게끔 하는 쏘련의 원조의 본질을 명시하고 있다.

쏘련의 원조에 의하여 완전히 복구된 수풍 발전소가 우리 나라 동력 공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고 멀지 않아 조업을 개시하게 될 마동 쎄멘트 공장은 우리 나라 쎄멘트 총생산 능력의 근 30%를 차지하는 최대의 쎄멘트 공장으로 될 것이다. 흥남 비료 공장과 완전히 새로 건설된 평양 콩크리트 브록크 공장이 각각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과 건설 공업 발전을 위하여 가지는 의의는 거대한 바 후자는 작년에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부재 총량에 해당하는 브록크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직접으로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 분야에서 평양 방직 공장은 면직물만 하여도 현재 우리 나라 직물 생산의 약 80%를 담당하여 의식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룡성 육류가공 공장, 신포 어류 통조림 공장도 인민 생활 향상과 외화 획득을 위하여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쏘련의 10억 루블리의 원조는 우리 당의 철

후 복구 건설의 총로선에 부합되고 그의 실천을 용이하게 하며 가능하게 보장하는 방향에서 제공되고 리용되였다. 전후 시기의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 나라 인민들의 원조가 있으므로 하여 능히 실천될 수 있었다.

쏘련 인민의 막대한 물질적, 기술적 원조는 사회주의 경제 문화 건설의 속도와 성과를 현저히 제고시켰으며 우리 인민이 우리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는 것을 백방으로 지지 원조하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은 이와 같은 형제적 인민들의 지지 원조와 결부됨으로써 전후 3개년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몹시 령락되였던 우리들의 생활을 오늘날과 같이 급속히 향상시키고 자립적 경제의 토대를 기본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더욱 확고히 하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과업으로 하는 방대한 제1차 5개년 계획을 능히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놓았다. 이러한 성과는 민주 기지를 현저히 공고화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는 기본 요인으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특별히 곤난한 형편에 처했을 때 10억 루블리의 원조는 우리 나라 민족 경제의 자립성을 급속히 회복하는 데 큰 도움으로 되였다. 오늘 조 쏘 량국간의 경제 문화 협조는 《경제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규정되면서 평등, 호상 협조, 호상 원조의 원칙들에 따라 점점 더 긴밀의 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평양에서 진행된 조쏘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4차 회의에 관한 콤뮤니케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쏘련의 선진적 과학 기술로부터 많은 협조, 방조를 받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로서 기술 또는 경험의 분야에서 쏘련에 응분의 협조 방조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하게 쏘련을 위시한 형제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조국과 우리 혁명을 위하여서도 충실하였다. 그와 동시에 우리 당과 인민은 우리 조국과 우리 혁명에 충실히 복무함으로써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는 흉악한 적 미제를 타승하고 그들의 재 대전 도발 기도를 분쇄하였으며 그리하여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안전을 보위하며 세계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전후 복구 건설,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우리 당과 인민은 새로운 빛나는 성과들을 달성함으로써 아세아와 세계에서의 평화 및 사회주의 력량의 강화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나라 인민들의 고상한 국제주의적 협조, 원조는 우리 인민의 국제주의 의식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위력한 실물 교육으로 되였다. 동시에 형제적 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과 그 결과로서의 우리의 모든 성과들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신심을 북돋아 주는 데도 커다란 역할을 놀았으며 또 놀고 있다. 여기서도 국제주의는 애국주의에 통하고 있으며 그와 결부되고 있다.

우리 당의 령도하에 조선 인민은 쏘련 인민과의 친선 단결을 통하여 쏘련의 풍부한 선진 경험과 과학 기술 및 예술에서 배우며 쏘련의 경험에서 확정된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충실함으로써 우리의 사업에서 오유를 피하며 성과를 확대 촉진하고 있다. 쏘련을 향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 인민의 커다란 행복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당 및 국가 건설, 경제, 문화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정치 일'군들, 로동자, 농민들,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일'군들은 거대한 열성을 가지고 쏘련을 향하여 배웠으며 또 배우고 있다. 오늘 조쏘 친선 협회 대렬에는 로동자, 농민, 인테리, 청년 학생 등 400만 명의 남녀들이 망라되여 있으며 전국 각지의 공장, 광산, 철도 기타 기관들과 도시, 농촌, 어촌의 학교, 사무 직장들에는 1만 여 개의 협회 초급 단체들이 사업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이 열렬하게 우리 조국을 사랑하듯이 쏘련을 사랑하고 있으며 쏘련을 향하여 배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쏘련의 경험들과 선진적 과학, 기술, 문화의 성과들에서 배우고 그것들을 도입 적용함에 있어서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의 현명한 지도하에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성을 고수하고 우리 나라의 특수성에 창조적으로 대할 데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쏘련을 비롯한 형제 나라 당과 인민들의 경험, 그것의 일반화로서의 맑스—레닌주의 원칙들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충실성을 우리 혁명의 주체성, 우리 민족의 자주성, 특수성과 조화적,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있다.

우리 당은 레닌적 당 건설 원칙들과 볼쉐비크적 당 생활 규범에 충실하고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본질을 변경함이 없이 우리 나라에 조성된 특수한 환경에서 자체를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시켰으며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농업의 집단화에 관한 일반 원칙들과 쏘련에서의 경험들에서 부단히 배우면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들에 적응하게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 로선을 취할 수 있었으며 농업의 협동화에서 형태, 속도, 부농적 요소 처리 방법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류례드문 성과를 쟁취할 수 있었으며 또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와 조국의 통일 독립의 민족적 과업과 사회주의 혁명의 과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데 있어서도 훌륭한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진정으로 평등과 호상 협조, 호상 리익의 원칙에 기초한 우리 나라와 쏘련과의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에 비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관계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리 승만 괴뢰 정권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 략탈 및 전쟁 준비 정책의 완전한 도구로 되여 있는만큼 미제의 소위 《원조》는 식민지적 략탈과 예속화를 음폐하며 리 승만 도당의 매국 행위를 가리워 주는 병풍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 《원조》의 본질은 바로 그 결과 자체가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10여 년에 걸친 미제의 《원조》의 결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채무 노예로 전락되였으며 민족 산업과 농촌 경리는 총파탄 상태에 빠져 실업자 및 반 실업자는 360만을 산하며 춘궁기는 고사하고 추수가 방금 끝난 12월에 이미 절량 농가가 70만 호에 달한다고 한다. 미제는 1957년부터 《원조》 정책을 차관과 사자본 투하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원조》의 가면조차도 벗어 던지고 략탈과 예속화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르죠아 기자들까지도 남조선을 《죽음의 땅》이라고 불렀다. 꽃피는 생활의 락원으로 전변되고 있는 조국의 북반부와 남반부와의 대비는 쏘련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간의 새형의 국제주의적 관계와 미국에 대한 남조선의 예속 관계의 근본적 차이를 론의할 여지 없이 증명해 준다.

《영원히 쏘련과 함께》——이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며 의지이다. 《적들과 우경 기회주의자들의 발악이 로골화되면 될수록 우리 당은 더욱 쏘련을 지지 옹호하여 나섰으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로동 운동의 공인된 중심인 쏘련을 선두로 단결하여야 한다는 자기의 원칙적인 태도와 굳은 결의를 표명하여 나섰다》 (김 일성, 12월 확대 전원 회의 보고). 쏘련 인민과 조선 인민과의 전통적인 친선 단결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쏘련 인민과의 친선 단결을 더욱더 강화하며 그것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과 보다 긴밀히 결합시키는 것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는 위력한 추진력으로 될 것이며 세계 평화와 사회주의 력량의 강화를 위한 기여로 될 것이다. 《조선 인민은 앞으로도 쏘련 인민을 지지하고 그를 향하여 배우며 영원히 그와 함께 나아갈것이다》. (김 일성, 동상) 이것은 우리의 국제주의적 의무인 동시에 애국주의적 의무로도 된다.

쏘베트 군대 창건 40 주년에 제하여

리 권 무

전체 조선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조선 인민의 해방자이며, 사회주의 진영의 중심인 위대한 쏘련의 불패의 수호자이며 세계 평화의 믿음직한 성새인 쏘베트 군대 창건 40주년을 의의 깊게 맞이하면서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와 전체 쏘베트 인민과 그의 충실한 아들딸들인 쏘베트 군대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보내고 있다.

쏘베트 군대의 40 년간의 력사는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인 세계의 첫 사회주의 국가,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의 믿음직한 보위와 세계 평화의 견결한 수호로써 일관되여 있다.

일찌기 레닌은 그가 서술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군사 강령》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최초에는 사회주의가 한 나라 또는 몇 개의 나라들에서 승리할 것이며 기타 나라들은 얼마 동안 부르죠아 국가 또는 부르죠아 이전 국가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알륵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의 승리적 프로레타리아트를 격멸하려는 기타 국가 부르죠아지의 공공연한 야망을 야기시킨다》 (전집 23권 67 페지).

레닌이 예언한바 그대로 로씨야 로동 계급에 의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승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증오를 야기시켰는바 그들은 인류 력사에 새 기원을 열어 놓은 위대한 10월 혁명의 전취물을 말살하기 위하여 청소한 쏘베트 국가에 대한 공공연한 무력 침공을 개시하였다.

미리 작성된 충분한 계획 밑에 진행된 14개 제국주의 국가들의 무장 간섭과 국내 반혁명의 진공을 격파 분쇄하는 쏘베트 인민들의 정의의 국내 전쟁은 비상히 곤난한 조건하에서 진행되였다.

그러나 청소한 쏘베트 국가는 모든 곤난과 궁핍을 이겨내고 대승리를 쟁취하였으며 10월의 위대한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쏘베트 군대는 바로 이 어려운 전쟁의 불'길속에서 공산당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간고한 전투적 시련을 뚫고 불패의 혁명 대오로 장성 강화되였다.

국내 전쟁에서의 쏘베트군대의 영웅적인 투쟁은 공산당과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충실한 복무와 불요불굴의 완강성과 인내성, 곤난 극복에서의 견결성의 훌륭한 모범으로 되였다.

국내 전쟁의 승리적 종결은 사회주의 건설과 쏘베트 국가의 방위력 강화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쏘베트 인민에게 조성하여 주었는바 공산당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의 복구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쏘베트 인민들을 궐기시켰다. 쏘베트 인민들은 국가의 공업화와 농업의 집단화에 대한 레닌적 계획을 정력적으로 실천하였으며 수차에 걸친 5개년 계획들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조국—쏘련의 위력은 급속히 장성 강화되였다.

평화적 건설 시기에 쏘베트 군대는 쏘련 인민의 사회주의적 전취물과 쏘베트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였다.

쏘베트 군대는 하싼호와 할힌—골강 류역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무장 공격을 성과적으로 격퇴하였으며 서부 백로씨야와 서부 우크라이나를 해방하였으며 백파 분란 군대를

격파함으로써 쏘베트 국경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쏘베트 군대의 공훈들 가운데서 영원히 특기할 것은 1941—1945년의 위대한 조국 전쟁에서의 그의 빛나는 승리이다.

쏘련에 대한 배신적인 침공을 감행한 독일 강도배들은 전쟁 초기에 얻을 수 있었던 림시적 우세를 리용하여 《전격전》의 방법으로 전체 쏘베트 령토를 강점하려고 타산하였으며 쏘련의 종심 깊이 침입하였다.

쏘련 공산당은 교활하고 잔인한 원쑤들의 침공을 받았으나 당황하지 않았으며 실망하지 않았다.

당은 침착하게 인민 대중을 전쟁 승리에로 조직 동원하였으며 전쟁 행정을 쏘련 인민에게 유리하게 급속히 전변시키기 위한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의 이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으며 찬란한 승리를 보장하였다.

공산당에 의하여 령도되는 쏘베트 군대는 모쓰크바 부근에서 대승리를 쟁취한 뒤를 이어 쓰딸린그라드 격전, 1944년에 진행한 일련의 대작전들에서 혁혁한 승리를 거두고 쏘련 령토로부터 독일 침략군을 완전히 소탕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쑈 기반하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의 해방자로서 구라파의 일련의 나라들에 진주하였다.

그리하여 쏘베트 군대는 1945년 5월에 백림에 있던 독일군의 마지막 집단을 완전히 격멸하고 제2차 세계 대전의 첫 발원지였던 파씨스트 독일을 격멸하였다.

히틀러 독일이 격멸된 후 구라파에서는 전쟁이 종결되였으나 아세아에서는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쏘련은 세계 대전의 제2의 발원지인 군국주의 일본이 남아 있는 한 자기의 안전을 믿음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었으며 세계의 전반적 평화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쏘베트 군대를 대일 전쟁에로 진입시켰다.

쏘련의 이 조치는 쏘 독 전쟁 당시에 미, 영 제국주의자들이 구라파에서 제2 전선을 제때에 전개하지 않은 것에 비할 때 동맹국 간에 맺어진 의무의 수행에서 훌륭한 모범으로 되였다.

쏘베트 군대의 대일 전쟁 참가는 아세아의 정세를 근본적으로 전변시켰는바 근 4 년간이나 일본과 교전하면서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던 미 영 제국주의 군대의 무능력을 전 세계에 폭로하였다. 쏘베트 군대는 대일 전쟁에 참가하자 단시일 내에 일본군의 주력을 격파하였으며 일본 군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무조건 항복케 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 대전은 끝났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의 쏘베트 군대의 력사적 승리는 그가 백전 백승의 군대라는 것과 맑스—레닌주의에 확고히 토대하고 있는 쏘베트 군사 과학은 부르죠아 군사 과학에 비하여 결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전쟁 행정에서 발휘된 쏘베트 군인들의 고도의 쏘베트 애국주의와 대중적 영웅주의는 그들이 공산당과 쏘베트 조국에 무한히 충실하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쏘베트 군대의 승리는 또한 그가 진정으로 제 인민간의 친선의 군대이며 해방의 군대이며 정의의 군대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하였다. 쏘베트 군대는 자기의 헌신적인 투쟁으로써 비단 10월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과 쏘베트 조국의 영예와 독립을 수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명을 구원하였다.

쏘베트 군대의 불후의 공적은 그가 자기의 해방자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라파와 아세아의 수 많은 인민들을 파쑈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의 기반 밑에서 해방하였으며 그들에게 자유로운 삶의 길을 열어 준 데 있다. 이는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구라파와 아세아의 일련의 나라들이 전후에 자유로운 인민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도록 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로 되였으며 세계적 사회주의 체계의 형성에 있어서 막대한 공헌으로 되였다.

전후 쏘베트 군대는 높은 경각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음모를 경계하면서 쏘련 인민의 공산주의 건설을 철벽같이 보위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있다.

쏘베트 군대가 쏘련 인민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앞에 기여한 공적은 실로 위대하며 불멸의 것이다.

*　　　*

쏘베트 군대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은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쏘련 공산당이 바로 그의 창건자이며 령도자이며 교육 교양자라는 거기에 있다.

공산당의 위대한 수령인 레닌은 군사 문제를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근본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해결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낡은 군대를 분쇄하며 그것을 해체하고 새로운 군대로 교체하는 것은 온갖 혁명의 승리를 위한 첫째의 계률(戒律)이라고 맑스와 엥겔스는 루차 강조하였다.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는 새로운 사회적 계급은 낡은 군대를 완전히 해체함이 없이는, …곤난한 국내 전쟁 가운데서 새로운 계급의 새로운 군대와 새로운 기률과 새로운 군사 조직체를 창건함이 없이는 그 어느 때도 결코 이 지배권을 장악하고 공고화할 수 없었으며 또 현재도 그러하다》(전집 28권 262 폐지).

레닌의 교시에 엄격히 립각하여 공산당은 낡은 짜리 군대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의 군대인 쏘베트 군대를 창건하였는바 이에 있어서 1917년에 조직된 로동자 적위군 부대들을 새 군대의 맹아 형태로 보았으며 그를 새 군대의 골간으로 하였다.

공산당에 의하여 창건된 쏘베트 군대의 첫째 특징은 그가 해방된 로동자, 농민의 군대이며 승리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군대라는 점이며, 둘째 특징은 그가 쏘베트 국가 인민들 간의 불패의 친선의 군대이며 그들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군대라는 점이며, 세째 특징은 그가 국제주의 정신으로, 다른 나라 인민들의 주권을 존중하는 정신으로 교양된 군대라는 점이다.

공산당은 쏘베트 군대를 전쟁과 군대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로 무장시켰으며 선진적인 쏘베트 군사 과학에 기초하여 쏘베트 군대의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공산당은 쏘베트 군대의 후방을 세계의 어떠한 군대의 후방보다도 공고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보장하였다. 공산당이 실시한 옳바른 경제 발전 로선과 민족 정책은 오늘날 쏘련의 경제적 위력을 세계 최강의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며 쏘베트 국가 제 민족들의 불패의 통일 단결을 보장하였다.

1957년 현재 쏘련의 공업 생산량은 혁명 전인 1913년에 비하여 33 배로 장성하였다. 농촌 경리도 이 기간에 급속히 발전하였다. 쏘련은 오늘날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을 훨씬 앞섰는바 쏘련은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서의 거대한 성과와 대륙간 탄도 로케트의 완성 및 인공 지구 위성의 발사로써 세계 과학 발전사에 새 시대를 열어 놓았다. 쏘련의 위대한 성과들은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사회주의 제도의 결정적 우월성을 증시하고 있다.

쏘련은 사회주의 건설에서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가장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나라로서 또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군사의 모든 분야에 결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첫 사회주의 국가로서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당당한 중심으로 되여 있으며 이 진영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고 있다.

쏘련이 중심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 진영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 세계 령토의 4분의 1이 포괄되고 있다.

쏘련은 또한 그가 실시하고 있는 시종 일관한 평화 정책으로써 세계 대다수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쏘련은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평화적 공존과 새 전쟁의 방지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 전반적 군비 축소, 원자 및 수소 무기의 금지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쏘련은 강경하고 결정적인 태도로써 평화를 수호하며 전쟁을 방지하고 있다. 애급에 대한 영, 불, 이스라엘의 침략과 관련하여 쏘련이 취한 결정적인 조치, 씨리아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음모를 파탄시킨 쏘련의 강경한 태도 등은 바로 그의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쏘련은 또한 자기의 군비 축소의 모범으로써 세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쏘련 정부가 1956년에 이미 184만 명의 병력을 축소한 외에 금번 또 다시 30만 명의 병력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된다.

현 시기에 있어서 쏘련을 중심으로 한 세계 평화 진영의 위력은 제국주의 전쟁 상인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평화를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전력을 다하여 국제 정세를 첨예화시키며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광분하고 있으며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경 가까이에 원자 무기로 장비된 미국 군대를 주둔시키며 군사 기지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쏘련 공산당은 부득불 쏘련의 안전에 대하여 심중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공산당은 강력한 쏘베트 공업과 과학에 의거하면서 쏘베트 군대를 일등급의 최신식 장비로 무장시켰으며 또 시키고 있다:

현재 쏘베트 륙군은 완전히 모터화되였으며 보다 완성된 무기를 소유하게 되였다. 고성능의 전차와 자동포들이 보병 련합 부대들에 편입되였으며 포병 부대들의 발전도 현저하다.

쏘베트 해군은 현대적인 수상 함선들과 잠수함, 분사식 비행기들로 장비된 해상 비행대, 강력한 해안포 부대 등등을 가지고 있다. 쏘련의 무력 중에서 공군의 비중이 더욱 제고되였다. 새로운 무선 항법 수단과 전파 탐지기가 장치된 분사식 비행기들이 초음속으로써 원거리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였으며 성층권내에서와 어떠한 기상 조건을 불문하고 성과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 되였다. 비행 및 화력 지휘를 자동화하는 면에서도 거대한 발전을 가져 왔다. 쏘베트 군대의 반항공 부대들은 초음속 추격기, 고성능 고사포, 고사 로케트 무기 및 기타 발전된 반항공 기재들로 장비되고 있다.

쏘베트 군대는 각종의 원자 및 수소 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는 대륙간 탄도 로케트를 소유하고 있다.

쏘련에서의 대륙간 탄도 로케트의 출현은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략적 견해와 계획의 근본적인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위한 미국의 군사 기지들에 의거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 본토에는 전쟁의 피해가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미국 전략가들의 견해는 근본적으로 뒤집혀졌다.

오늘날 쏘련의 무력은 침략자가 세계의 어느 곳에 숨어 있든지 간에 그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는 현 시기에 있어서의 전쟁 방지의 가능성을 선포하였으며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기념 경축 회의를 계기로 모쓰크바에서 열렸던 각국 공산당,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들은 더 한층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를 재확인하였다.

오늘날 전쟁 방지의 확고한 가능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쏘베트 군대의 위력, 제국주의 침략 계층들의 군사력에 비한 그의 결정적인 우월성에 기초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은 쏘베트 군대의 위력을 증대시키며 보장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당적 지도에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이를 강화하는 데 시종 일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쏘베트 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의 원칙은 《군사 기관의 정책은 다른 모든 기관 및 조직체들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당이 그 중앙 위원회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직접적인 통제 밑에 제시하는 일반적 지시에 정확히 근거하여 실시된다》는 레닌의 교시로부터 출발한다.

군대에 대한 당의 지도는 쏘베트 군대의 사상 의지 행동상 통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들을 쏘련 공산당의 주위에 굳게 집결시키고 있다.

쏘련 공산당은 군대 내부에서의 당적 지도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작년 10월 말에 진행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가 《쏘련 륙군 및 해군 내의 당 및 정치 사업을 개선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쏘베트 군대 내부에서의 당적 지도에서 나타났던 일부 편향들을 시정한 사실은 그에 대한 단적 실례로 된다.

공산당은 쏘베트 군대 내에서 당 정치 사업을 백방으로 개선 강화하면서 지휘관의 유일 관리제를 더욱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지휘관의 유일 관리제는 쏘베트 군대 건설에 관한 공산당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공산당이 쏘베트 군대 내에서 진행하는 군인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정치 사상 교양은 쏘베트 군대의 도덕, 정신 상태를 부르죠아 국가 군대들보다 결정적으로 우월하게 하고 있으며 쏘베트 군대의 전투 준비와 전투 정치 훈련의 모든 성과의 중요한 담보로 되고 있다. 쏘베트 군인들은 쏘베트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강철같은 기률성과 조직성 및 고상한 전투 도덕적 품성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있다.

쏘베트 군대는 현대 전쟁을 능숙히 지휘할 수 있는 풍부한 군사 간부들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우월한 쏘베트 군사 과학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있다.

오늘 쏘베트 군대는 강철같은 자각적 기률을 가진 혁명적 무력으로서 자체의 위력을 부단히 강화하고 있다.

쏘베트 군대는 이와 같은 무비의 위력으로써 비단 쏘베트 국가의 안전과 쏘련 인민의 평화적 공산주의 건설을 철옹성같이 보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피압박 인민들에 대한 자기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를 충실히 집행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의 믿음직한 성새로 되고 있다.

쏘베트 군대는 오늘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가 그에게 부과한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공산주의 건설에서 혁혁한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는 쏘련 인민의 평화적 로력과 그의 고귀한 성과들을 튼튼히 수호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의 령도를 받는 쏘베트 군대는 제 인민간의 친선의 군대로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무한히 충실하다.

쏘베트 군대는 타국을 침략한 일이 없으며 타국의 주권을 지극히 존중하고 있다. 쏘베트 군대가 제 인민간의 친선의 군대이며 그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무한히 충실하다는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구라파와 아세아의 피압박 약소 국가 인민들을 해방한 그의 위대한 공적에서 명백히 표시되였다. 오늘 쏘베트 군대는 와르샤와 조약에 참가한 기타 나라 군대들과 함께 와르샤와 조약에 의하여 부과된 국제주의적 의무를 훌륭히 실천하고 있다. 특히 웽그리야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 음모를 진압하고 웽그리야 인민들을 원조함에 있어서 쏘베트 군대는 자기의 의무를 응당하게 수행하였다.

쏘베트 군대와 사회주의 제 국가 군대들 간에 맺어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은 불패이다.

쏘베트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이며 세계 평화의 강력한 성새이다. 오늘날 그를 당할만한 군대는 이 세상에 없다. 이러한 사정은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아무데서나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되고 있다.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끝끝내 평화를 유린하고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들은 종국적인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각국 공산당, 로동당 대표들의 모쓰크바 회의 선언들은 세계에서의 평화의 유지 공고화를 현 시기에 있어서의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전체 진보적 인류 앞에 나서 있는 제1차적 과업이라고 규정하였다. 실로 오늘 쏘련 인민을 비롯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 인민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자기 민족의 완전 독립을 위하여, 자기 인민들의 보다 훌륭한 생활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수억만 인민들,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에게 있어서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문제는 가장 절실한 관심사로 되고 있다. 또 이 문제는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존망과 관련되는 문제로 된다.

오늘 전체 인류와 그의 문명을 위하여 평화 위업이 가지는 의의가 절대(絕大)한만큼 세계 평화의 성새로 되는 쏘련의 무력 앞에 놓여 있는 임무도 또한 그만큼 거대하다.

군사 기술적으로나 전투—도덕적 품성에 있어서나 그의 후방의 공고성에 있어서나 무비의 위력을 자랑하는 쏘베트 무력은 자기에게 부과된 세계 평화 유지의 정의의 위업도 영예롭게 고수할 것이다.

* *

위대한 쏘베트 군대는 조선 인민의 은혜로운 해방자이며 진정한 원조자이다.

일제 통치의 암담하던 시기에 우리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지도하에 장구한 영웅적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한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진정한 애국자들은 위대한 쏘련의 위력의 장성에서 무한한 고무적 힘을 얻었으며 거기에서 조선 해방의 서광을 보았었다.

위대한 쏘베트 군대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격멸하고 조선 인민을 일제 식민지 통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쏘베트 군대에 의한 8.15 조선 해방은 우리 나라 력사에 새 기원을 열어 놓았으며 우리 인민의 정치 사회 생활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 오게 하였다.

해방 후 쏘베트 군대는 조선 인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을 지어 주었다.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원쑤들의 강요에 의한 3년간의 전쟁의 혹심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회주의적 경제, 문화가 륭성 발전하는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해방 후 남조선에 상륙한 미제 침략 군대는 오직 남조선을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데 복무하고 있으며 남반부 인민들에게 매일 매시각마다 참을 수 없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일제를 릉가하는 가혹한 식민지적 파쑈 테로 통치, 민족 경제의 여지 없는 파탄과 미국에의 예속, 인민들의 무권리와 극도의 빈궁——이런 것들이 바로 미 제국주의 군대 강점하의 남조선 현실이다.

남조선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모든 화근은 바로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에 있다.

오늘 조선 인민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의 추악한 야수적 만행을 견결히 규탄하면서 놈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적개심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조선 인민의 해방자이며 진정한 원조자이며 친근한 벗인 쏘베트 군대의 은공에 대한 감사의 정을 더욱 금치 못하고 있다.

만일 쏘베트 군대가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면서 일제를 격멸하고 조선 인민을 해방하여 주지 않았더라면, 또 조선 인민에게 성심성의의 원조를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민은 식민지 사회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며 오늘과 같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조선 인민은 우리 나라를 해방하고 원조하여 준 쏘베트 군대의 은공을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이룩한 불멸의 위훈을 자자손손 내려 가면서 전설마냥 기리 전하게 될 것이다.

쏘베트 군대는, 오늘 우리 조국의 방선을 철벽같이 보위하면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있는 조선 인민군의 산 모범이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하여 파쑈적 탄압을 가하던 시기인 1930년대 초부터 15여 성상에 걸쳐 영웅적인 반일 무장 투쟁을 전개한 김 일성 동지의 항일 빨찌산 대원들은 10월의 산아인 쏘베트 군대의 경험들을 섭취 리용하여 자기들의 무장 대오를 강화하였으며 조선 인민군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고상한 혁명적 애국적 전통을 수립하였다.

우리 당은 조선 인민군을 건설함에 있어서 쏘베트 군사 과학의 제 원칙과 쏘베트 군대

건설의 경험들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쏘베트 군사 과학 및 쏘베트 군대 건설의 원칙과 경험들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조선 인민군의 승리의 중요한 조건으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의 군대가 창조적으로 적용한 쏘베트 군사 예술은 조국 해방 전쟁의 전 행정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를 가져 왔다》라고 지적하시였다.

오늘 조선 인민군 장병들은 현대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에 부합되게 부단히 발전하고 있는 쏘베트 군사 과학의 새로운 요구들을 성실히 연구하고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자기의 전투 기능을 부단히 발전시키고 있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조선 인민군의 력사적 승리는 또한 전쟁의 결말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중의 정신 상태가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는 레닌의 명제의 정당성을 웅변으로 실증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인민 군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사상 교양 사업은 인민 군대의 도덕 정신 상태를 적들보다 비할바 없이 우월하게 하고 있으며 인민군 부대들의 전투 활동의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전쟁의 정의적 목적과 조국 보위의 군사적 의무를 자각하고 있는 조선 인민군 장병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사회주의 조국 수호에서 발휘한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불멸의 위훈에 고무되면서 무쌍한 용감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 훈련된 조선 인민군 장병들은 인민들의 혁명적 전취물과 그들의 생명 재산의 보위에 무한히 충실하다. 인민 군대와 인민과의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굳은 혈연적 련계가 맺어져 있는바 이는 인민 군대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의 하나이다.

오늘 조선 로동당은 인민군 장병들에게 조국의 방선을 철벽같이 수호하며 인민군 전부를 간부 군대로 육성할 과업을 제시하고 인민 군대의 교육 교양과 그의 전투 준비 및 전투력 강화에 대하여 부단한 배려를 돌리고 있다.

인민군 전체 장병들은 우리 당의 주위에 굳게 단결되고 있으며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발휘하면서 당의 군사 정책과 그에 기초한 인민 군대의 과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실로 우리 당의 령도는 조선 인민 군대의 모든 승리와 그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된 인민군 전체 장병들은 오늘 쏘베트 군대와의 형제적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 관계를 백방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조선 인민군 장병들은 영원히 쏘베트 군대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와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 관계를 눈'동자와 같이 고수할 것이며 국제 로동 운동과 사회주의 진영의 공인된 중심인 위대한 쏘련을 적극 지지 옹호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자기 조국의 방선을 철벽같이 수호하며 인민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견결히 수호할 것이며, 위대한 쏘베트 군대를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 군대들과 함께 사회주의 진영의 보위와 세계 평화의 수호에 더욱 충실할 것이다.

당의 군중 로선의 관철과 일'군들의 군중 관점

원 형 국

군중 로선의 계급적 본질

어떤 정당이든지 그는 일정한 계급과 사회 계층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치적 조직이니만큼 반드시 대중에 대한 이러저러한 견해와 태도를 수립하며 그와의 자기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로동 계급을 위시한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대표하는 혁명적 당과 그 당원들은 근로 대중에 대한 혁명적인 사상 관점으로써 인민 대중을 대하며 군중 로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군중과의 관계를 수립한다.

당의 군중 로선은 당이 자기의 정치 로선이나 조직 로선을 수립하는 기본 출발점으로 되며 이 군중 로선은 바로 혁명적인 군중 관점에 기초하여 수립된다. 군중 로선(즉 당과 대중과의 관계의 총체적 표현인)을 당의 기본 정치 로선이며 기본 조직 로선이라고 부르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혁명적 군중 관점과 당의 군중 로선의 사상 리론적 기초는 력사적 유물론의 제 원칙이다. 맑스—레닌주의는 물질적 부의 생산자인 근로 대중이 인류 사회 발전의 결정적 력량이며 력사의 진정한 창조자라는 것을 선포하였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한 세계 최초의 그러고 유일한 혁명적 학설이다. 인민 대중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혁명적 군중 관점의 시금석으로 된다.

근로 대중은 자기들의 사회적 해방과 물질 문화적 복리 증진을 위한 투쟁에서 어느 누구의 《신세》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들에게는——오직 그들에게만이——자신의 단결된 력량과 재능에 의하여 그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는 무제한한 위력이 있으며 이 대중적 력량을 초월하여 그들에게 그 어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힘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급 투쟁의 력사적 경험은 이 투쟁의 선두에 근로 대중 가운데서 가장 선진적인 로동 계급이 서야 하며 특히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을 혁명 승리에로 조직 령도할 수 있는 혁명적 당이 있는 경우에라야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혁명적 당은 근로 대중과 분리할 수 없는 그의 가장 선진적인 한 부문인바 그는 자기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 대중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그들의 리익에 복무하며 사회 발전의 법칙과 계급 투쟁 및 혁명의 법칙에 관한 지식으로 자체를 무장하여 그것을 근로 대중의 리익에 부합되게 리용하면서 근로 대중에 대한 정치적 령도를 보장하는 그러한 혁명적 전위대이며 집단적 수령이다. 이 전위대는 자기의 일체 활동에서 항상 인민 대중과의 긴밀한 혈연적 련계를 보존하지 않고서는 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할 수 없으며 대중에 대한 령도를 보장할 수도 없다. 그는 대중의 각성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앞서거나 대중보다 뒤떨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당의 대중과의 련계는 그가 자기의 정치 로

군중 관점 확립과 당의 군중 로선 관철을 방해하는가?

군중 로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는 주로 무엇을 반대하여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상이한 두 개의 측면 즉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 관철을 반대하는 적대 분자들과의 투쟁과 당내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의식의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념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군중 로선은 곧 계급적 로선이기 때문에 계급적 적대 분자—반혁명 분자들의 온갖 파괴 암해 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않고서는 그 로선을 실현할 수 없다. 반혁명 분자란 것은 인민의 반역자이며 혁명의 극악한 원쑤이다. 그들은 인민의 정치적 각성이 제고되며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단결된 인민의 통일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추악하고 악랄한 책동들을 집요하게 감행하고 있다.

적들은 우리 당의 제반 인민적 시책들을 비방하며 당과 정부의 위신을 대중 속에 훼손시키려고 각종 요언들을 날조 류포하며 우리 당의 지도하에 우리 인민이 달성한 성과와 그 전취물들을 침해하려고 끊임 없이 광분하고 있다.

이 모든 반혁명적인 적대 행위의 조종자는 바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혁명 분자들의 준동을 경각성 있게 감시하며 그들의 온갖 적대 행위를 매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의 정책들을 철저히 관철시키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계속 강화하는 데 커다란 손실을 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군중 로선 관철을 위한 투쟁은 바로 계급 투쟁의 중요 측면이며 근로자들의 혁명적 리익을 적대 분자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중앙 위원회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은 전 당적 전 인민적 정치 투쟁으로 계속 강화되여야 한다.

이 투쟁의 예봉은 응당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증오 반대하는 데로 돌려야 하며 그와 결탁하려는 적대 분자들의 온갖 시도를 폭로 파탄시키며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이 은거할 곳이 없도록 대중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 투쟁에 대한 지도가 군중 로선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야 한다.

이 투쟁은 인민의 절실한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며 그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전개되는 것만큼 인민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실천적 경험이 또한 이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만일 인민의 지지가 없이는 다른 모든 혁명 사업이 그러한 바와 같이 이 투쟁도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반혁명 분자들은 모두가 다 군중 속에 은신하여 있으면서 군중의 경각성이 해이된 름을 타서 파괴 암해 활동을 감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중의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하며 그들로 하여금 반혁명 분자를 분간해 내는 식견을 높이게 함으로써 《어두운 구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군중의 리익과 요구를 옳게 반영하였고 군중의 력량과 지혜에 튼튼히 의거하는 것이 바로 군중 로선이다.

군중 로선에 립각하지 않고서는 깊이 숨어 있는 반혁명 분자들을 적발 폭로할 수 없으며 반혁명 분자들의 파괴적 시도를 제때에 폭로 분쇄함이 없이는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킬 수 없다.

*　　*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당내에 침식하는 낡은 사상 영향을 극복하며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당 단체들이 계속 주목하여야 할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반당 종파 분자들에 의하여 부식된 일련의 해독적인 사상 경향들을 극복 청산하는 것이다.

인민을 옳게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 단체의 대렬이 유일한 로선, 유일한 규률, 유일한 지도부에 의하여 강철같이 통일 단결되여야 한다. 그런데 만일 종파 사상 잔재를 철저히 극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그마한 기회라도 있기만 하면 그것을 놓칠세라 다시 바스럭거리기 시작하여 당의 단결을 방해하며 지어는 파괴하려고 덤벼든다.

종파 행위는 그것이 누가 어느 때 어떤 형태로 감행하든지를 막론하고 무조건 반당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면 맑스—레닌주의를 반대하는 수정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반혁명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와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심각하게 폭로 비판된 바와 같이 최 창익 도당은 소위 《국제 사조》를 운운하면서 바로 수정주의의 진흙탕에 깊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반혁명적인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러므로 현시에 있어서 당 단체들 앞에 나서고 있는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당내에서 종파주의적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면서 특히는 최 창익 도당에 의하여 류포 부식된 일련의 해독적인 사상 경향을 철저히 폭로 청산하는 데 있다.

그들이 류포한 일련의 반당적인 사상이 당의 군중 로선의 관철을 방해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특히 중요하다. 례를 들면 이자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며 반혁명과의 투쟁을 거부하는 우경 투항주의를 설교하였으며 일부 분자들은 사상 령역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 사업에서도 적지 않은 손실을 초래케 하였다. 이들은 계급적 원칙이 없는 소위 《인권 옹호》니 《준법성》이니 하는 구실로써 반혁명에 대해서까지 《관용》을 표시하였으며 본질에 있어서 부르죠아 자유주의적 사상 표현인 《무제한한 민주주의》, 《무제한한 자유》를 운운하면서 무정부적 상태를 조성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들은 리 승만 매국 도당 및 기타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인민들의 적개심을 약화시키며 그와의 투쟁을 의식적으로 방해하였으며 자기들이 《사업》하던 기관이나 지방에서 당에 충실한 핵심을 박해하고 아첨 분자, 불순 분자들에게 주로 의거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그들이 운운한 《인권 옹호》나 《민주주의》 및 《자유》가 바로 반혁명 분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책동이였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또한 반당 종파 분자들은 혁명 승리를 위한 투쟁,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 당의 지도적 역할을 부인하였는바 서 휘와 같은 자는 직업 동맹의 소위 《자치 영위》를 설교하면서 그에 대한 당의 지도를 거부하는 해독적인 사상 경향을 류포시켰으며 당 단체와 직맹 단체, 직맹 단체와 행정 조직을 대립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이자들은 또한 국가 정권 기관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혁명의 강력한 무기라는 맑스—레닌주의의 주지된 명제를 부인하고 일부 견실치 못한 정권 기관 일'군들에게 《당신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라는 사상을 주입시켜 당 정책과 당적 지도에 대한 반당적 태도를 고취시키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혁명 정권의 필수적 형태인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부인하며 혁명 운동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 이것이 모든 나라의 수정주의자들의 특징적인 책동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이 위대한 학설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뽑아 버리려고 시도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정주의는 그 형태와 정도 여하를 막론하고 제때에 그리고 단호하게 폭로 분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옹호하며 우리 나라에서의 이 학설의 빛나는 승리를 계속 보장할 수 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수정주의가 널리 전파될 수 없었으며 그의 사상 여독이 깊이 빼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 잔재는 아직 완전히 청산되였다고 말할 수는 없는바 그것은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시키는 데 일정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종파 분자들에 의하여 부식된 사상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철저히 전개하여야 한다.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하

여서는 일'군들의 사상 의식 속에 남아 있는 군중에 대한 낡은 사상 잔재를 퇴치하며 매개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관료주의적, 주관주의적 사업 작풍을 극복하며 령도 예술을 높이며 군중 공작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하는것이 필요하다.

관료주의적 작풍을 배격하고 인민적 사업 작풍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은 해방 직후부터 당이 계속 중요시하고 있는 기본 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사업 작풍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군들의 사업 행정에서 나타나는 사상과 사업 방법의 종합적 표현》(김 일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인내성 있는 사상 투쟁을 계속 전개하여야 한다.

관료주의——이것은 군중 로선 원칙과 정반대되는 군중에 대한 착취 계급의 관점이며 반인민적 통치 방법이다. 따라서 관료주의는 인민 민주주의적 사회 제도하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낡은 통치 계급의 사상 잔재는 적지 않은 일'군들에게 남아 있으며 그것이 이러저러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바 그 중에서 특히 관료주의적 작풍과 사업 방법은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 지장을 준다. 일부 우리 일'군 들에게서 나타나는 관료주의적 현상은 인민 대중의 절실한 요구와 의사를 알려고 하지 않으며 대중과 협의하기를 싫어하며 문제를 항상 단순하게 처리하면서 설복과 해석보다 강박과 명령이 앞서며 실정을 조사 연구도 하지 않고 주관주의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사업을 처리하는 데서 나타난다.

주관주의도 역시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방법들의 제 원칙에 모순되는 관념론적 사고 방식이다. 주관주의는 사물을 인식하며 처리함에 있어서 객관적 현실에 립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주관적 판단과 낡은 경험, 그리고 책자에서 따낸 공식에 의거한다.

경험주의, 교조주의가 곧 주관주의의 기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일'군들의 시야를 극도로 제한하며 생동한 현실로부터 그들을 리탈시킴으로써 혁명자적 자주성을 상실하고 정치적으로 암둔한 일'군으로 되게 하며 실천에서 엄중한 오유를 범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관료주의와 주관주의는 그 어느 것이나 다 당의 군중 로선과 량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군중 로선 관철을 적지 않게 제약하며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당원들, 지도 일'군들을 혁명적 군중 관점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 훈련 사업을 계속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 속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교양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주관주의, 특히 교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속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본질에 있어서 창조적 학설인 맑스—레닌주의의 제 원리들을 현실적 조건에 적응하게 구체화할 줄 아는 준비된 일'군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가 결정적 승리를 쟁취한 새로운 정세와 이러한 승리를 쟁취하는 투쟁 과정에서 인민들의 정치, 문화적 수준이 현저하게 제고된 새 현실이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에게 제기하는 더욱 높은 요구에 원만히 수응할 수 있다.

일'군들의 군중 공작 수준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문제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는 그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만으로써는 아직 부족하다. 매개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이 령도 예술을 소유하며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서의 군중 공작 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동시에 중요하다.

군중 공작이란, 인민 대중 속에서 당의 정책을 해석 침투시키며 대중을 당 정책 실현에로 조직 동원하며 각 계층 인민들의 정치 사상 동태를 료해 연구하는 등 군중 속에서의 정치 조직 사업을 의미한다.

군중 로선의 철저한 관철 여부는 바로 당원들의 령도 예술과 군중 공작 수준에 크게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 로선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마치도 중앙 기관에서나 관심할 문제인 것같이 인식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군중 로선은 중앙으로부터 초급 조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당, 정권 기관, 사회 단체, 경제 기관, 생산 기업소, 협동 조합 등 모든 부문에서 반드시 견지되여야 하며 어떤 사업을 수행하든지 이 로선에 립각하여야 한다.

국영 기업소에서 례를 들어 보자. 국영 기업소는 국가가 임명한 단일 책임자의 통솔하에 유일 관리제 원칙에서 운영된다. 그러므로 국영 기업소에서의 제도와 질서 및 규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리 제도가 없이는 방대하고 복잡한 현대적인 기업소들을 관리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국영 기업소는 사회주의적인 전 인민적 소유이며 그의 생산 활동은 인민의 복리 증진에 적극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만큼 이 기업소에서의 유일 관리제가 군중 로선 원칙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군중 로선에 기초하여야 하며 또 기초하고 있다.

이 제도 자체는 근로자들의 생산 활동에서 얻은 경험에 립각하여 제정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새로운 경험에 근거하여 부단히 발전된다. 또한 유일 관리제는 반드시 군중의 자각에 기초하며 광범한 로동자 대중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만 유지 강화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기업 관리 일'군들의 책임성을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기업소 《지도 일'군들이 자기를 군중의 우에 선, 혹은 자기는 마치 군중과 보통 일'군들의 사회적 통제로부터 해방된 인물인 것처럼 자처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143 페지)고 교시하시였다.

생산 기업소 내 당 단체들의 행정 경영 활동에 대한 당적 통제는 바로 이 부문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시키며 유일 관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함에 있어서 커다란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

기업소 관리 일'군들은 대중에게 튼튼히 의거하며 그들에게서 허심하게 배우며 대중적인 혁신 운동들을 적극 지지 방조하며 생산 계획이나 기타 기업 운영에서 제기된 곤난과 애로들을 타개할 데 대하여 대중과 심중히 토의하는 등 이 모든 사업은 유일 관리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를 강화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농업 협동 조합 사업에서도 군중 로선은 물론 견지되여야 한다.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성됨으로써 우리 농촌은 새로운 농촌 즉 사회주의적 농촌으로 전변되고 있다. 농촌에 조성된 이러한 새 현실과 관련하여 여기에서의 당 및 국가 사업 방법도 또한 그에 적응하게 점차 개편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황해남도 농업 협동 조합 열성자 회의에서 진술한 자기의 연설에서 농업 협동 조합 내에서 당 사업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협동 조합이 조직되기 전에는 개인 호주가 자기 집안 살림에 대한 책임을 졌지만 오늘 협동 조합이 조직된 조건하에서는 우리 당 단체들이 조합 사업과 조합원들의 살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시였으며 당원들이 군중의 조직자로 되기 위하여 자기가 먼저 배우며 대중의 모범이 되도록 옳게 행동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와 같이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을 가르치는 당의 군중 로선 원칙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아직 충분히 교양되지 못한 농민 대중을 사회주의의 자각적인 건설자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협동화 운동이 전개된 이래의 실천적 경험은 조합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군중 로선을 견지하도록 그들의 정치—실무적 수준을 높이는 사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은 개인농 시기에 하여 온 사업과 전혀 판이하고 복잡한 많은 새로운 문제들에 부닥치고 있다.

조합 관리 일'군들 앞에는 수십 수백호가 단합된 하나의 큰 집단 경리를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관리 운영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조합 내에서 사회주의적인 제도와 규률을 확립하

는 문제, 공동 재산을 애호하며 그를 옳게 관리하는 문제, 로력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철저히 실시하는 문제 등 기타 많은 생소한 문제에 부닥치고 있는바 그들은 아직 경험이 적고 관리 능력도 부족한 것만큼 이 모든 문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큰 집단을 지도 통솔하기에 충분한 령도 예술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하여 군중에 대한 강박과 명령의 방법이 때때로 발로되고 있다.

이리하여 조합원들이 당하고 있는 곤난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심중한 주의를 돌리지 않으며 그들이 아직 사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였고 집단 생활에서 단련되지 못한 탓으로 하여 범한 이러저러한 착오에 대하여 옳게 설복 교양하지 못하고 《소부르조아 근성》이니 《조합 사업을 방해하는 행동》이니 하는 정치적 규정을 함부로 내리면서 그들을 욕설하는 등 부분적 현상들이 발로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조합 관리 일'군들을 혁명적 군중 관점으로 무장시키며 군중 공작 방법을 체득케 하는 것이 농촌 당 단체들의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이리하여 농업 협동 조합의 기구와 사무를 적극 간소화하고 관리 일'군들로 하여금 군중 속에 접근하여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조합원 대중과 심중히 상론하며 결정을 채택할 때에 회의 참가자들의 의견을 존중히 하며 채택된 결정을 실행할 때에 대중 속에서 해석과 설복 및 실천적 모범을 보이는 방법에 철저히 의거하도록 그들에 대한 당적 지도와 방조를 옳게 주어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부 락후한 조합원들의 그릇된 의견에 추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 그럴 수도 없다.

당 단체와 일'군들은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 집행에서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으며 집단 로동에 량심적으로 참가하지 않으며 공동 재산을 애호 절약하지 않으며 조합 내에서 제도와 규률을 성실히 지키지 않으며 국가적 의무 수행을 태만하며 조합원 호상간의 원칙적인 단결을 약화시키는 등 일체 그릇된 현상들과 투쟁하며 그를 점차 시정하여야 한다.

상술한 모든 것이 조합 사업에 대한 조합 내 당 단체들의 당적 통제에서 중요한 기본 고리들로 된다.

우리의 조합들은 자기 발전의 초창기에 있는 것만큼 바로 지금이야말로 조합 사업에서 군중 로선을 확고히 수립하며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의 산생을 방지하며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하는 등 건전한 기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듯 군중 로선은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를 막론하고 모든 지도적 기관, 지도적 일'군들의 조직—정치적 활동의 기본으로 되며 또 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실제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군중 로선에 기초한 당의 령도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 중앙 위원회 1955년 4월 전원 회의가 강조한 바와 같이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결합,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며 정치 사업을 경제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것 등이다.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전 당적 전 군중적 투쟁은 바로 이러한 결합의 가장 생동한 모범의 하나로 된다. 만약 이 결정을 가지고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을 위시한 각급 단위의 지도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서 당의 의도를 해석 침투시키며 그를 실천하기 위한 방도를 대중과 더불어 진지하게 토의하며 대중의 정치적 각성과 창발성을 적극 계발하는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지도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이 결정이 그처럼 거대한 생활력과 높은 조직 동원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은 그것이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승리를 공고 발전시키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되였다는 데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당, 정권 및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군중 로선의 본질과 당의 령도 방법을 체득하고 특히 사무실적 사업 작풍을 퇴치하고 지도를 대중 속에 접근시킬 데 대한 당적 요구의 심오한 의의를 더욱 깊이 체득케 한 데 있다.

이 경험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예견성, 계획성에 있다. 당 단체들과 당 기관들은 조성된 정세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닥쳐 올 사변들과 절실히 해결을 요구하는 성숙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의 해결을 위한 중심 고리에로 대중을 예견성 있게 계획적으로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 단체들은 사건의 뒤'꼬리를 따르면서 피동적으로 활동할 것이 아니라 항상 주동적 (즉 지도적) 립장을 견지하며 어떤 과업이 부과될 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의 로선과 정책에 근거하여 자기의 투쟁 방침들을 창발적으로 제기하며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

사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로 그것을 만들어야 하며 제기된 과업들을 평균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의 경중과 선후차를 구분하여 매 시기, 매 계단마다 어떤 고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공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사업에서 질서가 째우고 《우연히》 부닥친 난관 앞에 당황하지 않게 될 것이며 매개 지도 일'군들이 항상 긴장하면서도 사업을 더욱 흥겹고 재미 있게 처리할 수 있으며 성과도 역시 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는 매개의 사업 단위에서 간부들과 당 핵심들이 그 부문 사업을 당적 원칙에서 주동적으로 조직하며 추진시킬 줄 알도록 세심하게 가르쳐 주며 방조하며 동시에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며 그 경험을 광범히 보급하는 정신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간부를 료해 연구하며 그들을 검열하며 교양하는 사업과 당 핵심을 옳게 분별하여 그들에게 의거하며 그들을 교양 훈련하는 이것이 언제나 당적 지도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일반적 지도와 함께 개별적 지도를 강화하여 당적 지도가 매개 부문에 더욱 깊이 침투되여야 한다.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는 중요한 형태의 하나는 선택된 개별적 단위들에 대한 집중 지도이다. 이 사업은 당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선 중요한 개별적 국면을 타개하며 경험을 체득하며 전형을 창조하며 그 과정에서 일'군들을 교양 훈련할 목적으로 조직 진행된다.

례를 들면 농업 협동화 운동을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선 각 지방에서 수개의 조합들을 조직하여 경험적으로 운영한 사실이라든가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확대 심화시키기 위하여 우선 개별적 기관, 기업소, 협동 조합들에서 이 투쟁을 경험적으로 조직 진행케 한 조치들이 바로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기 위한 집중적 지도 사업이다.

집중 지도 사업은 또한 하급 당 단체들에서의 당 정책 집행에 대한 상급 당 기관으로부터의 검열과 방조를 목적으로 조직 진행하는바 3차 당 대회가 당 건설 분야에 제시한 과업들과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 중앙 위원회가 실시하였으며 또 하고 있는 일련의 대규모적인 집중 지도 사업이 바로 그러하다.

또한 집중 지도 사업은 일부 당 단체들과 일부 사업 분야에 조성된 결함들을 시정시키기 위하여 조직되거나 어떤 부문의 사업 상태를 료해하거나 어떤 정책적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집중 지도 사업은 간부들과 당 핵심들을 료해하며 교양 훈련함에 있어서 훌륭한 학교로 된다.

집중 지도 사업은 당의 군중 로선 원칙에 더욱 철저히 립각할 가능성을 주는바 그것은 우선 비교적 많은 지도 력량이 동원되여 개별적 부문이나 개별적 당 단체를 오래'동안 지도하느니만큼 그 지도가 대중 속에 깊이 침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집중 지도 역시 그 지도에 참가하는 일'군들이 옳은 군중 관점을 소유하고 당원 및 비당원 대중에게 튼튼히 의거하며 그

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심중히 대하며 조성된 결함들에 대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그것을 대중의 각성 정도에 적합한 방법으로 능숙하게 지도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당 사업 작풍의 기본인 해석과 설복의 방법에 충실히 의거함으로써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당의 군중 로선 관철을 위한 투쟁은 당의 기본 군중을 위시한 각계 각층 인민 대중의 각이한 특성과 정서 및 요구들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그를 존중히 함으로써 인민들의 단결을 계속 강화하는 데로 반드시 지향하여야 한다.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어떤 사업을 수행하든지, 그리고 특히 어떤 어렵고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항상 로동 계급을 위시한 당의 기본 군중에게 튼튼히 의거하며 로농 동맹을 강화하며 그를 중심으로 각 계층 인민들을 단결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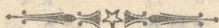
또한 군중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우선 기본 군중에 의거하여 그들의 계급적 각오 정도를 높이는 데 선차적 주의를 돌려야 하며 어떤 공장, 기업소의 종업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들 중에서도 로동 년한이 깊고 실제 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그리고 사회주의적 의식이 높고 모든 사업에서 적극성을 발휘하는 그러한 핵심 부문에 우선 의거하여 그들의 모범적 역할을 높여야 하며,

농촌에서는 토지 개혁 시기로부터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을 통하여 당 정책 집행에 가장 충실히 참가한 빈농, 중농들과 제대 군인, 애국 렬사 유가족 등에 튼튼히 의거하는 방침을 취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은 언제나 그 자체의 힘만으로써는 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자기 주위에 수백만 비프로레타리아 대중을 단결시켜야 하는바 이러한 단결은 로동 계급의 계급적 리익과 그 주위에 단결된 모든 계층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그러므로 기본 군중에 의거하는 방법은 각계 각층 인민들의 통일 전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며 인민들을 당과 정부의 주위에 단결시키는 필수 조건으로 되는바 이에 있어서 핵심이 없이는 대중적 단결이란 있을 수 없다. 특히 그 핵심 부분 (즉 당의 기본 군중) 가운데서도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 부분이 망라된 당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인민의 튼튼한 단결이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요한 임무는 당원들의 당 생활을 더욱 강화하며 그들의 당성 단련과 계급 의식 제고를 촉진시키며 매개 간부들과 당원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개 간부들과 당원들이 혁명적 군중 관점으로써 자체를 튼튼히 무장하고 군중 로선의 계급적 본질을 옳게 파악하며 군중에 대한 령도 예술을 소유하며 전체 인민들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시킬 것이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하여

전 성 근

각국 형제 당들의 모쓰크바 회의들과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우리들이 우리 나라의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며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며 전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 사회주의 력량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관한 문제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함께 매우 중요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 *

애국주의는 그의 발생에 있어서 국제주의에 력사적으로 선행한다.

레닌은, 《애국주의——이것은 수백 수천년에 걸쳐 공고화된 고유한 가장 심오한 감정의 하나이다》 (레닌 전집 28권 167 페지)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애국주의는 오랜 력사 기간을 통하여 형성되고 작용하는 사람들의 심오한 감정의 하나이다.

애국주의는 사회 력사적 현상으로서 일정한 사회 력사적 조건하에서 발생하였으며 사회 력사적 조건에 제약됨으로써 각 시대, 각 계급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을 달리한다.

애국주의란 자기 강토와 자기 인민에 대한 사랑이며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주의에 관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조국에 관한 문제와 관련을 가지게 된다.

조국은 력사적 개념으로서 그것은 사회의 각이한 계급들에게 있어서 각이하게 리해된다.

근로 대중에게 있어서 조국과 애국주의에 관한 문제는 자본주의의 발생, 발전과 더불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되였다. 왜냐 하면 자본주의의 확립 과정은 동시에 부르죠아 민족의 형성 과정이며 현대 부르죠아 민족 국가의 성립 과정이기 때문이다.

부르죠아 민족 국가의 형성 시기에 있어서 근로 대중은 민족주의적 립장에 있은 부르죠아지와 일정한 기간 보조를 같이 하여 봉건적 생산 관계와 신분 제도를 반대하여 싸웠으며 낡은 봉건 국가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이 투쟁은 혁명적이고 민주주의적이고 애국적인 투쟁이였다. 왜냐 하면 낡은 봉건 제도와 봉건 국가를 청산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제도와 부르죠아적 민족 국가를 확립하기 위한 이 투쟁은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며 당시에 있어서 전체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 것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제도와 부르죠아적 민족 국가가 확립됨으로써 부르죠아 국가가 민족적 통일이라는 구호 밑에 착취 계급의 리익만을 옹호하고 근로 대중을 억압 착취하는 도구로 화해 버린 조건하에서는, 조국은 순전히 부르죠아지의 조국이며 이 부르죠아적 조국을 지지 옹호하는 것이 근로 대중에게 있어서는 결코 애국적인 행동으로 될 수 없고 오히려 부르죠아 국가를 반대하는 투쟁만이 애국적 투쟁으로 된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투쟁만이 사회의 진보를 보장하며 진실로 민족의 리익을 수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맑스는 자본의 주권하에서는 《로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말하였

다. 민족주의, 부르죠아적 《애국주의》는 인민 대중을 희생으로 그들을 부르죠아지의 리익에 복무시키는 것이므로 반동적, 비애국적이다.

세계 각국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우선 민족적 범위에서 자기 나라 부르죠아지를 타도하고 자기들의 독재를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을 전개한다. 그러나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사회의 계급적 분렬을 근절하고 종국적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할 공통적인 기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통적인 계급적 원쑤들인 세계의 부르죠아지를 타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자본주의의 청산과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만이 오직 프로레타리아트의 종국적 승리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리해와 목적의 공통성으로부터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단결의 필요성이 나오게 된다. 맑스와 엥겔스는 이와 같은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의 필연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사상을 기초지었으며 이를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하라》는 구호로써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맑스와 엥겔스가 민족 또는 조국에 대해서 허무주의적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다. 오히려 반대로 프로레타리아트는 우선 무엇보다도 자기 손에 주권을 전취함으로써 인민의 진정한 조국을 창건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로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그들에게 없는 것을 그들로부터 빼앗을 수는 없다》고 한 다음에, 곧 이어서 《프로레타리아트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적 지배권을 전취하며 민족적 계급의 지위에까지 올라 서며 민족으로서 결성되여야 한다…》고 썼다.

맑스는 또 《자본론》에서 자본이 조국을 모르는 것과 같이 부르죠아지는 조국을 모른다고 하였으며 또 1866년 6월 20일 엥겔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족을 부정하는 것은 부르죠아 민족주의이며 지배 계급의 특권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엥겔스도 1845년 2월 8일 엘베르펠트에서의 연설에서 공산주의 사회 성원은 《진정한 조국, 진정한 보금자리》를 옹호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로동 계급이 자기 조국에 대하여 무관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때문에 레닌은 《로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맑스와 엥겔스의 명제를 해석하면서 《…이것은 (ㄱ) 로동자의 경제적 처지는 민족적이 아니라 국제적이며 (ㄴ) 그의 계급적 적(敵)은 국제적이며 (ㄷ) 그의 해방 조건도 그러하며 (ㄹ) 로동자들의 국제주의적 단결은 민족적 단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집 35권 196 페지)고 지적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19세기 중엽에 부르죠아지의 조국이 프로레타리아트의 조국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당하게 천명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있어서 아직 근로 대중의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 문제로 제기될 수 없었다. 사회주의 혁명이 당면의 문제로 일정에 오른 조건하에서 레닌은 비로소 사회주의 조국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해명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승리는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의 새로운 사회주의 조국, 쏘베트 국가를 창건케 하였으며 이리하여 또한 사회주의 조국의 수호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였다.

그후 쏘련의 해방자적 역할에 의하여 조성된 유리한 조건하에서 구라파와 아세아의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진정한 조국인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을 창건하였다. 조선 인민도 자기의 진정한 조국을 가지게 되였다.

이처럼 《조국》은 착취자적 사회 구성들에 있어서는 바로 이러저러한 착취 계급들의 조국에 불과하며 주권이 로동 계급에게 장악되는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조건하에서만 진정으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 대중의 조국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조국을 위한 투쟁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하에서만,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사회주의 조국을 부르죠아 조국과 구별케 하는 기본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청산,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 자신과 국가를 위하여 일할 가능성을 주는 국가 사회 제도, 민족적 억압과 예속의 청산, 국가들 간의 평등, 주권의 호상 존중, 호상 협조의 국제 관계 등등이다.

새형의 조국인 사회주의 조국의 현존은 새형의 애국주의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위한 객관적 물질적 토대로 된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새형의 조국인 사회주의 조국의 특성 자체로 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리해 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또 맑스—레닌주의, 사회주의의 본질 자체로 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필연적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을 수 없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이는 맑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련결된 불가결의 구성 부분들이다. 세계 각국의 로동 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련대성의 사상이며 정책인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떠나서 맑스—레닌주의는 존립할 수 없으며 승리할 수 없는 동시에 매개 민족 프로레타리아트의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사회주의는 또한 실현될 수 없으며 승리할 수 없다. 또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련대성 없이는 우선 민족적 범위에서 수행되는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으며 매개 민족에서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주권 및 민족적 독자성과 특수성에 대한 호상 존중 없이는 각국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이 강력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조국을 위한 투쟁은 맑스—레닌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하에서 비로소 시작되였으며 그 기치 밑에서 새 조국이 전취되였고 새형의 애국주의가 개화되고 있다.

※ ※

조선 인민의 애국주의는 오늘 우리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대한 자각적 사랑이며 그의 력사적 진보적 역할에 대한 깊은 확신과 긍지이며 그를 통일된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시키려는 열렬한 지향이다.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는 새형의 애국주의로서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이다.

우리 조선 인민의 애국주의적 전통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의 근로 인민들, 선진적인 투사들에게는 고상한 애국주의가 있었다.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애국주의는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근로 인민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있어서 인민들의 애국주의는 착취 계급이 국가를 통치하며 인민들을 억압 착취하는 조건하에서 자유로운 발전을 할 수 없었으며 제한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결합된 새형의 애국주의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항일 빨찌산 투쟁에서였다. 국제 반파쑈 전선의 일환이였던 조국 광복회의 강령에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이 명백히 반영되여 있었다. 강령의 제2조에는 《조 중 민족의 친밀한 련합으로써 일본 및 그 주구 〈만주국〉을 전복하고 중국 인민들이 자기가 선거한 혁명 정부를 창설하며 중국 령토내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의 진정한 자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선포되여 있다.

이리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결합된 우리의 애국주의는 그후 8. 15 해방 후 인민 민주주의적 사회 경제 토대 우에서 전 인민적 물질적 력량으로 개화 발전하였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맑스—레닌주의이다. 맑스—레닌주의는 우리 조국 발전의 위대한 전망을 가르쳐 주며 그에 대한 열렬하고 고상한 애국적 감정과 의식을 배양하여 준다. 맑스—레닌주의를 소유한 결과 우리 인민의 사상적 풍모는 일변하였다.

《우리는 우리 근로 인민이 투쟁에서 쟁취한

사회주의적 전취물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소중하게 지키며 온갖 종류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투쟁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진보적인 것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우리 나라의 아름답고 훌륭한 모든 것이 인민의 소유물로 되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에 복무되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의 대가정 속에서 형제 국가 인민들과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강화하면서 번영하고 있는,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자기의 조국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입니다》(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김 일성 동지의 보고).

우리 조선 인민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그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근로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우리 나라의 사회제도와 국가 제도에 대한 인민 대중의 열렬한 사랑에서 표현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사회 정치 제도의 진정한 인민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 정치 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의 모든 활동의 조직 지도자이며 우리의 모든 행복과 승리에로 인도하는 조선 로동당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성으로 표현된다.

우리 나라의 사회 정치 제도 및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 대중의 사랑과 헌신성은 평화적 건설 시기에는 창조적 로동에서, 전쟁 환경에서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영웅적인 전투 위훈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 행정이 이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인민들의 전투 위훈을 말하려면 전쟁 행정에서 480 여 명의 전투 영웅과 74만 6천 수백 명의 훈장,메달 수훈자가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조국에 대한 우리들의 열렬한 사랑은 조국의 원쑤에 대한 불붙는 증오와 필연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우리는 조국의 원쑤를 증오하지 않는 조국애를 생각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발전을 방해하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역도를 우리 조국의 불구대천의 원쑤로 증오한다.

우리가 증오하는 것은 착취자와 억압자이며 우리 조국에 대한 침략자이며 평화의 교란자이다. 이와 같은 인민의 원쑤에 대한 우리들의 증오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인간의 품위에 대한 고상한 사랑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데까지나 진정으로 인도적이며 도덕적인 것이다. 이러한 증오는 원쑤들과의 적극적인 투쟁을 요구한다.

조선 인민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다음으로 로동과 생산과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인민 대중의 새로운 자각적, 헌신적 태도에서 표현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은 영예롭고 애국적인 일로 되였다. 오늘 우리들은 과거 일제 시대와 같이 착취자나 기식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일한다. 또 이에 대한 우리들의 자각성은 거대한 대중적 창조적 에네르기를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을 고무 추동하는 힘으로 되고 있으며 자기들의 행복의 원천으로 되는 국가적, 사회적 소유와 자기들의 로동의 결과에 대한 주인다운 애호 절약의 태도를 낳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우리 사회 발전을 추진시키는 한개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또 우리 나라의 강토와 인민, 과거와 현재의 모든 아름답고 훌륭한 것,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사랑과 정당한 민족적 긍지에서 표현되고 있다.

우리는 아름다운 강산과 풍부한 부원과 근면하고 성실한 인민과 유구하고 빛나는 력사와 우수한 민족적 전통과 찬란한 문화 유산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하며 자랑한다.

또 우리 인민은 해방 후 불과 10 여 년 동안에만 하여도 자기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부문에서 아주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을 선두로 하는 국제 제국주의 력량을 반대하는 3 년 유여의 간고한 전쟁에서 적을 쳐 물리치고 승리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자랑한다.

우리는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나 어려운 전쟁 행정에 있어서나 우리 인민의 투쟁을 옳게 조직 지도한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당을 가지고 있다. 또 오랜 혁명 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훌륭한 당 지도부를 가지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자기의 통일 단결된 력량으로 하여, 또 그의 시종일관한 현명하고 정확한 정책과 이룩한 성과들로 하여, 국제 사회주의 력량 강화에 기여한 공적으로 하여 국제적으로도 매우 위신이 높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나라는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당당한 일원이며 세계 로동 운동의 영광스러운 돌격대이다. 우리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전쟁의 기도를 저지시키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자랑한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의 정당한 민족적 긍지와 자기 력량에 대한 자신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높은 긍지는 썩어 빠진 배타주의적인 모든 낡은 잔재와 인습을 숙청》(김 일성 선집, 제3권 241 페지) 한 참되고 정당한 긍지이며 자부심인 것이다.

우리 애국주의의 한 개 요소로 되여 있는 정당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장기간의 봉건 통치와 일제 식민지 예속하에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남의 것만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던 락후한 사상 잔재를 철저히 배격한다. 우리는 남의 것을 존중히 하고 배우면서 동시에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며 정당하게 평가하고 자랑한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특성의 하나는 그의 전 인민적 성격이다. 계급적 대립에 기초하는 부르죠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민족적 공통성은 있으나 사회적 공통성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과 착취자들 간, 인민 대중과 부르죠아 국가간에 대립과 분쟁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의 정치—도덕적 통일이 있을 수 없으며 또 모든 계급들과 계층들에 공통적이며 통일적인 감정으로서의 애국주의가 있을 수 없다.

부르죠아 국가에서와는 반대로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사회 성원들의 경제적 리해 관계가 공통적이며 사회가 정치—도덕적으로 단결되여 있으며 전체 인민은 당과 정부의 주위에 통일적이고 우호적인 대가정을 이루고 있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전 인민적 성격의 토대가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당과 정부의 주위에 단결된 전체 인민은 평화적 건설에 있어서나 전쟁 시기의 간고한 투쟁에 있어서나 통일 단결되여 무비의 영웅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였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행정에서 나타난 대중적인 영웅주의, 례를 들어 근위 18 련대, 근위 2사, 근위 85 련대, 근위 105 땅크 사단, 근위 제14 보병 련대들의 전투 위훈, 전후 복구 건설 사업에서의 대중적인 로력적 앙양, 특히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실천하기 위한 전체 인민들의 앙양된 정치적 로력적 열의 등은 바로 우리의 애국주의가 가지는 전 인민적 성격의 구체적 표현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또한 그의 자각적 성격으로써 특징지어 진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인민 대중이 착취의 대상이기를 그만두고 새 사회 생활의 자각적 건설자로 되여 있다. 자각적 건설자로 된 인민 대중의 창조적 로력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 나라 사회 국가 제도에 대한 인민 대중의 사랑으로서의 애국주의는 자각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위협과 기만으로 대중을 추동하여 보려고 하는 부르죠아적 애국주의가 인민의 자각성이나 적극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과 아주 대조적이다.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의 자각적 성격은 로동에 대한 자각적 태도, 국가적 사업에 대한 헌신성과 적극성, 국가 사회 규률에 대한 자각적 준수 등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자각성과 거기에서 흘러 나오는 적극성은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에 행동성을 부

여한다. 우리들의 애국주의는 조국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를 배격하며 내용 없는 말 공부를 반대한다.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가 광범한 인민 대중을 창조적 활동에로 고무 추동하는 힘으로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조국에 대한 인민 대중의 자각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쏘련 인민을 비롯한 형제적 인민들, 전 세계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있다는 점으로써 특징지어 진다.

미 제국주의 략탈자들과 그 종복으로서의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마치도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는 서로 량립할 수 없으며 국제주의자들은 민족과 조국을 부정하는 듯이 비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근로자들의 사랑은 결코 다른 나라 근로자들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배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진정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자들 만이 진정한 애국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 간의 친선 단결의 기초는 이 진영에 망라된 나라들의 사회 및 국가 제도의 공통성,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과업의 공통성, 맑스주의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근로자들의 세계관의 공통성에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과 략탈, 반목이 자본주의의 본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과 단결은 사회주의 사회의 사회 경제적 본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합법칙적 결과인 것이다》 (김 일성, 사회주의 국가들의 친선과 단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맑스와 엥겔스가 선포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의 해방 투쟁에서 하나의 지도 원칙으로 되였으며 공산주의적 국제 관계의 원형으로 되였다.

모쓰크바 회의 선언은 《생활에 의하여 검열된 맑스—레닌주의의 원칙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들은 세계 사회주의 체계내의 국가들과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호상 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늘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내의 각 국가와 인민들은 국제주의적 련대성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면서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국제주의적 통일 단결은 비단 제국주의의 공격을 공동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모든 조선 사람에게 있어서 생활적 기초로 되여 있다. 조선 인민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힘을 자체의 경험을 통하여 확고하게 체득하였다. 《조선 인민은 쏘련을 비롯한 형제 국가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에 사활적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거대한 힘을 가장 절실하게 체험한 인민이다》 (김 일성, 12월 확대 전원회의 보고).

조선 인민은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찬 자기들의 현대 력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특히 민족적 독립의 완성과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최근 12 년간의 실제 투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체 력량에 대한 확신성을 주는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와의 국제주의적 련대성의 의의와 불패의 위력을 충분히 체험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을 강화함에 있어서 쏘련에 대한 태도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쏘련은 지난 40 년간 세계 혁명 운동의 성새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으로 되여 왔는바 이것은 세계 로동 운동과 우리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원천으로 된다.

인류가 걸어 보지 못한 길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척하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서 쏘련 인민들이 축적한 고귀한 성과와 경험들은 인류의 공동 재산으로,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지침으로 되고 있다. 만일 쏘련 인민의 이러한 풍부한 성과와 경험이 없었더라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에 찬 길을 걷게 되였을 것인가! 그러므로 만일 진실로 공산주의의 승리를 원하며 사회주의 위업에 충실하려 한다면 누구든지 쏘련을 중심으로 뭉쳐야 하며 쏘련을 향하여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력사적 경험은 쏘련과 견고하게 형제적으로 단결하지 않고서는, 그에게서 배우지 않고서는 그 어느 나라도 련합된 제국주의의 반동 세력 앞에서 자기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전취물을 성과적으로 보위할 수 없으며 인민 경제와 문화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세계 사회주의 진영이 쏘련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력사적으로 조성된 객관적 현실이다. 그것은 명백한 진리이며 론의할 여지 없는 일이다.

최근 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은 《반쏘 반공》의 각종 도발적 책동을 감행하고 있으며 수정주의자들에게 소위 《민족 공산주의》의 구호를 던져 주면서 그들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로부터 물러 서게 하며 쏘련을 중상하며 사회주의 국가들과 당들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적들과 그들에 복무하는 수정주의자들의 발악이 로골화되면 될 수록 우리 조선 인민은 당의 정확한 령도하에 더욱 쏘련을 지지 옹호하여 나섰으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로동 운동의 공인된 중심인 쏘련을 선두로 단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적 태도와 굳은 결의를 더욱 굳게 하였다.

조선 인민은 쏘련 인민을 지지하며 그에게서 배우며 그를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민족들 간의 반목과 불화를 선동하며 타민족을 멸시하며 민족적 억압을 설교하는 부르죠아 민족주의를 적대시한다. 또 그것은 각 민족의 자주권과 독자성을 부인하며 애국주의와 민족적 독립은 《낡은 것》이며 국가들 간의 경계(境界)는 진보와 통일적 《세계 국가》 형성을 위해 장애로 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족적 허무주의를 선전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데 복무하는 꼬쓰모뽈리찌즘과도 아무러한 공통성도 없으며 결정적으로 그를 반대하여 투쟁한다.

이렇듯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유기적으로 통일되여 있다.

* *

맑스—레닌주의에 있어서 호상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이것은 제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일체의 사회적 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따라 인민들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의식으로 튼튼히 무장되면 될 수록 그 립장에 더욱 굳건히 서면 설 수록 략탈자,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자기들의 해방과 행복의 증진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들을 달성하리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맑스—레닌주의, 사회주의 발전의 백 여 년의 력사, 특히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이후 사회주의 승리의 40 년의 력사는 지난해 세계 각국 공산당, 로동당 대표들의 모쓰크바 회의들에서 총화된 바와 같이 이 진리를 명시해 주고 있다.

우리 인민은 또한 해방전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항일 민족 해방 투쟁으로부터 우리 혁명의 현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에서 이 진리를 체험하고 있다.

오늘 전 세계에서 평화의 공고화와 사회주의 및 민족적 해방의 위업의 가일층의 전진을 위하여, 또 우리 나라 내부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완수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을 가일층 강화하는 것은 긴절한 요구로 된다.

우리는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맑스—레닌주의 교양의 중요한 일부분인 프로레타리아 국

제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념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애국심은, 조국에 대한 구체적 사랑이며 어떤 추상적 개념에 그칠 수 없다. 《애국심은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와 문화를 사랑함과 아울러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심, 고향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감정, 부모, 안해, 자식들에 대한 애정에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애국심은 인간의 감정에서 구체적으로 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김 일성 선집 제3권, 240 페지).

이처럼 조국의 형상은 매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만큼 우리들이 애국주의를 교양함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생활에서 구체적인 것, 조국의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모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대상적인 사랑의 감정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기 고향이나 친근한 사람에 대한 단순한 애착으로서 나타나는 사랑은 아직 사회적, 도덕적 사랑으로 되지 못한다. 례를 들어 보통 본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되지 못한다. 때문에 조국의 력사와 현실 생활에 있어서 매 개인에게 친근하고 구체적인 것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조국의 운명, 인민의 행복과 긴밀하게 련결되는 높은 도덕적 감정으로 제고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의 과거와 현재 생활에서 구체적 사실, 구체적 대상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기르는 동시에 그것이 당과 정부, 인민 민주주의적 조국 및 인민의 리익과 련결되는 고상한 감정과 지향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의 애국주의적 교양이 중요하게는 국가 재산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진행되여야 할 것이다.

또 국가 사회 제도에 대한 사랑은 국가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유지 강화하며 자각적인 로동 규률과 공동 생활 규칙을 모범적으로 지키는 데까지 철저해야 한다. 때문에 우리들의 애국주의 교양은 바로 생활의 이러한 분야에서도 진행되여야 한다.

우리 근로 인민의 애국주의 교양에 있어서 다음으로 특히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민의 애국적 전통과 문화 유산에 대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들의 과거 력사에 대한 옳은 리해와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에 대한 높은 긍지감은 우리 애국주의적 의식의 원천의 하나이다. 김 일성 동지는 《애국심은 자기 조국의 과거를 잘 알며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전통과 문화와 풍습을 잘 아는 데서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집 제3권 240 페지)라고 말씀하였다. 물론 간혹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민족적 전통과 문화 유산에 대한 긍지를 기르는 것이 애국주의 교양에 있어서 첫째가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 우리들의 애국주의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진정한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애국주의 교양에 있어서도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사회 정치 제도에 대한 사랑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아득한 옛날부터 자기들의 아름다운 조국 강토에서 창조적 로력으로써 이룩해 놓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이 오랜 력사 행정에서 자기의 조국과 인민에 대하여 무한한 사랑과 충성을 바쳐 왔다.

특히 조선 인민이 오랜 력사 기간을 통하여 부단한 외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데서와 착취 계급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데서 발휘한 애국적 전통을 리해하며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실례들로써는 7세기 수 당의 대군을 격퇴한 인민들의 투쟁, 11세기 거란군의 침공을 반대해 싸운 고려 인민들의 투쟁, 16세기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여 싸운 조선 인민들과 리 순신 장군의 애국주의,

1866년 불란서 함대의 강화도 침략과 미국 군함 《샤만호》의 대동강 침범을 반대해 싸운 인민들의 용감성과 애국주의 등 무수히 많다.

또 옛날부터 우리 인민은 착취 계급들의 억압과 착취, 무법과 횡포를 반대하여서도 용감하게 투쟁하였으니 례를 들어 9세기 말의 적고(赤袴) 폭동, 12세기의 망이(亡伊) 폭동, 15세기의 함경도 농민 폭동, 19세기 초의 평안도의 홍 경래 농민 폭동, 19세기 말의 갑오 농민 전쟁 등이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투쟁에서 나타난 인민들의 자유에 대한 지향은 아주 훌륭하고 애국적인 것이였으며 그들 중에서 우수한 지도자와 활동가들은 진정한 애국자들이였다.

특히 일제 침략을 반대하여 싸운 의병 운동과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영향하에 일어난 3,1 인민 봉기, 그후 계속되는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과 각종 반제 투쟁, 특히 1930년대에 이르러서 우리 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인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지도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항일 무장 투쟁과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의 생생한 실례들은 우리 조선 인민의 애국주의의 전형이다.

이러한 력사적 사실들에 대한 깊은 리해와 정당한 평가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교양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조선 인민은 유구한 력사 기간을 통하여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 왔다. 근 2천년 전에 만들어진 고구려 고분들에서 우리는 당시의 회화 예술과 수공 기예가 매우 높이 발전한 것을 보게 된다. 신라 시대의 유물들인 경주의 석굴암,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첨성대 등은 당시 우리 인민이 훌륭한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고려 시대에 와서 청자기, 8만대장경 등 우리 민족 문화의 자랑이며 특히 1234년에 금속 활자를 사용하여 서적 인쇄를 한 것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알려진 독일의 구텐베르그의 활자 (1445년)보다 200 여 년이나 앞서는 것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다.

15세기의 과학 문화의 발전, 특히 천문 력학(曆學), 수학, 음악 예술의 발전, 훈민정음의 창제 등 모두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과학 문화의 훌륭한 재보들이다.

18, 19세기에 와서 실학자들의 사회 정치적 과학적 견해들과 사실주의적 문학 작품들과 그림들, 탁월한 애국적 지리학자 김 정호가 창작한 《대동여지도》 등 모두 우리들이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문화 유산들이다.

이러한 훌륭한 문화 유산을 정당하게 리해하며 평가하며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오늘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며 풍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를 교양하는 데 있어서도 큰 의의가 있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를 기르는 동시 부르죠아 문화에 대한 무원칙한 아유 굴종을 반대하며 《사대주의》적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끝으로 근로자들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식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쏘련을 비롯한 형제 나라 인민들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단결이 우리의 투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며 우리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놀았으며 또 놀고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료해시키며 전 세계 근로자들의 단결과 련대성이 어떻게 제국주의와 전쟁 세력에 대한 사회주의와 평화 력량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더욱 구체적으로 리해시키는 그것이다.

우리는 인민 대중 속에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를 교양하는 동시에 일체 부르죠아 민족주의와 배타주의 잔재를 결정적으로 반대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국 인민들 간의 반목과 불화, 불신임을 조성한 부르죠아 민족주의가 우리들의 혁명 과업 완수에 해독적이며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아주 죄악적이라는 것을 똑똑히 리해시킬 필요가 있다. 더우기 오늘 이러한 민족주의적 편향은 맑스—레닌주의 일반적 원칙으로부터 물러서는 수정주의적 태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리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민족 허무주의 사상도 우리 혁명에 해를 주며 국제 로동 운동에도 리롭지 못하며 결국에는 제국주의 반동에 리익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특히 오늘 우리가 반대 배격하는 교조주의적 태도와 관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수정주의의 사회 력사적 근원과 반 동 적 본 질

홍 범 구

국제 로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현 시기는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부르조아 이데올로기 및 그 변종인 각종 기회주의적 조류들과의 치렬한 사상 투쟁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로 인하여 혁명적 리론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투쟁은 특히 현 계단에 있어서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모쓰크바 회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커다란 주의를 돌리면서 특히 현 시기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주되는 위험으로 되고 있는 수정주의와의 투쟁을 완강히 전개하며 그를 결정적으로 극복할 것을 강조하였다.

모쓰크바 회의 참가자들이 일치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현대 수정주의는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며 로동 계급의 혁명적 정력을 마비시키며 자본주의의 보존 또는 재생을 요구하는 우경 기회주의이다. 이러한 사상적 본질로 말미암아 수정주의는 현 시기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에 대하여 극히 위험한 것으로 되고 있다.

로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의 수정주의의 존재는 경험이 보여 주는바와 같이 로동 계급과 그의 혁명적 전위대인 당의 전투적 정신을 저하시키며 추미주의의 위험을 조성하며 로동 운동의 가일층의 확대 발전을 저해한다. 때문에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로동 계급의 종국적 승리와 사회주의 위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 *

수정주의는 자기의 지배를 보전하기 위한 부르조아지의 사상 투쟁의 한 형식으로 발생하였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혁명적 맑스—레닌주의의 보급을 반대하는 부르조아지의 투쟁 무기이다. 부르조아지는 언제나 로동 계급에 대한 자기의 사상적 영향을 강화하며 로동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내부로부터 분렬 파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수정주의를 리용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동 계급의 계급적 의식과 리론적 무장을 마비시키고 저해하려 한다.

수정주의는 이와 같이 부르조아지의 영향과 압력의 산물로서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부르조아 사상을 로동 계급 속에 주입하는 극히 유해한 경향이다.

수정주의는 이미 전세기부터 대중적 로동 운동의 무대에 출현하였다. 그것은 일정한 력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과 사상 투쟁의 일정한 단계 등등에 따라 이러저러한 형태를 가지고 부단히 출현하였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대두한 우경 수정주의는 그 시기에 있어서 보편적인 국제적 현상으로 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시의 로동 운동, 공산주의 운동에서 지배적인 지위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독일의 베른슈타인주의자, 불란서의 입각파(入閣派), 영국의 페비안 협회원, 로씨야의 《합법적 맑스주의자》와 《경제주의자》들은 서로 칭찬하며 서로 배우며 또한 련합하여 공동으로 맑스주의를 반대하였다.

현 시기에 있어서도 수정주의는 민족적 특성과 력사적 모멘트의 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본질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현재 공산주의 운동에서 수정주의적 조류가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정주의자들은 서로 사상적으로 지지, 공명하며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와 우익 사회주의적 개량주의에 서로 맞장구를 치고 있다. 사회주의 나라들에 있는 수정주의자들로부터 자본주의 나라들에 있는 그들의 《지지자들》은 모두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을 반대하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정주의는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나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수정주의의 출현은 결코 우연적 현상이 아니며 또 개별적 인물들의 오유, 배반이 아니다.

레닌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대두한 국제 수정주의 출현의 력사적 근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들었다:

첫째로 수정주의는 로동 운동 발전에서 소위 《평화》 시기의 산물이다. 로동 운동의 평온한 환경은 로동 계급에게 의회를 비롯한 온갖 합법적 가능성을 리용할 여지를 주며 경제적 및 정치적 군중 단체들을 조직하며 합법적인 출판물들을 간행할 가능성을 준다. 이로 말미암아 허다한 동요 분자들은 한갓 합법적 투쟁에만 매달리며 단순히 합법적 투쟁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나머지 프로레타리아 혁명마저 포기하는 데 이른다.

둘째로 수정주의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쟁취한 조건하에서 취하는 일종의 반맑스주의적 사상 및 리론 형태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력사의 변증법은 맑스주의의 리론적 승리가 맑스주의의 적들로 하여금 맑스주의자로 가장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속들이 부패한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기회주의의 형태로 회생(回生)하려고 시도하였다》 (《맑스, 엥겔스, 맑스주의》 모쓰크바 판, 101 페지).

세째로 수정주의 발생의 극히 중요한 원인으로 되는 것은 부르조아지의 전술의 변화이다. 부르조아지는 자기의 지배를 고수하기 위하여 두 가지 투쟁 방법을 채용한다. 첫째로 그것은 폭력, 압박의 방법이며, 둘째로 그것은 개량, 양보 등등의 방향에로 나아가는 《자유주의》의 방법이다. 폭력의 방법을 취할 때에는 무정부주의를 장성시키며 《자유주의》적 방법을 취할 때에는 기회주의를 산생시킨다. 이러한 《부르조아적 전술의 지그자그로 말미암아 로동 운동에서 수정주의가 강화되며 그 내부에서의 의견 차이는 흔히 직접적 분렬에까지 이르게 된다》 (레닌 전집, 16권 442 페지 조선문 판).

력사적 근원으로 볼 때 제2차 대전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로동 운동,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의 수정주의의 출현은 이상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은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타당되는 동시에 그 외에 또한 특수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전후 시기 일련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출현과 사회주의의 세계적 체계에로의 전화, 사회주의 력량의 미증유의 장성 강화로 인하여 《…가장 선견지명이 있는 사회주의의 원쑤들과 지어는 자본주의의 신봉자들까지도 사회주의라는, 그러나 좀 보태진 <민족 사회주의> 또는 <민족 공산주의>라는 명칭 그 자체를 감수할 용기를 표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흐루쑈브).

국제 반동들은 자기의 멸망을 모면하려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보다 교묘한 방법들을 리용하게 되였는바 그들은 자기의 대변인들을 공산주의 운동내에 잠입시키며 또한 일부 불견실한 분자들에게 활력을 주입하면서 자기들의 사상 기관들을 총동원하며 공산주의 운동 내부의 틈을 찾기에 급급하였다. 국제 반동들의 이러한 사상적 공세와 압력은 공산주의 대렬 내부의 일부 불견실한 분자들에게 동요를 일으켰는바 이것은 특히 일련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 내부에서 개인 숭배와 그 후과를 극복하며 로동 운동 발전 문제에 대한 창조적 토론, 특히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문제에 대한 창조적 토론을 전개하는 행정에서 더욱 현저히 나타났다.

국제 반동들의 사상적 공세가 악랄하게 진행되던 시기에 전개된 이 토론 행정에서, 또

는 일부 자본주의 나라들의 일시적 경기에 매혹된 동요 분자들은 부르조아 선전에 완전히 굴복하였으며 그리하여 수정주의적 견해들을 퍼뜨리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이 일부 불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부르조아지의 영향과 압력은 현대 수정주의의 산생을 조건지었다.

수정주의는 또한 레닌적 분석에 의하면 일정한 사회적 지반 우에서 산생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소부르조아지의 존재이다. 로동 운동의 발전에 따라 적지 않은 소부르조아 계층이 로동 운동 대렬내에 인입된다. 이로 인하여 로동 계급과 로동 계급 당내에 소부르조아 사상이 전파된다. 새로 인입된 소부르조아 계층은 부르조아적 세계관, 특수적으로는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세계관과 결정적으로 인연을 끊지 못한채 맑스주의의 개별적 구호들, 요구들 만을 습득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립장이 확고하지 못하며 부르조아적 영향과 압력이 강화될 때에는 그에 투항하게 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새롭고 새로운 <신병(新兵)>들의 인입, 근로 대중의 새로운 층들의 인입은 응당 리론과 전술 분야에서 동요가 생기며 낡은 오유들이 반복되며 낡아버린 견해와 낡아버린 수'법들에로 일시 복귀하는 것 등등을 불가피적으로 동반하게 된다》(전집, 16권, 438 페지 조선문 판).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부르조아지에게 매수된 로동 계급의 상층, 즉 로동 귀족의 존재이다. 독점 자본은 자기 나라 근로자들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인민들을 착취하여 독점적 초과 리윤을 짜 냄으로써 로동 계급의 상층을 매수하여 로동 귀족을 형성하였다. 부르조아지는 로동 귀족에게 특별한 지위를 만들어 주며 이들이 로동 계급에게서 지지를 받도록 보장하며 이 부분을 토대로 하여 《부르조아적 로동자 당》을 형성한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주구이다.

로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 대렬내의 이러한 계급적 구성은 그에 대한 부르조아적 영향의 강화를 위한 여지를 열어 준다.

현 시기 자본주의 나라들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중 소 부르조아지와의 광범한 동맹과 련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 민주당들과의 협조를 위한 제반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부르조아 이데올로기 특히 개량주의 독소가 공산당들 내부의 일부 불견실한 분자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아직 남아 있는 일부 자본주의적 요소와 국제 제국주의 세력의 사상적 영향이 당내의 일부 소부르조아적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불견실한 분자들에게 반영되여 그들 속에서 일정한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수정주의의 산생은 이상과 같은 사회 력사적 근원으로 하여 력사적 필연성이다. 그것은 각이한 력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과 사상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따라 각이한 형식을 띠고 나타난다. 그러나 그의 본질은 언제나 동일하다.

수정주의는 곧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배반이다. 그것이 공산주의 대렬내의 일부 사람들 속에서 나타날 때에는 사상 리론적 령역에서 다음과 같은 일종의 변성을 일으킨다. 즉 변증법적, 력사적 유물론의 一원론과 과학적 세계관으로부터 속류 유물론과 속류 진화론의 二원론적 절충주의 세계관으로 변성되며 맑스주의 인식론과 방법론으로부터 리탈하여 사물의 운동 과정을 다만 완만하고 점차적인 량적 변화의 과정으로만 즉 비약의 계기를 무시하는 과정으로만 간주하게 된다. 리론적 기초에서의 맑스주의에 대한 배반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령역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투항을 초래케 한다.

수정주의의 공통적인 특징은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우선 외면상으로 맑스주의로 가장하는 데 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맑스주의의 기초를 반대하지 않고 표면상으로는 그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 실지에 있어서는 궤변으로써 맑스주의의 기본 정신을 뽑아 버리며 그리하여 그를 부르조아지에 대해서 무해한 《우상》으로 변성시키려 한다.

또한 수정주의자들은 《실지에 있어서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즉 맑스주의의 완전한 거부. 말에 있어서는 끝 없는 둔사,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며 자기의 리탈을 은폐》(전집, 14권, 8 페지 조선문 판)한다.

《맑스주의를 더욱더 공교롭게 위조하는 것, 반유물론적 학설을 더욱더 공교롭게 맑스주의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것이야말로 현대 수정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상동서 441 페지).

《개개의 경우에 맞추어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그날그날의 사건들과 사소한 정치적 사건의 변천에 순응하는 것, 프로레타리아트의 근본적 제 리익 및 전체 자본주의 제도와 전체 자본주의적 진화의 주요 특징을 망각하는 것, 현 순간의 실제적 또는 가상적 리익 때문에 이 근본적 제 리익을 희생하는 것——이러한 것이 수정주의 정책이다》(레닌 전집 15권, 29 페지 조선문 판).

*   *

그러면 현대 수정주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의 위험성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과거 국제 로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내에 대두한 수정주의와 어떠한 공통성을 갖고 있는가?

현대 수정주의는 우선 첫째로 제국주의 일반, 특히는 미제의 침략적 본질과 반동성을 묵과, 과소 평가하는 데서, 미제를 선두로 하는 국제 반동들에 의하여 준비되고 있는 새 세계 전쟁의 위험성을 과소 평가하는 데서, 그리고 보다 로골적인 수정주의자들에게서 표현되는바 자본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체계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제국주의에 대한 응당한 규탄으로부터 물러 선다면 이는 다만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투항으로 밖에 달리는 될 수 없다.

둘째로 공산당들의 지도적 및 향도적 역할을 부인하며, 맑스—레닌주의 당의 존재를 거부하는 청산주의적 태도에서, 당을 일종의 정치적 토론 구락부로 전화시키려는 시도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카나다 공산당내의 일부 수정주의자들은 로골적으로 당을 《정치적 행동 협회》로 전화시킬 것을 떠벌렸다. 브라질 공산당의 일부 민족주의적 감정을 가진 활동가들도 역시 청산주의적 립장을 가지고 출현하였는바 그들은 현재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부르조아적 립장에 서서 진출하고 있다. 과거 제2 국제당의 수정주의자들도 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켰다. 그들은 혁명적 당을 개량주의적 당으로 변경시켰으며 로동 계급의 선진 부대로서의 당을 보통의 산만한 조직으로 변경시켰다. 그리하여 그들은 당을 프로레타리아트의 조직의 최고 형태로서가 아니라 국회 프락치야의 부속물로 간주하였다.

세째로 계급 투쟁의 기본 원칙을 부인하며 계급들의 협조를 설교하며 생산력 발전의 결과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점차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설교하는 데서 또는 평화적, 의회적, 로동 조합적 투쟁 외에는 주권을 위한 로동 계급의 다른 투쟁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떠벌리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정주의적 경향은 특히 사회 민주주의의 영향이 아직 강하고 자본주의의 발전 수준이 높은 그러한 나라들의 공산당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베른쉬타인, 카우츠끼가 과거에 한 때 고창한 개량주의의 전형적인 복사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장들은 로동 계급의 계급적 의식을 말살하며 그들을 무장 해제하려는 표현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현 시기에 있어서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계급 투쟁에 관한 맑스주의 학설은 《낡아》지지 않았다. 투쟁은 아직도 장기적으로 남아 있다. 그것은 현재 치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네째로 사회 민주주의의 립장에로 전락하고 있는 데서, 공산당들의 강령적 원칙들을 사회 민주당들의 원칙에 접근시키려는 기도들에서, 사회 민주주의자들과의 접촉의 확대라는 구실 밑에 사회 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현재에 있어서 사회 민주당들 내에서 분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각 나라에 따라 사회 민주당들의 정책이 각이하기 때문에 통일적인 사회 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운운한다는

것은 대체로 매우 곤난하다. 사회 민주당 우익에 대해서는 말할 여지가 없으나 좌익에 대해서는 사정이 좀 다르다. 일부 사회 민주당 좌익과 공산당들 간에는 일련의 문제들에 있어 의견상 일치점이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 간에는 근본적이며 원칙적인 의견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사회 민주당의 부인, 초계급적 국가에 대한 사회 민주당의 불가침론,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불가침성에 관한 사회 민주주의적 학설, 계급 투쟁의 거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사회 민주당들과의 공산당들의 협력은 무원칙한 타협이 아니다. 력사적 경험은 사회 민주당들이 혁명적 위기가 조성되였을 때마다 부르죠아지의 편에 섰다는 것을 보여 준다. 례컨대 1919년 웽그리야 쏘베트 공화국이 패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많은 사회 민주당 지도자들이 그 공식적 이데올로기와는 반대로 시초부터 사회주의의 패배와 부르죠아 제도의 복구를 방조한 데 있었다. 1956년 웽그리야에서의 반혁명 폭동 시기에도 사회 민주당의 일부 지도자들은 반역적 역할을 놀았다. 현재 사회 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의 비판의 거부는 바로 그들이 사회 민주주의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 영향하에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다섯째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레닌적 리론의 일반적 의의를 부정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본질을 외곡하면서 그의 두 측면인 독재와 민주주의를 호상 대립시키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다. 그들은 명백히 《절대적 민주주의》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소부르죠아적 무정부주의적 《절대적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근로자들의 전투력과 조직력을 와해하며 무질서의 국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경 기회주의자들이 이 무질서와 혼란을 리용하여 제멋대로 활동하며 자본주의를 복구하려는 것이다.

여섯째로 당 건설의 레닌적 원칙을 수정하는 데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부인하는 데서, 프락치야와 프락치야 투쟁의 자유를 요구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제2 국제당 기회주의자들도 레닌적 당 건설 원칙을 반대하여 당내 규률과 중앙 집권제를 배척하고 극단한 민주주의와 당내의 자치제를 주장하면서 당내 규률과 중앙 집권제를, 당내에 《관료주의적 통치》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궁극적으로 당을 동정자의 집단으로, 무정형한 조직체로 전환시켜 당을 파괴하려는 것이다.

일곱째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을 거부하며 《민족 공산주의》에로 전락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세계 혁명의 중심으로서의 위대한 쏘련의 응당한 지위를 보지 않으려 하며 과소 평가하려 하며 쏘련 공산당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경험이 가지는 보편적 의의를 부인하며 공산당들 간의 련계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하며 그들 간에서 의견상이가 발생 조장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들은 민족적 과업에 대해서는 강조하나 국제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의 당면한 공동 투쟁 과업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이 모든 주장들을 총괄하면 우선 그들이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학설을 압살하며 훼손시키려는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분렬과 사상적 혼란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현재에 와서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이 시간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구체적인 나라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의 보편 타당성을 부인한다. 뿐만 아니라 수정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없는, 사회 생활에 대한 공산당의 지도가 없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들이 실현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이미 맑스주의자들에 의하여 분쇄된 낡아빠진 수정주의적 명제들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력사적 조건의 변화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론거들에 일정한 변화를 주었으나 그의 사상적 본질과 방법론적 기초들은 과거에 국제 공산주의 운동, 로동 운동의 발전에 거대한 손실을 준 로동 계급의 배신자들과 동일하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사상적 선배들인 제2 국제당 기회주의자들은 제1차 세계 대전 시기에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칙들을 완전히 배반하고 마침내 사회 배외 애국주의로 전락하였다. 그들은 모두 자국 부르죠아 정부의 침략적 정책에 복무하였으며 각국 프로레타리아를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제패를 위한 살륙전에 내몰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제 프로레타리아트를 완전히 배반하고 국제 로동 운동에 심중한 손실을 주었다.

현대 수정주의의 길이 어디로 빠져 가는가 하는 것도 이미 실증되였다. 사회주의의 위업과 자기 나라의 민족적 리익을 직접 배반한 임레 나지의 실례는 바로 그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때문에 우리는 수정주의를 반대 극복하는 투쟁을 완강히 전개하여야 한다.

*　　　*

우리 나라에서는 수정주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그것은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인민들의 혁명적 의식이 매우 높으며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에 튼튼히 립각하여 사소한 불건실한 경향도 용서 없이 제때에 극복한 까닭이며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통일 단결을 철석같이 보장한 까닭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적으로 대두한 수정주의적 조류들이 우리 나라에서도 소수 불건실한 분자들에게 일정한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를 전후하여 폭로 분쇄된 최 창익, 박 창옥, 윤 공흠, 서휘, 리 필규, 리 상조, 김 승화 등 일부 반당 종파 분자들이 들고 나온 구호와 행동이 바로 그것을 말하여 준다. 본래부터 종파적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파 행동을 감행해 오던 이자들은 한편으로는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국제 수정주의의 사상 영향에 사로잡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간고한 우리의 혁명 투쟁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적들에게 굴복하는 우경 투항주의에 빠져 들어가 드디여 당과 혁명을 배반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잊지 말고 계속 사상 투쟁을 강화하며 우리 대렬내에서 추호의 동요 분자도 생겨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시기에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이미 산생된 그리고 또 산생될 수 있는 이러저러한 수정주의적 경향들에 대하여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필요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국제 반동들의 진출에 대치하여 자기 주위에 새로운 수억만 대중들을 전취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들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수정주의적 조류는 반드시 극복되고야 말 것이다.

아세아 및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은 현 시기 반식민주의 운동 승리의 담보

김 희 일

최근 10 여 년간에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사변으로 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로 제국주의는 식민지의 대부분에 대한 지난날의 지배를 상실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전야에 약 15억의 인구 즉 지구상 인구의 60% 이상이 식민지 혹은 예속국의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그중 약 14억에 달하는 인구가 식민지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월남 민주 공화국은 식민주의의 쇠사슬을 끊어 버리고 자국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지도하에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들어 섰다. 식민주의 멍에를 벗어 던진 인도, 인도네시아, 애급, 쒸리아, 비르마 및 기타 비사회주의 국가들도 이미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경제적 자립성과 인민들 간의 친선 협조와 평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아직 식민지 및 예속국으로 남아 있는 여러 나라에서도 민족 해방 운동이 고도로 앙양되여 가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붕괴의 최후 단계에 들어 섰으며 아세아 및 아프리카 인민들이 국제 무대에 진출하게 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아세아의 수억만 주민들이 세계 력사의 적극적 요소로 되며 전체 인류의 운명 결정에 참가할 시기는 닥쳐 오리라고 레닌은 말하였다. 그 시기는 닥쳐 왔다. 오늘 우리는 아세아와 전체 동방에서 식민지 체계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가의 증인으로 되고 있다》(불가닌, 흐루쑈브 인도, 비르마, 아프가니스탄 친선 방문 연설 및 공식 문헌 330 페지).

그러나 멸망에 직면한 제국주의는 자기를 파멸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최후 발악의 일환으로써 식민지에 대한 옛 지위를 회복하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자유를 전취한 인민들의 독립적 발전의 길을 좌절시키려 하며 독립을 위한 식민지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려는 책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된 정세는 동방 인민들 앞에 아세아, 아프리카 제국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 이 지역 인민들의 공동 투쟁을 강화할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다.

지난 시기 동방에서 발생된 모든 심각한 력사적 변화와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완전한 청산을 향하여 발전하고 있는 현 정세는 사회주의의 세계적 체계가 위력하게 장성 발전한 기본적 요인과 더불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동방 인민들의 련대성의 급속한 강화라는 또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 바로 이로부터 아세아 및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과 협조를 공고히 하는 것은 현 시기 반식민주의 운동 승리의 담보이라는 결론이 흘러 나온다.

력사적 반둥 회의의 직접적 계승으로서 지난해 12월 카이로에서 진행된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회의는 세계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당면한 투쟁에서 광대한 이 지역 인민들의 힘을 가일층 굳게 단합할 단호한 결의를 표명함으로써 인민들의 반식민주의 공동

투쟁을 강화함에 있어서 새로운 력사적 도표(道標)로 되였다.

＊ ＊

제국주의의 식민지 체계란 것은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 체계의 예속적 구성 고리로 전화된 모든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때문에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붕괴된 허전에서 재생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현재 각이한 사회 제도와 각이한 경제—문화적 발전 단계와 각이한 내외의 각종 정치, 경제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이 나라들의 단결과 협조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조건으로는 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애급 공화국 선포 4주년에 제하여 나쎄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전문에서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공동 투쟁은 《인민들 간에 력사적으로 존재하는 공통성》에 기초하여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였다. (《로동 신문》 1957년 6월 18일부) 그러면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공동 투쟁을 기초 짓고 있는 력사적으로 존재하는 공통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아세아, 아프리카 식민지 및 반 식민지 인민들이 례외 없이 식민지적 착취의 대상으로 되여 왔으며 자유와 독립을 위한 그들의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 탄압의 대상으로 되여 왔다는 공통성이다.

《본질에 있어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해당 국가들에서의 제국주의 국가의 부르죠아 독점에 의한 경제적 압박 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 외적 강제에 기초한 체계이다》(《1919년, 1932년 국제 공산당 문헌집》 338—339 페지). 독점이야 말로 모든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을 노예화하는 기초이며 독점체들의 초과 리윤이야 말로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을 규정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된다. 독점체들의 방대한 초과 리윤의 원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들의 생산력 발전을 저애함으로써 자립적 발전의 가능성을 박탈하고 경제적 락후성을 운명짓게 하였다.

식민지 착취를 당한 나라들이 자기 경제의 강력하고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의 경제적 발전이 얼마나 뒤떨어졌는가 하는 것은 아래의 사실에 의해서 능히 알 수 있다. 인구 수에 있어서 자본주의 세계 주민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식민지 체계에 포괄되였던 나라들이 1950년에 자본주의 나라들의 전체 공업 생산량 중에서 5%를 생산한 데 불과하였다. 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을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인구 1인당 생산량에 있어서의 이전 종주국과 식민지 간의 아래와 같은 대비는 식민지적 압박의 후과에 대한 일반적 정형을 시사하여 준다.

	미국	비률빈	영국	인도	화란	인도네시아
인구 1인당 생산량 (단위딸라)	1,453	44	773	57	502	25
백분비	100	3	100	7.4	100	5

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동방 제국에서 참을 수 없는 경제적 후과를 비저냈을 뿐만 아니라 노예적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인민들의 정당한 지향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되는 힘으로써 무자비한 징벌과 탄압을 가하였다. 력사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피의 세례를 받지 않은 어느 한 반제 해방 투쟁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의 진리성은 오늘날 알제리아, 오만, 카메룬, 이프니, 싸이프러스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방 투쟁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 폭압에서도 확증을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력사적으로 형성되였으며 현실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는 불구대천의 원쑤—제국주의에 대한 동방 인민들의 공통적 증오를 야기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제국주의는 국가적 독립을 쟁취하고 독립적 발전의 길에 들어 서고 있는 동방의 여러 나라들이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식민지 통치의 악독한 후과인 경제적 락후성을 가시기 위한 당면한 투쟁을 저지시키려고 함으로써 그 나라들의 한결같은 반제국주의적 지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인도네시아 해방 운동의 지도자인 수카르노는, 정치적 독립은 자유와 사회적 진보로 나아가는 《황금의 다리》이며 이것이 없이는 《제국주의의 기반을 철저히 분쇄할 가능성》이 없다고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동시에 수카르노가 자립적 경제를 못 가진 조건하에서는 독립의 열매를 옛 지배자들에게 빼앗기여 《인민들의 손에 〈껍질〉만이 남지 않도록》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수카르노 《인도네시아는 단죄한다》 207—211 페지). 그것은 정치적 독립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되기는하나 정치적 독립 자체로서만은 아직 완전한 독립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 후진 국가로 남아 있는 동방의 여러 나라들은 독립 후 자주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길에 들어 서고 있다. 이 나라들 중의 많은 나라들은 민족 경제의 발전 특히는 현대적 공업의 창설을 목적하는 장기적 경제 발전 계획의 수행에 착수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1951년—1956년)에 공업 생산이 25%, 농업 생산이 20%로 각각 증대되였다. 1956년에 채택된 제2차 5개년 계획(1956년—1961년) 기간에는 중공업의 발전을 위한 훨씬 큰 지점이 창설될 것이다. 비르마에서는 새로운 경제 발전의 4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네팔에서도 5개년 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애급에서는 경제 발전의 5개년 계획과 20 년간의 전기화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1955년부터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 작성되여 자립적 경제 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에는 식민주의 기반에서 해방된 국가들이 농업,운수 및 다른 경제 부문 제고와 동시적으로 나라의 공업화의 실현을 위한 그들의 념원이 표현되여 있다.

또한 이 나라들은 자주적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써 자국 인민 경제의 관건적 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외국 자본과 외국 독점체들의 특권들을 구축 청산하기 위한 대담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애급에 있어서의 1956년 7월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 1957년 1월 외국인 은행 및 상사들의 국유화와 인도네시아에서의 1957년 12월 화란인 대은행 및 기업소들의 접수 등이 그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과거의 식민지 및 반 식민지들에서의 공업 발전을 불과같이 무서워하면서 이 과정을 필사적으로 가로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식민주의자들 자신이 이 과정이 가지는 참된 의의를 잘 리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동방 국가들에서의 민족 경제의 발전을 방해하여 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는바 그 중 특징적인 것의 하나는 이 나라들에 자기의 《원조》를 제기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치적 및 경제적 제 요구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제국주의 렬강이 자기의 《원조》에다 정치적 부대 조건을 붙이는 명백한 실례로 되는 것은 애급의 아쑤안 땜 건설에 참가함에 있어서 그들의 태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 영 량국 정부와 국제 부흥 및 발전 은행은 1956년 중엽에 애급에게 아쑤안 땜 건설을 위한 차관을 제공할 것을 수락하였었다. 그러나 그후 이들은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이 건설에서 참가를 거부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애급 대통령 나쎄르는 1956년 7월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군사 쁠럭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했다 하여 또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제 국가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투쟁한다 하여 애급을 처벌하려 하였다》.

이것은 일례에 불과하다. 바로 이와 같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흉계가 동방 인민들의 반제국주의적 지향을 더욱 강렬하게 하며 그 나라들로 하여금 쏘련과의 밀접한 경제적 협조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고 있다. 최근 시기에 와서 미국의 관변측에서까지도 아세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서구라파로부터의 침해의 위험성에 관하여서》는 경종을 울리면서도 《경제적 및 정치적 외교에서의 쏘련의 방침은 뚜렷한 만족감으로써 대하고 있다》고 비관에 잠겨 사태를 모사하고 있는 것은 동방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더

증대되고 인민들의 분격과 증오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의 반영인 것이다.

동방 국가들의 경제적 락후성을 유지하려는 지난날의 자기들의 정책을 변경시키려 하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의 립장으로 말미암아 아세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앞에는 쏘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와 신생 동방 국가들간에 호상 리익의 준수 및 내정 불간섭에 기초한 경제적 협조를 강화하여야 할 필연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국주의는 동방의 신생 주권 국가들의 독립을 침해하며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를 강요하려는 책동을 강화함으로써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의 련대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제국주의는 오늘날 동방 인민들의 민족적 자주권을 침해하면서 식민지 제도의 최후적 붕괴 과정을 저지시키려고 날뛰고 있다. 미제는 우리 나라의 남반부를 계속 강점하고 있으며 중국 령토의 일부분인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으며 남부 월남에도 힘으로써 식민주의를 부식하고 있다. 화란 제국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아 국토의 일부분인 서부 이리안을 강점하고 있으며 포도아는 인도의 령토인 고아의 해방을 거부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에즈 운하 회사를 국유화한 애급의 합법적 조치에 대한 반응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공공연한 무력의 행사로써 독립 국가의 주권을 전복하려는 기도를 감행하였었다. 이미 조선 전쟁에서의 준엄한 력사적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은 물에 빠진자가 짚 검부러기를 붙잡는 격으로 최근 년간에 다시금 인류 력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오물인 식민주의 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1956년 10—11월 영, 불 제국주의자들의 애급에 대한 무력 침공, 1956년 말—1957년 초에 걸친 예멘 국경에 대한 영국의 무력 침범, 1957년에 들어 와서 격화된 씨리아를 반대하는 미제의 전쟁 음모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아무런 성과도, 리득도 얻지 못하였다.

거듭되는 패배의 수치스러운 경험에서 식민주의 렬강 지배층은 현 정세하에 자유와 독립을 위한 동방 인민들의 지향에 대한 무력적 탄압으로써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반(反)식민주의》라는 허울 좋은 간판 밑에 식민주의 정책의 보다 음폐되고 교활한 수'법의 적용에 몰두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세아토, 바그다드 조약과 같은 군사 쁠럭과 쌍무적 군사 협정들인바 그것들을 조작함으로써 일련의 동방 국가들을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서구 렬강에게 예속시키며 그 나라들을 식민지적 팽창의 대상으로 또는 그 나라들의 독자적인 정책을 침략 정책의 도구로 전변시키고 있다.

소위 《원조》도 이 정책에서 광범히 적용되고 있는 식민지 예속의 방법의 하나로 되고 있다. 《원조》의 군사적 성격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원조》의 미명하에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식민주의적 야망을 잘 증명하여 준다. 그들의 《원조》에서 군사적 측면이 다대한 반면에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로 충당되는 부분은 불과 원조 총액의 10—15%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적 원조》도 타국 내정에 간섭하는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

《새로운 식민주의》의 집중적 표현으로 되는 것은 악명 높은 《아이젠하워주의》이다. 《아이젠하워주의》는 애급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영, 불이 패배한 결과 중근동에 조성된 소위 《진공》 상태를 메꾸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독점적 지배를 달성하려는 것을 주되는 목적으로 내세웠다. 지난 1 년간 아랍 동방에서 벌어진 사변들은 《아이젠하워주의》의 이러한 강도적 본질을 여실히 폭로하여 주고 있다. 1957년 4월 요르단에서의 애국적 나불시 내각의 전복, 그에 뒤이은 씨리아를 반대하는 침략적 음모, 아랍, 이스라엘간의 충돌 선동 등등과 같은 것이 행동화한 《아이젠하워주의》이다.

최근 시기의 정세는 낡은 식민주의를 대치하여 새로운 식민주의의 멍에를 남의 나라에 강요하기 위하여 공개적 또는 음폐적 형태의 온갖 발악적 책동을 다하고 있는 미제와 그[illegible]

견결히 항거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 간의 투쟁이 첨예화되고 있음을 하나의 특징으로서 보여 주고 있다.

사태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에 대한 제국주의측으로부터의 위험성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이 위험성은 세계 반동의 중심이며 인류의 흉악한 원쑤인 미제가 오늘날 세계에 조성된 새로운 력량 관계를 무시하고 분별 없이 인민들에 도전하여 나섬으로써 더욱더 엄중한 것으로 되고 있다. 미국은 전 력사적 발전 행정에 의하여 식민지 체계가 불원간 멸망하리라는 것이 판명된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체계의 주되는 지주로 나타났다. 미제는 식민주의의 주되는 괴수이다. 따라서 미제는 아세아, 아프리카 모든 나라의 민족적 독립을 위협하는 가장 간악한 공동의 원쑤이다.

현 시기 민족적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국내 괴뢰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련대성을 강화할 것을 더욱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제국의 공동 투쟁을 강화시키는 마지막 요인으로 되는 것은 평화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의 이 나라들의 견해와 리해 관계의 공통성이다.

식민지 멍에로부터 해방된 아세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사회주의 체계에 포괄된 나라들과 함께 광대한 《평화 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도, 비르마, 인도네시아, 애급, 씨리아 및 기타 일련의 나라들이 평화와 국제적 협조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자주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1954년에 주 은래 총리와 네루 수상의 공동 성명에서 선포된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이 이 나라들 간의 국제 관계의 기초로 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이 나라들의 사활적인 근본적 리해 관계에 의하여 조건지어 지는바 이 나라들은 평화의 조건하에서만 민족적 독립을 보장하며 자국의 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평화만이 이 나라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계층이 실시하고 있는 전쟁 정책은 아세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에 결정적 위험성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의 리해 관계의 견고한 공통성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공동 투쟁의 불가분리의 구성 부분으로 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제 사실은 아세아, 아프리카 제 인민간에는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력사적으로 존재하는 투쟁 목적과 리해 관계의 공통성이 실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공통성이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동방 여러 나라들의 현 시기 반식민주의 운동과 평화 옹호 투쟁에서의 단결과 협조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 *

《반둥의 정신》으로서 불리워지는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동방 인민의 단결과 협력의 정신은 우에서 본 바와 같은 력사 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또 그것은 력사의 진보적 발전에 대하여 더욱더 증대되는 긍정적 역할을 놀고 있다. 1955년에 있은 아세아 및 아프리카 제국의 반둥 회의로부터 작년말의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회의에 이르는 기간 동방에서 진행된 제 사변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이 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단결된 력량이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실증하였다.

1956년 이후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발광적 깜빠니야와 보조를 맞추어 식민지 전쟁의 도발로부터 시작하여 경제적 및 군사적 《원조》라는 기치 밑에 주권 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간섭까지에 이르는 다양한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동방 제 인민의 평화와 민족적 독립에 일대 위혁을 조성하였다. 특히 애급과 씨리아는 제국주의자들의 공

격의 초점으로 되였다. 간고한 시련의 시기에 이 나라들이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수호한 중요한 힘의 원천의 하나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련대성이였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이 진영의 지지에 의거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동방 인민들의 애급과 씨리아를 지지한 정의의 공동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모험을 파탄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로 되였다. 작년에 발생한 사변들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단결과 련대성만이 제국주의가 동방 인민들의 력사적 발전을 뒤로 돌릴 수 없게 하는 담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고무적 교훈은 제국주의와의 공동 투쟁에 대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드높은 결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침략자들은 패배하였으나 새로운 침략의 위험성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최후적 청산과 동방 제국의 민족적 독립의 완성을 위한 제 과업의 실현은 아직도 장래에 속하고 있으며 아세아에서의 평화도 종국적으로 공고히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세는 반식민주의 운동에서 제 인민의 단결의 새로운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카이로 회의는 조성된 현 정세의 성숙된 제 요구에 기초하여 반식민주의와 평화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에 있어서 취할바 근본적인 립장과 그를 위한 일련의 중요한 공동적인 행동 강령을 결정하였다.

우선 이 력사적인 카이로 회의에 모인 모든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대표들은 반둥의 정신—평화적 공존 원칙의 정당성을 재확인하였으며 그를 더욱 발전시키며 고수할 데 대한 일치한 념원과 결의를 표명하였다. 전 세계 인민들에게 보내는 자기들의 선언서에서 모든 대표들은 《1955년 4월에 반둥에서 채택된 제 원칙은 반드시 국제 관계의 기본으로 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카이로 회의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는 국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히 해결을 요하는 평화 유지 공고화에 대한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집중한 것은 군비 축소 문제이며 특히 원자 수소 무기의 사용 및 시험의 금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는 모든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을 대표하여 《아세아 및 아프리카는 반드시 핵 및 로케트 무기가 없는 평화 지대로 되여야 한다》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카이로 회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여기서 모든 대표들은 어떠한 형식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라도 허용치 않을 것을 결의하였다. 채택된 결의문에는 나토, 세아토와 같은 군사 뿔럭, 《아이젠하워주의》, 타국의 내정 간섭들과 남조선을 포함한 많은 타국 령토상의 외국 군대 주둔을 반대하는 아세아 및 아프리카 인민들의 규탄이 훌륭히 반영되여 있다. 력사적인 카이로 회의는 자국의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하여 공동적으로 진출할 것을 결정하였다.

카이로 회의는 유엔에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합법적 권리의 시급한 회복, 몽고 인민 공화국의 유엔 가입 등이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대표들은 인종 차별 금지를 포함한 일련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정당한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동시에 앞으로 아세아 및 아프리카 인민들이 국가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한, 특히 민족 경제 문화를 발전 개화시키기 위한 호상 협조를 강화할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카이로 회의에서 이상 제시된 제 과업의 실현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공동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 시기에 있어서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공동 투쟁의 강화는 동방 제국의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그 나라들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시키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의 공고화에 중요하게 이바지하며 멸망하여 가는 제국주의 진지에 증대되는 타격을 줌으로써 인류의 진보적 발전에 거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평화와 독립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과 련대성이 동방 제국을 《전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발전에 들어서게》 (웨. 이. 레닌 전집 33권 457 페지)하고 있는 바로 여기에 이 력사적 공동 투쟁이 인민들의 운명에 대하여 미치고 있는 진보적 영향의 가장 중요하고 주되는 총화가 있다.

지금 세계는 평화와 사회주의 력량의 결정적 승리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 섰다. 굳게 단합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력사적 전진을 가로막을 그런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앞으로 력사는 수치스러운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완전한 청산의 날을 과시할 것이다.

* *

조선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의하여 가장 혹독한 피해를 받은 민족의 하나이다. 때문에 조선 인민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를 반대하여서는 물론이였거니와 미제의 야수적 침략을 반대하여 영웅적인 피의 항쟁을 계속하여 왔다. 조선 인민은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모든 아세아 및 아프리카 인민들과 굳게 단결되여 있다.

우리 조선 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자기의 투쟁의 예봉과 경험으로써 또한 정치 도덕적 성원으로써 전체 아세아 및 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세아 및 아프리카 인민들도 우리 조선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강력한 성원을 보내고 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국제적 성원들은 우리 조선 인민이 자기 앞에 제기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력사적 과업 실현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조건으로 되여 있다.

아세아 및 아프리카 안민들의 조선 인민에게 주는 성원은 여러 국제적 회합들에서, 특히 40 여 개국 인민 대표들이 참가한 카이로 단결 대회에서 훌륭히 표현되였다. 카이로 회의는 조선의 통일이 외부로부터의 강제 없이 조선 인민들 자신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며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하며 조선 정전 협정이 엄격히 준수되며 정전이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되여야 한다는 조선 인민의 요구를 견결히 지지하였으며 또한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관 국가들의 회의가 즉시 소집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남북 조선 당국들이 호상 직접적 접촉을 가질 것을 권고한 사실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과 그의 실현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이 모든 아세아 및 아프리카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힘 있게 확증한 것으로 된다.

조선 인민과 전체 아세아 및 아프리카 인민들은 공동의 적인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는 공동 전선에서 굳게 단결되고 있으며 나날이 그의 친선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협조에 의거하고 있는 조선 인민의 전도에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을 것이다.

농촌 신용 협동 조합 조직 지도에서의 몇 가지 문제

최 윤 수

농촌 문제의 정확한 해결은 우리 당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 총농가 호수의 95.6%가 협동화됨으로써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한 농촌 경리의 소상품적 생산 관계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로 교체되는 근본적 변혁이 거의 완수되였으며 농촌 류통 분야에서도 사회주의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지금 농촌 신용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문제는 우리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며 당의 농촌 진지를 가일층 강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농촌을 완전히 사회주의화 하자면 농업을 협동화하고 소비 류통 분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만으로써는 부족하며 재정 금융을 포괄하는 농촌 경제 생활의 전체 령역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에 의하여 농업 협동화 운동에서 달성된 결정적 승리는 농촌 생활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같이 농촌 금융 사업에서도 새로운 전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매 단계에서 정확한 농촌 금융 정책을 수립하고 그의 정확한 실천을 보장하여 온 우리 당은 오늘 농촌에 조성된 새 환경과 조건에 적응하게 농촌 신용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즉 한편으로는 농민 은행을 국립 농업 은행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리들에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을 조직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를 조직 실시할 데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을 조직하여야 할 필요성은 어데 있는가.

농촌 경리의 협동화가 거의 완성되였으며 농촌이 완전히 사회주의적 농촌으로 전변된 결과 오늘 농촌에서는 대부금 규모에서의 현저한 증대와 장기 대부 비중의 체계적인 장성을 가져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본 과업으로 하고 있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부터 출발하여 알곡 생산의 선차적인 장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축산, 과수, 공예 작물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농업의 기계화, 관개 건설, 농촌 문화 건설 등이 모든 거대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더욱 방대한 자금 공급과 그를 통한 재정적 통제 사업을 강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 농촌의 현 실정은 광범한 농민 대중의 실생활 속에 신용 사업을 더욱 접근시킴으로써 농촌의 여유 화폐를 적극 흡수하여 농민들의 개별적 생활에서 수요되는 자금을 호상 방조의 원칙에서 적시에 해결하며 극히 부분적이나마 아직 농촌에 잔존하고 있는 고리대적 착취 현상을 근절하고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킬 것을 중요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바로 현실은 농촌 금융 분야 앞에 두 가지 기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 이것은 현존 농민 은행 체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과업이다. 여기에 농촌 신용 협동 조합 조직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실지에 농촌 신용 협동 조합들의 조

직은 어떠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인가.

농촌 경리를 더욱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은 날이 갈수록 훌륭한 열매를 맺고 있다. 오늘 우리의 절대 다수 농민들은 현물 및 현금 수입에서 많은 여유를 가지게 되였으며 그들의 생활은 향상 일로를 걷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농업 협동화의 력사가 아직 짧으며 부분적으로는 전쟁의 혹심한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 등 원인으로 말미암아 일부 농업 협동 조합원들과 개인 농민들의 생활에서는 일시적이나마 자금상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부업 자금, 결혼, 질병 기타 유사시에 자금을 지원 받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 농업 협동화가 승리하였으며 협동 경리의 우월성에 의하여 농업 협동 조합의 경제적 토대가 공고화되였으며 농민들의 생활 수준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하에서도 역시 그들에 대한 자금 융통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물론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일부 곤난한 조합원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현물 및 현금의 전불을 통하여 일시적인 방조를 주고는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써 그들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도저히 없다. 바로 이러한 틈을 타서 일부 건전치 못한 부유한 층들이 엄청난 고률의 리자를 지불 조건으로 하는 현금 및 현물 대여를 통하여 아직 경제력이 약한 농민들을 착취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농민들의 여유 자금을 동원하는 저축 사업과 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대부하여 줄 수 있는 농민들 자체의 신용 기관인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을 조직한다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농민들의 실생활에서 매우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조치로 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나라 일부 농촌에서 부분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고리대적 착취 현상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며 농촌의 부업 생산을 적극 강화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자금 문제를 제때에 충족시킴으로써 그들의 물질 문화적 생활을 가일층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다.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의 조직은 또한 농업 협동 조합들의 공동 경리를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

즉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의 조직과 그의 강화 발전은 금후 농업 협동 조합들의 불분할 폰드를 비롯한 공동 경리에서의 현물 및 현금을 개별적 조합원들에게 가불하는 등 비정상적인 전불을 현저히 축감시킴으로써 조합 재정의 계획적인 관리 운영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은 농민들의 여유 화폐를 광범히 동원하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의 자금 원천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은행 체계의 지도하에서 화폐 류통 조절을 원활히 보장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여를 한다.

또한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의 조직은 농민들 속에서 호상 방조의 미풍을 배양하며 그들을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교양함으로써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얻은 승리를 확대 강화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작용을 놀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농촌 신용 협동 조합들의 조직과 그의 강화 발전은 우리 농촌에서 생산과 소비 류통 및 금융 신용 부문을 포괄하는 전 분야에서의 사회주의의 전면적이며 종국적인 승리를 가일층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 *

우리 나라에서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을 조직하여야 할 상술한 바와 같은 필요성과 의의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우선 농민들의 자각적 열성에 철저히 의거하면서 일부 지방들에서 경험적으로 조합을 조직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당 농업 정책의 정당성과 당의 정확한 지도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우리 나라 농민들은 농촌 신용 협동 조합 조직에 관한 우리 당의 방책을 열렬히 지지 환영하여 나섰으며 이 사업은 매우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작년 10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이미 조직 사업이 진행된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대상자의 약 95%에 해당하는 약 40만 명의 농민들이 조합에 가입하여 100 여 만 구수의 출자금을 조성하였다.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을 자기 자신들의 믿음직한 협동 단체 신용 기관으로 간주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여 나선 절대 다수 농민들의 비등된 열의는 출자금 조성에서 여실히 표현되였는바 전국적으로 3—5구 출자자가 전체 가입자 수의 약 절반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들에서는 이 사업을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증산 절약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즉 농촌 부업 생산을 광범히 조직하여 얻은 수입으로 출자금을 납부하는 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였는바 평북도 대관군, 강원도 판교군을 비롯한 일부 군들에서는 산채, 약초 등을 채취하여 얻은 수입으로 이미 출자금 전액을 완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원된 농민 대중은 농촌 내부에 잔존하고 있던 일부 고리대적 착취자들을 폭로 규탄하는 계급 투쟁을 전개하면서 과거에 고리대적 조건으로 이루어졌던 대차 관계를 폭로하고 원금 상환을 요구하여 나섰으며 농촌 신용 협동 조합 관리 기관에 잠입하려는 고리대적 착취자들을 폭로 규탄 배격하였다.

금번 진행된 농촌 신용 협동 조합 조직 사업에서의 이러한 첫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그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의 조직이 오늘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적 제 조건에 적응한 가장 정당한 시책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의 조직——이것은 실로 수백만 농민들의 실생활이 제기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요구이다. 우리는 이를 조직함으로써만 농촌에서의 착취의 마지막 흔적마저 청산하고 농민들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의 조직은 인민 생활의 부단한 개선 향상을 지향하는 우리 당의 정당한 시책의 하나로 된다.

이 사업의 조직 진행과 관련하여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강화 발전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가 비단 농촌에서 경제적 제 조건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 대중의 사상 의식 속에도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오늘 우리의 절대 다수 농민들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자들이였던 어제'날의 농민들이 아니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농촌에서 새 방식으로 사고하며 생활하는 사회주의적 농민이다.

사회주의적 사상은 절대 다수 농민들에게 파악되여 이미 거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되였으며 오직 당의 지도하에서의 협동화의 길만이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과 자기 조국의 무한한 번영 발전을 약속하여 주는 유일한 길이며 광명의 대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농업 협동화에서 이 길의 정당성을 인식하게 된 우리 농민들은 농촌 신용 협동화에 있어서도 아무런 주저와 동요 없이 우리 당의 의도와 그의 정당성을 옳게 리해하고 적극 환영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 사실은 금번 진행된 농촌 신용 협동 조합 조직 사업을 단시일 내에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 기본 요인으로 된다.

그러나 금번 조직 사업 행정에서는 또한 일부 결함들도 없지 않았다.

일부 당 단체들과 정권 기관들은 농촌 신용 협동 조합 조직의 필요성과 그의 정치, 경제적 의의를 농민 군중 속에 충분히 해설 침투시키기 위한 정치 사업을 강화할 대신에 이 거대한 군중 운동을 조합 조직 준비 위원회에

만 일협하고 다만 행정적 방법으로 덮어놓고 주금만 많이 조성하게 하려고 조급하게 서둘렀으며 또한 조합 조직 준비 위원회도 조직 사업을 실제적으로 방조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이 미약하였던 결과 일부 지방들에서는 응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농촌 신용 협동 조합 조직 사업에서 얻은 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금후 우리 나라 농촌의 전 지역에서의 전면적인 조직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과 일정한 경험을 주고 있다.

때문에 당과 정부는 이미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금년 3월 말일까지 공화국 북반부의 전 지역에 걸쳐 그 조직 사업을 완료할 것을 결정하였다.

*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나라 농촌 신용 협동 조합 조직 사업에서 일정한 경험을 얻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나라 농촌 신용 협동화 운동의 첫 출발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당면한 전국적인 조직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이미 조직된 조합들을 조직—경제적으로 공고화하는 문제이다.

그러면 이를 위하여 당 단체, 정권 기관, 농민 은행 및 농촌 신용 협동 조합 조직 준비 위원회 앞에 당면 제기되는 주요 임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지난 번 조직 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충분히 살리면서 3월 말까지 전면적인 조직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과 사업 조직을 취하는 문제이다.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이번 조직 사업에서 우리가 반드시 류의하여야 할 몇 가지 기본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조합 조직 사업에서 농민 대중의 자각된 열성을 동원하기 위한 정치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협동 단체 조직 건설 사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농촌 산용 협동화 운동——이것은 수백만 농민 대중을 동원하는 하나의 거대한 군중 운동이다.

농민 대중이 농촌 신용 협동화에 관한 우리 당의 정책을 명백히 리해하고 그의 우월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경우라야만 우리는 조직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 신용 협동 조합 조직의 필요성과 그 정치, 경제적 의의를 농민 군중 속에 계속 부단히 참을성있게 해설 침투시키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난날 사업에서의 경험은 충분한 정치 사업이 보장된 조건하에서 대중의 각오 정도를 고려하면서 조직 사업에 착수한 곳에서는 조합이 단시일 내에 성과적으로 조직되였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출자 참가 비률도 현저히 높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반면에 대중을 사상적으로 동원하는 정치 사업을 불충분하게 진행하고 다만 조급하게 조합 가입 사업을 서두른 조합들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조건하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합원 1인당 출자 규모에서 특히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

례하면 문덕군, 숙천군과 같은 부유한 지대를 포괄하고 있는 평남도의 조합원 1인당 평균 출자 규모가 2.2구인데 이보다 경제적 조건이 못한 함북도는 3.2구, 량강도는 2.4구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군과 군, 리와 리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일부 지방들에서는 유리한 경제적 조건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한도의 출자금을 조성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조합 조직과 관련한 정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어데까지나 농민 대중이 조합 조직에 대한 정당한 리해와 옳은 인식을 가지고 자각적으로 동원되며 그들이 자원하여 규정된 범위내에서 많은 출자금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참가하도록 조직 지도하여야 한다.

둘째로 조합의 자금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을 조성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조합 조직 사업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조합의 자립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된다.

조합의 대부 자원은 원칙적으로 자체가 조성한 자금에 의거하여야 한다.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의 자체 자금이란 조합원들의 가입금과 출자금으로 형성되며 분배 결산에 의하여 축적된 공동 축적금이 이에 포괄된다.

조합원들로부터 흡수한 저금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조합의 대부 자원으로 충당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조합원들의 출자금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출자금을 조성하며 일단 조성된 출자금을 제때에 수납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대부적 요구에 적시에 현실적으로 순응할 수 있는 자금적 토대를 확립하여야 한다.

지난날 일부 조합들에서와 같이 조합이 처한 구체적 조건들을 타산함이 없이 농민들의 자연 발생성에 의하여 출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조합 활동상 응당 필요한 자금을 능히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원하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다시 반복되여서는 결코 안된다. 금번 조직 사업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타산 밑에 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자원성을 엄격히 고수하는 원칙에서 자체 경제 활동에 필요한 한도의 자원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단 조성된 출자금은 업무 활동 개시 전에 적극 수납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조합을 조직하여 놓고도 빈 금고를 붙안고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평안남도의 대동군을 비롯한 5개 군에서의 시범적인 조직 사업에서 근 1억원의 주금을 조성하여 놓고도 불과 그의 16%에 해당하는 자금만을 가지고 업무 활동에 착수함으로써 결국 일부 조합들이 자금의 고갈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때문에 주금 수납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반드시 소정 기일내에 전액 수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주금 수납에 있어서 량곡 수매 사업이 끝난 후에 주금을 받을 것을 기다리거나 어떤 뭉치'돈이 생기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기 지방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한 각종 농촌 부업 생산에서 얻은 수입으로 주금을 납부케 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로 농민 군중 속에서 위신과 신망이 있으며 능력 있는 일'군들로 조합 관리 일'군 및 부기 일'군들을 선발하며 특히 부기 일'군들의 실무 기술적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조합의 조직—경제적 공고화 문제가 관리 일'군들의 사업 수준 여하에 크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급 당 단체들은 농촌 신용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군중들과 의논할 줄 알며 실제적으로 조합 활동에 참가할 수 있고 대중의 신망을 받는 믿음직한 일'군들이 선발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금번 조직 사업에서는 부기 일'군들을 선발하여 사전에 양성하게 되여 있는만큼 각급 당 단체들은 책임적으로 이 사업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부기 일'군 선발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문제의 하나는 그들을 전임 일'군으로 하느냐 겸임 일'군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물론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의 규모 및 조합의 독립 채산의 가능성 여부 등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조합 사업이 적은데 전임 일'군을 두어 로력과 조합 재정을 랑비하는 등 비경제적 현상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일부 도들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고려함이 없이 무원칙하게 부기원들을 선발 배치하였다.

가령 황해북도를 례로 본다면 전체 조합의 43%에 해당하는 조합들이 80만원 이하의 출

자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적은 조합들로서 그 대부분이 독립 채산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부가 전임 일'군을 배치하였다.

반대로 강원도에서는 조직된 87개의 전체 조합에 모두 겸임 일'군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앞으로 경영 활동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다시 고려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험은 아직 조합의 경제적 토대가 공고하지 못한 조건하에서는 우선 겸임 일'군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농업 협동 조합이 일정한 사업 분공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미 조직된 조합들과 앞으로 조직될 농촌 신용 협동 조합들을 조직—경제적으로 공고화하는 문제이다.

이미 조직된 조합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조합 사업에서 민주주의적 사업 질서를 확립하며 조합원 대중의 주인다운 열성과 책임성에 의해서 조합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은 농업 협동 조합 또는 소비 협동 조합과 마찬가지로 근로 농민 대중의 민주주의적 의사에 의하여 조직된 대중의 협동 단체이다. 그러므로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대중이며 조합의 일체 활동은 조합원 자신들의 총의에 의해서 진행되여야 한다. 조합의 관리 운영 사업에서는 결코 조합 관리 일'군들의 독단이 허용될 수 없으며 조합원 대중들의 창발적인 의견이 조합 관리 사업에 적극 반영되고 조합의 재정 상태와 화폐 수지 발란스는 수시로 조합원들 앞에서 공개되여 조합원 대중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규약상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인식시키며 그들이 자기의 규약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면서 조합 사업에 주인다운 태도로 참가하도록 되여야 한다. 조합 관리 위원회나 검사 위원회들도 자기 활동을 철저하게 규약상 원칙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때문에 그들 속에 계속 부단히 조합의 규약을 해설 침투시키는 사업은 극히 중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조합의 업무 활동을 조합의 규약과 업무 규정에 철저히 립각하여 정확히 보장하는 것이다.

조합의 업무 활동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대부 사업이다.

조합은 정확한 대부 조직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부업 생산, 결혼, 장례, 질병, 자녀 교육 기타 생활에서 요구되는 자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생활을 일상적으로 료해하는 문제인바 조합원들의 생활을 깊이 료해함이 없이는 대부의 정확성과 계획성을 보장할 수 없다. 조합 관리 위원들과 신용 분조장들은 자기 지역내의 조합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여 그들의 곤난과 애로를 료해 파악하고 그들이 요구할 때에는 제때에 대부해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는 반드시 관리 위원회의 집체적 토의에 의해서 진행되여야 하며 결코 개별적 관리 일'군들 즉 관리 위원장이나 부기원의 독단적 의사에 의해서 함부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합의 업무 활동에서 중요한 사업의 다른 하나는 저금 사업이다.

오늘 농촌에는 량곡 수매 자금을 비롯하여 기타 농산물 수매 자금으로 방대한 화폐 자금이 방출되고 있으며 많은 화폐적 여유를 가지게 된 농민들의 저축 열의는 비상히 제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 신용 협동 조합들은 농민들의 저금을 적극 흡수하는 한편 지불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농민들이 문자 그대로 자기들의 여유금을 수시로 맡겼다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민활하고 기동적인 사업 조직이 보장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들은 사소한 현금이나마 사장 랑비함이 없이 조합에 저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계획적으로 조직하도록 방조하는 것으로 될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자원을 조성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실로 조합의 대부 및 저금 사업을 옳게 조직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합이 조합원들의 신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와 직접 련결된다. 왜냐 하면 조합의 기본 임무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조합 조직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가 또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농촌 신용 협동 조합들의 조직—경제적 공고 발전을 위하여 당, 정권 기관, 농민 은행 및 조직 준비 위원회들은 조직된 조합들에 대한 지도 사업을 강화하여 실제 업무 활동에서 계속 보다 많은 경험들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 준비 위원회들은 조합 조직 사업이 끝났다 하여 해체하거나 조합 지도 사업에서 물러 설 것이 아니라 계속 준비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통하여 조합들의 주금 흡수 수납 사업과 부기 계산 사업을 지도하며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급 당,정권 기관,농민 은행 및 준비 위원회들은 조합 조직 사업에서나 관리 운영 사업에서의 경험들을 분석하여 호상 통보 연구함으로써 당면한 전국적인 조합 조직 사업을 위한 준비 사업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상술한 데로부터 출발하여 당 단체들 앞에 제기되는 과업은 지난날의 조직 사업에서 얻은 경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의 조직 및 업무 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지도 사업을 강화하며 그에서 얻은 경험들을 계속 심오하게 분석 연구하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신용 협동 조합 운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적응하게 창조적으로 지도하도록 자기의 조직적 력량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 신용 협동화 운동의 전면적 앙양은 목전에 박두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 단체들은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의 전면적인 조직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실정에 적응하게 지도 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나라 농촌 금융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농촌에서 착취의 근원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농민들의 물질 문화적 생활 향상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을 관철시켜야 하며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승리를 더욱 확대 공고화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 로동당 투쟁사 연구 자료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와 당의 조직적 강화에 있어서 그의 의의

위 찬 길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 당시의 우리 나라 정세와 당내 형편은 당 앞에 긴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들을 제기하고 있었다.

우리 당은 자기 대렬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창건 첫날부터 조선 혁명 승리를 위한 모든 중하를 감당해 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한 8. 15 해방 후 소위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상륙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은 그 첫날부터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인민 대중의 창의에 의하여 조직된 인민 위원회들을 강제로 탄압 해산시키며 군정을 선포하고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들은 인민 대중의 모든 민주주의적 운동을 탄압 박해하고 민족 분렬을 획책하면서 국내의 반동 세력들을 규합하여 자기의 침략적 지반을 꾸미기에 광분하였다.

따라서 남조선의 국내 반동 세력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비호하에 자기들의 세력을 규합하며 광범한 인민 대중을 자기들의 영향하에 장악하려고 시도하여 나섰다.

그리하여 해방 후 통일적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과 당의 투쟁은 처음부터 미제와 국내 반동 세력인 리 승만 도당과의 가혹한 계급 투쟁 속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우리 당 창건 후 약 3개월 간에 변화되는 정세는 우리 당 정치 로선의 정당성을 더욱 확증하여 주는 한편 그의 정확한 실행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특히 미제와 국내 반동의 시도를 좌절시키며 남북 조선의 광범한 인민 대중을 당의 주위에 조직 집결하며 북반부에서 쏘련 군대가 지어 주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민주 기지를 창설할 데 대한 과업을 일층 긴급하게 제기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당은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 수행을 급속히 촉진시킬 방침을 토의하기 위하여 1945년 11월 중순에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2차 확대 집행 위원회를 소집하였다. 당은 이 회의에서 당시 당의 기본 정치 로선을 반대 외곡하는 반당 종파 분자들에게 사상 리론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동시에 대중을 전취할 데 관한 문제를 특히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시급히 결성하여 각계 각층의 인민 대중을 조직 단결시키며 그 기초 우에서 북조선에 통일적인 인민 주권을 수립할 데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당의 통일 전선 정책에 근거하여 광범한 민주주의적, 애국적 청년들을 단결시키기 위하여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할 데 대하여서와 우리 당이 북반부에서 활동하는 민주주의적 정당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데 대한 정확한 방침들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이 모든 방침들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우리 당의 정치 로선을 관철하게 위한 가장 적절한 당면 과업이였고 따라서 당원들과 인민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 당시까지 당의 기본 정치 로선과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이 광범한 대중 속에 깊이 침투되지 못하고 잘 집행되지 못하였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반당 종파 분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의식적으로 반대하면서 외곡 집행한 데 있었으며, 대중 속에서 조직자적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우리 당 단체들이 조직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아직 공고하지 못하였으며 그 사업에 엄중한 결함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정과 관련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단체들의 사업에 이러한 제 결함들이 존재하였던 이 시기의 당내 형편의 엄중성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이것은 특히 우리 당이 아직 조직적으로 완전히 형성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일찌기 레닌은 사업에 있어서의 오유나 결함이나 혹은 곤난 중의 한 가지라도 투쟁으로써 그를 제때에 극복하지 않고 묵과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가장 큰 오유로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서는 후에 반드시 고'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 169 페지)라고 교시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당내에 발생된 당시의 엄중한 결함들을 묵과 방임할 수 없였다.

이 시기에 우리 당 앞에 제기된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과업은 우리 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였다. 당시의 객관적 정세와 우리 당내 형편의 엄중성으로 보아 시급히 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함이 없이는 특히 당면하게 제기된 북반부에서 민주 기지 창설을 위한 중대한 혁명 과업들의 성과적 실행을 보장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때에 즉 1945년 12월 중순에 평양에서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가 개최되였다.

회의에서 토의된 기본 문제는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을 보장하며 당을 조직적으로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한 것이였다.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북조선 공산당 단체들의 사업에 있어서 착오와 결점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당시 당내 형편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당 사업에 존재하는 엄중한 결함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할 데 대한 구체적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즉 당의 통일을 파괴하는 종파 분자들과 지방 할거주의, 자유주의, 개인 영웅주의 경향 등과 강력히 투쟁하며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과 당 규률을 강화하며 당 조직의 질적 구성을 개선하며 간부 사업에서 당적 원칙을 고수하며 당의 군중 관점과 당 사업 방법을 확립하고 대중과의 련계를 튼튼히 하며 당의 사상 사업을 강화하며 근로 단체들에 대한 지도 사업과 통일 전선 사업을 개선할 것 등의 문제에 대하여 특히 강조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이 일련의 문제들은 당 건설의 기본적 문제들이며 당 건설의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이였다.

회의는 혁명적 비판과 자기 비판의 기치하에 진행되였으며 김 일성 동지의 보고를 지지하여 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할 데 대한 일련의 대책들이 명시된 결정을 채택하였다.

동시에 회의는 김 일성 동지를 책임 비서로 하여 강력한 당 중앙 지도 기관을 새로 선거하였다.

그러면 회의에서 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취한 중요한 대책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였는가?

첫째로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토의된 문제의 하나는 당의 통일 단결을 공고히 하며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강화하고 당 규률을 확립할 데 대한 문제였다.

우리 당은 처음부터 레닌적 당 조직 원칙에 립각하여 창건되였다. 우리 당은 과거 조선 로동 운동에 엄중한 죄악을 끼친 종파 잔재가 남아 있으며 또한 해방 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와 우리 당 창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북조선 조직 위원회 창건 당시에 당의 확고한 조직 로선을 제시하면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 당시까지 당의 통일이 아직 확고하지 못하였으며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근거한 당 규률이 확립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주로 당내에 잠입한 종파 분자, 개인 영웅주의자, 지방 할거주의자들의 반당적 행동과 관련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당 지도 일'군들이 사상 리론적으로 아직 어리였으며 당성이 미약하였던 까닭에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부족하게 진행하였던 것과 관련되여 있었다.

해방전 조선 공산주의 운동과 로동 운동에 엄중한 죄악을 끼친 종파 분자들은 해방 후에도 종파 습성을 버리지 않고 우리 당내에, 지어는 각급 당 지도 기관에까지 잠입하여 반당 종파 행동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함남도, 평북도, 황해도 당 단체 등에 각종 그루빠가 형성되여 당의 통일을 파괴하는 활동을 감행하였다. 종파 분자, 개인 영웅주의, 지방 할거주의 분자들이 지도적 지위에 들어 있은 지방 당 단체들에서는 당 정책이 집행되지 않고 외곡되였으며 지어는 공공연히 당 정책과 당 중앙의 지시를 거부하여 나서는 반당적 행동을 감행하였다. 례를 들면 당시 함남도 당 단체 지도부에 들어 있은 종파 분자들은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을 반대하여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할 데 대한 당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태공하였으며 당 중앙에서 파견한 지도 일'군을 배척하는 현상까지 나타내였다.

여와 같이 반당 종파 분자들은 당의 통일,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파괴하려고 시도하였다.

다른 한편 당시에 적지 않은 당원들과 일부 지도 일'군들은 아직 당 생활과 당내 투쟁 경험이 짧으며 당 생활 규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로부터 당 정책을 외곡하며 당의 통일을 방해하는 종파 분자들과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였으며 그들 자신이 당 규률과 기타 당 생활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러한 데로부터 당내에는 사상적 통일과 강력한 규률이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당 단체들과 대중 속에서 당 정책이 잘 집행되지 못하며 당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가 아직 확립되지 못하였었다. 이것은 당에 극히 유해한 가장 큰 결함이였다.

레닌은 첨예한 계급 투쟁의 환경 속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 당의 규률의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당성과 당 규률의 부정…이것이야 말로 부르조아지를 위하여 프로레타리아트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것과 꼭 같은 것이다…만일 이것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그는 전 프로레타리아 혁명 운동을 필연코 파멸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레닌은…《프로레타리아트의 조직자적 역할…을 옳게 성과 있게 승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트 정당의 내부에 극히 엄격한 중앙 집권제와 규률이 있어야》(동상 41—42 페지)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당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는 당의 통일을 보장하며 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무엇보다도 종파주의, 개인 영웅주의, 자유주의, 지방 할거주의 경향과 강력히 투쟁하며 당 규률을 확립하며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회의는 당 중앙과 상급 당의 지시 결정을 의무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며 당 규률을 위반하는 행동을 맑스—레닌주의적 당 조직 원칙을 파괴하는 반당적 행동으로 규탄하였다.

회의는 종파 분자들의 종파적, 지방 할거주의, 자유주의 행동에 대하여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동시에 회의는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며 하급 당 단체는 상급 당 단체에, 전체 당 단체들과 당원은 당 중앙에 복종하며 그의 결정 지시를 의무적으로 실행하는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러한 제 규범들과 원칙들을 엄격히 준수하며 당 규률을 확립함이 없이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할 수 없으며 또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공고히 보장함이 없이는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대중 속에서 관철할 수가 없었다.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의 결정과 그의 실천을 위한 투쟁은 당원들의 당성과 당 규률에 대한 자각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결정적 계기로 되였다. 특히 종래에 잘 인식하지 못하였던 종파 분자들의 정체와 그들의 반당적 행동을 판별하며 그에 대하여 경각성을 제고하며 강력히 투쟁할 수 있도록 교양되고 훈련되였다.

당내 종파 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고 당 규률을 확립하며 당의 통일 단결을 공고히 할 데 대한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의 정신은 전 당원들에게 파악되여 그후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결정적 힘으로 되였다.

둘째로 회의는 당의 구성 성분을 질적으로 개선하며 당의 핵심 진지를 강화할 데 대한 일련의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당 대렬의 질적 구성 여하는 당의 혁명성, 그 대렬의 견고성 및 전투력 여하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들을 당 대렬에 받으며 당 장성 사업을 어떻게 조직 진행하는가 하는 것은 모든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건설에서 항상 기본 문제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우리 당은 당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자기의 기본 조직 로선에 립각하여 당 대렬을 선진적 로동 계급과 그의 동맹자인 근로 농민 속에 뿌리 박게 하며 그러한 기초 우에서 당과 인민에게 충실한 인테리들을 당 대렬에 흡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당 앞에 제기된 력사적 과업 수행의 요구로 보아 당 대렬을 대담하게 확대시키는 동시에 적대 분자, 우연 분자들이 잠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당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 당시까지 당 장성 사업 분야에서 당의 이 기본 방침이 정확히 집행되지 못하였다. 적지 않은 당 단체들이 선진적 로동자들 속에서 당 대렬을 장성시키며 공장, 기업소들에 당 세포를 조직할 데 대하여 응당한 당적 주의를 돌리지 않았으며 그 반면에 도저히 당이 의거할 수 없는 도시 소시민층, 지어 건달'군들을 당에 받으며 거기에 당 세포를 조직하는 등의 참을 수 없는 현상들까지 나타내였다.

또한 선진적 로동자들을 당에 입당시킴에 있어서 입당 보증인의 년한 및 기타 조건을 붙여 인공적으로 제한하는 관문주의적 편향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입당 사업에 있어서 당적 원칙을 위반하고 종파적 관계, 지방주의, 가족주의적 관계에서 무원칙하게 당원을 받는 우경적 경향도 있었다.

이러한 기회를 리용하여 친일 분자, 적대 분자, 우연 분자들이 당내에, 지어는 당 지도 기관에까지 잠입할 수 있게 되였다. 례를 들면 해방 초기에 양덕군 당 위원회 비서의 자리에는 일제 시대에 그 군 경찰서장하던 자가 잠입하였으며 군 인민 위원회 위원장에는 해방전 파씨스트 당의 당원으로 일제에게 복무하던 자가 《공산당원》의 탈을 쓰고 기여 들었었다.

당 장성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결함들로 인하여 당시까지 아직 당이 자기의 기본 핵심인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 속에 뿌리를 튼튼히 박지 못하였으며 당 대렬이 순결하지 못하였다. 당 대렬이 이와 같이 순결하지 못한 것이 당시 당내에서 여러 가지 결함을 발생시킨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었다.

당 단체들은 당 장성 사업을 정확히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원들을 등록하고 통계하며 당 성분을 검열하는 사업도 옳게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당내에 어떠한 성원들이 망라되였는지 또는 그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당적 주의를 잘 돌리지 않았다.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는 당 장성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비정상적 현상이 공산당의 특성과 우리 당 조직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엄격히 비판하면서 앞으로는 반드시 로동 계급의 가장 우수한 분자들을 우선적으로 흡수하며 당 성원의 질적 구성을 개선할 것을 각급 당 단체들에 책임지웠다. 특히 당에 들기를 희망하는 선진적 로동자 출신들의 입당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당에 대한 인공적 제한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입당을 보증할

1 년 이상의 당 년한을 가진 당원들이 없는 그러한 공장, 기업소에 있어서는 1 년 이하의 당 년한을 가진 당원 2 명의 보증으로써 입당을 접수할 수 있게 하며 공장, 기업소들에 당 세포를 조직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의는 각 도 당 단체마다 각이한 당증을 발급하는 현상을 시정하고 전 당에 유일한 당증을 수여하는 한편 전 당 대렬을 심사하며 당원들을 정확히 등록 통제하며 불순 분자, 우연 분자들을 제거함으로써 당 대렬을 순결하게 하는 대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제 대책들이 강력히 집행된 결과에 선진적 로동자들을 비롯한 근로 농민 출신의 당원들이 장성되였으며 공장, 기업소 및 농촌에 당의 핵심 진지가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당 대렬의 순결성, 당원들의 적극성이 제고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중 루각에 떠 있던 우리 당은 이때로부터 믿음성 있고 튼튼하고 의지할 만한 로동 계급과 빈농민 속에 뿌리 박은 강력한 당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세째로 회의는 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당 간부 선발 배치 및 육성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당시 각급 당 단체들에서는 간부 선발 배치 사업에서 당적 원칙을 위반하는 엄중한 결함들이 존재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의 간부 선발 배치의 기본 원칙은 간부들을 정치적 표징과 실무적 자질에 의하여 선발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까지 적지 않은 당 단체들에서 간부의 선발 배치 사업을 당적 원칙에서가 아니라 안면 관계, 친척 친우 관계, 동향 동창 관계 등에 의하여 진행하며 더우기 엄중한 것은 고의적으로 간부를 종파적 관계에서 등용하면서 로동 계급 속에서 자라나는 새 간부들을 등용하지 않고 그를 억제하며 배척하는 현상이였다.

회의는 간부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결함들을 비판하면서 간부 사업에서 당적 원칙을 준수하며 또 우리 당이 청소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검열되고 준비된 간부가 부족한만큼 실제 사업을 통하여 로동자들과 근로 농민 속에서 간부를 많이 양성하며 그들을 대담하게 지도적 지위에 등용 배치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간부 양성을 위하여 중앙과 각 도에 당 열성자 학교를 설치하며 군, 면에는 야간 당 학교를 설치할 것과 간부에 대한 료해 및 통제 사업을 개선할 것을 결정하였다.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의 이러한 방침이 집행됨으로써 각급 당 지도 기관에 로동 계급 출신의 우수한 간부들이 선발 배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새 간부들로써 당 기관들과 당 단체들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당학교들은 당 건설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간부들을 양성해 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당은 당시 진행되는 당 심사 사업과 결부하여 당 간부 대렬을 검열 료해하며 당 지도 기관 내에 잠입한 적대 분자, 우연 분자들을 제거하며 우수한 간부들을 보충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로동 계급 출신의 간부들로써 당의 기본 핵심을 꾸리며 인재의 결핍을 점차 극복할 수가 있었다.

네째로 회의는 당 사업 방법을 확립하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시에 많은 당 단체들과 당 일'군들이 당 사업 방법을 잘 몰랐으며 대중과의 련계 강화의 의의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였었다. 그리하여 직접 대중 속에 들어가 당 정책을 해석 침투시키며 그의 실천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할 대신에 사무실에 앉아서 대중이 찾아 오기를 기다리는 등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작풍이 많았다.

정치적 지도 기관으로서의 각급 당 단체들이 지방 인민 위원회 및 기타 근로 단체들을 조직 지도할 데 대한 사업을 미약하게 진행하였다. 그러한 결과에 일부 지방 인민 위원회들은 당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지 못하고 그를 외곡하며 지어는 불순 분자들이 그에 잠입하여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행동을 감행하였다.

당적 지도가 미약한 결과 근로 대중 단체들에서 사업 체계가 수립되지 못하였으며 일부

직맹 단체들은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교양하며 그들을 공장, 기업소들의 급속한 복구 및 조업 개시와 로동 규률의 강화,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등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할 대신에 기업 관리 운영 사업을 저해하는 행동을 감행하였다. 례를 들면 그때에 사동의 어느 한 기업소에서는 로동자들이 부당한 요구를 들고 일을 하지 않고 관리 일'군들에 대립하여 나섰던 현상까지 있었다.

또한 일부 당 단체들은 우당들과의 사업을 불만족하게 진행하였다.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모든 중대한 과업들을 우당원들과 협력하여 해결할 대신에 그들을 배척하며 우당원들과의 충돌과 알륵을 일으키는 현상들이 있었다.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는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약화시키는 이러한 엄중한 현상들을 시급히 퇴치할 것을 각급 당 단체들에 강력히 지시하였다.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당이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사업하지 않으면 대중이 우리를 따라 오지 않고 당은 고립될 것이며 만일 대중과의 튼튼한 련계를 가지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와 실정을 제때에 포착하지 못하며 그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울 줄을 모른다면 우리 당이 근로 대중을 령도할 수 있는 강력한 대중적 정당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 사업 방법을 확립할 것을 강조하시였다.

그때에 김 일성 동지는 당 사업의 기본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의 기본 임무는 《공장에 가서 로동자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담화하며 그들의 요구를 알아 보며 우리 나라의 현 정세에 대하여 해석하여 주며 구체적 과업들을 지적하여》(김 일성 선집, 제1권 8 폐지)주는 것이라고 교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는 우리가 현재와 장래에도 명심하여 실천하여야 할 지침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할 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였다.

그후 김 일성 동지의 교시와 확대 집행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우리 당 단체들에서는 당 사업 방법을 바로잡으며 군중 공작을 강화하며 인민 위원회 및 근로 단체들에 대한 지도와 우당들과의 사업을 개선하기 시작하였으며 광범한 청년들을 민청에 집결시켰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더욱 튼튼하여지기 시작하였다.

다섯째로 회의는 당 사상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들을 취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맑스—레닌주의 리론이 자유롭게 보급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맑스—레닌주의 보급을 방해 외곡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행동과, 다른 한편으로는 종파 분자들의 종파 행동으로 인하여 맑스—레닌주의 사상 리론이 적지 않게 외곡 전파되였었다.

과거 이러하였던 사정과 또한 우리 당의 청소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그 창건 첫날부터 맑스—레닌주의의 사상 리론과 형제 당들의 경험을 열심히 학습하며 그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행동의 지침으로 삼을 데 대한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 당시까지 당 사상 사업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과 대중 속에서 사상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는 우리 당에 있어서 사상 사업의 중요성과 그의 의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사상 사업을 당의 제1차적 사업으로 강력히 진행할 것을 각급 당 단체들에 제시하였다.

당은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당의 강력한 사상적 무기인 당 출판물 사업을 개선하는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다. 당의 기관지인 정로 신문사 기구를 확충하고 우수한 간부들을 파견하여 그를 강화하며 출판물의 사상 정치적 질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그 부수를 증가하며 일간 신문으로 전환시켜 광범한 당원들과 대중을 교양하도록 하였다.

또한 당원들과 간부들을 맑스—레닌주의 기본 리론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맑스—레닌주

의 고전들을 조선말로 번역 출판하도록 하는 대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대중 속에서 일상적인 대중 정치 사업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당 사상 사업이 강력히 진행되므로 하여 그후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계급적 각성과 사상 리론 수준이 더욱 제고되게 되였으며 특히 당 로선과 정책이 대중 속에 깊이 침투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 대중들이 당 정책을 파악하고 그를 옹호 지지하며 그의 실천을 위한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였다.

이와 같이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는 우리 당이 자기 발전 력사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 서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당은 창건 이후 처음되는 당내의 일대 혁신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회의는 우리 당의 강화 발전에 있어서 특히 빛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회의는 당을 엄중한 상태에 빠뜨리는 반당 종파 분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당과 당원들에게 종파의 해독성을 인식시키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옹호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산 모범을 보여 주었다.

그후 우리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튼튼히 단결하여 박 헌영, 리 승엽 종파, 간첩 도당으로부터 최 창익, 박 창옥 등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 어데서나 당의 통일을 파괴하려는 반당 종파 분자들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고 당의 통일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여 왔으며 또 수호하고 있다.

회의는 또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기초하여 당 조직 체계를 튼튼히 확립하고 당 규률을 강화하였으며 적대 분자, 우연 분자들을 당 지도 기관들과 당내에서 제거함으로써 당 대렬을 순결하게 하였으며 당을 선진적 로동자 및 근로 농민 속에 튼튼히 뿌리 박게 하고 로동 계급 출신의 우수한 간부들을 육성하여 당의 기본 핵심을 튼튼히 꾸려 놓았다.

이와 같이 당의 통일을 보장하고 당의 핵심 진지를 튼튼히 꾸려 놓았으므로 하여 그후 우리 당이 조선 혁명 발전의 요구에 따라 대중적 정당, 조선 로동당으로 성과적으로 발전 강화될 수가 있었다.

회의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의 하나는 우리 당이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이미 수립된 당 사업 방법과 군중 공작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며 당 사업 방법을 바로잡으며 당원들의 군중 관점 확립을 위한 전 당적 투쟁의 시초를 열어 놓은 그것이다.

이때로부터 우리 당은 당 사업에서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적 작풍과 강력히 투쟁하면서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혁명 사업이란 무엇이며 군중 공작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며 당 및 국가 사업에 경험이 어린 간부들로 하여금 그 사업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간부를 육성해 냈으며 군중 공작에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때로부터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소박하고 겸손한 인민적 사업 작풍을 체득하며 맑스—레닌주의 사상 리론 수준을 제고하며 당 사업을 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키는 투쟁을 전개하여 왔기 때문에 당과 대중과의 불패의 련계가 이루어졌다.

회의는 또한 우리 당의 수중에 있는 강력한 사상적 무기인 비판과 자기 비판의 기치하에서 자기 사업에서의 결함과 과오에 대한 공개적이고 원칙적인 투쟁의 모범을 전 당과 당원들에게 보여 주었다. 회의는 비판과 자기 비판의 정신으로 당원들과 간부들을 교양하는 훌륭한 학교로 되였다. 이때로부터 전체 당원들은 비판과 자기 비판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 사업 발전에 저애를 주는 모든 결함을 제때에 극복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생기 발발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리하여 당의 모든 정책의 관철을 보장하였으며 또 보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는 우리 당의 조직적 강화에 있어서 참으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당원들이 이를 더욱 깊이 연구하는 것은 우리 당 투쟁 력사를 정확히 리해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현 시기 당이 제시하는 과업들을 보다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거대한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끈술따찌야

《부정의 부정》의 법칙

김　후　선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유물 변증법의 기본 법칙의 하나이다.

유물 변증법의 기본 법칙으로서의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자연과 사회 발전의 현실적인 련관의 체계를 규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칙이다. 이 법칙은 사유 발전의 법칙으로도 되는바 그것은 사유가 자연과 사회의 객관적 발전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체 사물, 현상들의 변화 발전 과정은 전진적, 상승적 운동 과정으로서 부정적 면과 긍정적 면;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투쟁에 의하여 조성된다. 사물과 현상들의 발전 과정에서 긍정적인 것과 새로운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 새것의 승리는 낡은 것의 부정에 의하여, 긍정적인 것의 승리는 부정적인 것의 부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부정》은 발전에서 필수적인 모멘트이다. 이러한 부정을 변증법적 부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변증법적 부정은 자기를 영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정될 운명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재차의 부정으로써 한개 발전 과정의 원환(円環)이 이루어진다. 이 원환은 폐쇄된 것이 아니라 개방되여 다음의 원환에 련속되는 라선형(螺旋形)의 원환이다. 이러한 발전 과정의 라선형의 원환 운동이 《부정의 부정》으로 정식화된다.

하나의 《부정의 부정》의 과정은 또 그것으로써 자기의 발전 과정을 끝마치고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정의 부정》의 과정을 열고 전진한다. 이리하여 《부정의 부정》의 과정이 새로운 기초 우에서 반복되면서 전진하는 전 계렬은 무한히 계속되는 전 세계적인 발전 과정을 이룬다.

이러한 《부정의 부정》의 법칙이 구체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심오한 연구를 요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현실 속에서 이 법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혁명적 실천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법칙에 관하여 연구할 문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발전의 계기로서의 변증법적 부정. 둘째로 《부정의 부정》의 법칙의 보편성과 특수성, 세째로 《부정의 부정》의 법칙이 과학적 인식과 혁명적 실천 활동을 위하여 가지는 의의 등이다.

1, 발전의 계기로서의 변증법적 부정

사물과 현상들의 발전을 부인하는 형이상학자들은 현실 세계의 운동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부정이란 절대적인 포기, 절멸, 말살을 의미하며 또 어떤 명제를 다만 《아니다》라고 형식 론리학적,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연, 사회 및 사유의 발전 행정에서 실지에 일어나는 부정과는 합치되지 않는다. 형이상학자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부정을 사실 그대로 발전의 계기로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현실 세계의 운동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는 맑스—레닌주의자들은 부정을 단순한 혹은 절대적인 부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계기로서의 부정으로 보는 것

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인류 사회는 류인원의 인간에로의 전화로부터 시작하였다.

최초의 인류 사회 구성인 원시 공동체 사회는 노예 사회로, 노예 사회는 봉건 사회로, 봉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 자기 부정을 통하여 발전하였다. 이 부정의 과정은 생산 발전의 결과로서 합법칙적으로 일어난 변증법적 부정의 과정이였다.

례하면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사회주의 사회에로의 이행, 식민지 반 봉건 사회로부터 인민 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 사회에로의 이행은 자본주의 사회, 식민지 반 봉건 사회가 부정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은 변증법적 부정이다. 이와 같이 한 사회 구성으로부터 다른 사회 구성에로의 전화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회 구성 내부에서도 발전의 계기로서 변증법적 부정이 일어난다. 례컨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구라파에서는 자본주의가 자유 경쟁의 단계로부터 독점의 단계로 이행하였는바 이것은 자유 경쟁이 부정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로동 계급은 자본주의하에서는 피지배 계급이다. 그러나 과도기와 사회주의하에서는 지배 계급이다. 로동 계급의 피지배 계급으로부터 지배 계급에로의 전화도 변증법적 부정이다.

일제하에서 우리 인민은 주권을 못 가진 피통치자들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해방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국가의 주인으로 되게 되였다. 이것은 조선 인민이 피통치자로부터 통치자로 전화된 것이다.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근본적인 사회 정치, 경제적인 변혁들이 일어났다.

일제의 통치 기구를 분쇄하고 인민 정권을 창설하였으며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변혁은 새 나라,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낡은 정치 기구와 낡은 사회 제도를 변증법적으로 부정한 것이였다. 현 시기에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이미 그의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였는바 산업 분야에서의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는 이미 실현되였으며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도 이미 95.6%에 달하여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산업 및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낡은 경리에 대한 변증법적 부정이다. 우리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들에 기초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완전 독립을 달성하며 통일과 완전 독립을 달성한 후에는 전국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공산주의를 향하여 전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진을 위하여서는 수차에 걸쳐 변증법적 부정이 진행되여야 한다. 우선 조국의 통일 독립 완수는 조국의 분렬 상태에 대한 변증법적 부정이다. 그리고 남반부에서의 민주 개혁의 실시는 남반부의 낡은 봉건 잔재, 파쑈 잔재에 대한 변증법적 부정이며 사회주의 건설과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은 부정에 대한 새로운 부정인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사회 현상들에서의 부정은 발전을 보장하며 전진이 실현되도록 하는 부정이다.

그러면 자연계에서의 변증법적 부정에 의한 발전의 몇 가지 례를 들어 보자.

동물이나 식물 또는 식물의 종자 등을 죽여 버리거나 짓밟아 없애거나, 잡아 먹거나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부정이다. 그러나 그 동물이나 식물 또는 종자의 정상적인 발전 과정을 두고 고찰할 때 그러한 부정은 발전의 계기로 되는 부정은 아니다. 례를 들어 옥수수알을 썩여 버리거나 갈아서 소비하거나 삶아서 먹어 버린다면 이러한 부정은 옥수수알의 한 개의 생명체로서 발전할 길을 막아 버리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타동물이나 식물들에게 영양물로 되는 경우에는 유익한 것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옥수수알의 변화 발전을 보장하는 변증법적 부정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 알의 옥수수의 종자가 땅에 떨어진 후 적당한 온도와 수분을 보장 받는 경우에는 알은 발아하여 줄기로 변하며 줄기는 이삭이 패여 여문 후에 말라 버린다. 이것은 변증법적 부정의 과정이다.

변증법적 부정은 자연과 사회의 현상에서만이 아니라 사유, 사상 의식의 령역에서도 일어난다. 사유 령역에서의 변증법적 부정은 역시 사상 의식 발전 행정에서의 필수적인 계기이다. 사유의 발전은 미지(未知)로부터 지에로, 현상으로부터 본질에로 심화된다. 이러한 심화 과정은 지식의 불완전한 상태를 극복 혹은 부정하고 보다 완전한 상태에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객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보통 최초에 개별적 현상들을 일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은 이에 머물지 않고 일면성과 표면성을 극복하고 현상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를 거쳐서 그 사물의 본질적 내면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 일면적이고 표면적인 인식은 부정되고 전면적이고 본질적인 인식에 도달한다.

이것은 바로 변증법적 부정을 통한 인식 발전의 과정이다.

맑스 이전의 몇몇의 부르죠아 학자들은 사회 력사에서 계급 투쟁의 현상들을 보았으나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맑스는 이러한 중도반단적인 인식에 머물지 않고 더욱 나아가서 근대 부르죠아 사회의 계급 구성과 그 경제적 기초를 해부함으로써 계급 투쟁의 본질과 부르죠아 사회 제도의 불가피적 멸망과 사회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도래를 확언하였다. 이것은 현상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본질에 대한 인식에로의 심화이며 변증법적 부정을 통한 인식 발전의 과정이다.

이상으로써 우리는 변증법적 부정이 자연, 사회 및 사유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계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정의 부정》의 법칙, 그의 보편성과 특수성

변증법적 부정은 자기 부정을 내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 현상들의 변증법적인 발전 과정을 한 개의 체계로서 볼 때 거기에서 작용하는 발전의 법칙은 《부정의 부정》의 법칙이다. 따라서 사물, 현상들의 발전의 전 행정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부정의 부정》은, 일견하전대 발전하는 사물, 현상들이 첫 출발점에로 복귀하는 운동 과정과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복귀하는 듯 하면서도 새로운 기초 우에서 반복되는 전진 운동이다.

엥겔스는 이는 《라선을 따르는 운동》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사물과 현상들의 발전에 있어서 전진과 복귀의 모순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명제의 하나이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사물, 현상들의 변화 발전에 있어서 이 《부정의 부정》의 행정을 상승선을 따르는 운동으로서, 이 과정에서 새것은 승리하고 낡은 것은 패배하는 그러한 전진 운동으로 리해하였다.

이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자연, 사회 및 사유의 령역에서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일반적 법칙의 하나이다. 《부정의 부정》의 법칙의 보편성에 대하여 엥겔스는 자기의 저서 《반듀링론》 가운데서 지적하기를 《<부정의 부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반적인,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극히 널리 적용되는 중요한 자연, 력사 및 사유의 발전 법칙이다》라고 하였다(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5년 판 184 페지).

그러면 이 법칙의 구체적인 표현들을 고찰해 보자.

만일 한 개의 보리알이 땅에 떨어져 발아하게 된다면 알로서의 존재는 점차로 부정되고 보리줄기와 잎들이 성장한다. 이 보리줄기와 잎들이 만일 정상적으로 생장하여 간다면 꽃이 피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보리이삭이 성숙하게 되면 줄기와 잎들은 사멸하여 역시 부정된다. 이상과 같이 최초에 보리알을 부정하고 성장한 보리줄기와 잎들은 다시 새로운 보리이삭의 성숙과 함께 부정된다. 그런데 한 알의 보리알은 《부정의 부정》의 결과로서 다시 한 알의 보리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배의 보리알로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엥겔스는 한 알의 보리알이 《부정의 부정》에 의하여 단순한 최초의 보리알에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보다 많고 보다 좋은 보리알에로 복귀한 것이며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한 것이라고 하였다.

엥겔스는 또 다른 례로서 그 어떤 변화하기 쉬운 관상용(觀賞用) 식물, 례하면 다리야 또는 탄초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만일 우리가 원예사(園藝師)의 기술을 적용하여 종자와 그 종자에서 발육하는 식물에 영향을 주면 이 〈부정의 부정〉의 결과로서 비단 보다 많은 종자를 얻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꽃을 주는 질적으로 개량된 종자를 얻는다. 그리고 이 과정의 반복마다, 새로운 부정의 부정마다가 이 개량 과정에 있어서의 보다 높은 단계이다》 (《반듀링론》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178 페지)라고 하였다.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 선진 농학을 옳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완만하게 변화하는 화곡의 종(種)을 《부정의 부정》의 과정을 통하여 보다 빠르게 개량할 수도 있다.

《부정의 부정》은 사회 발전의 행정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사회 력사에서는 자연에 있어서보다 이 부정의 부정이 더욱 다양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사회 력사에 있어서의 《부정의 부정》은 자연계에서의 《부정의 부정》 보다 훨씬 뚜렷이 나타난다.

엥겔스가 교시한 바와 같이 모든 문명한 인민들은 토지 공동 소유로부터 출발하였다. 원시 상태의 일정한 단계를 이미 경과한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는 토지 공동 소유는 농업 발전 행정에서 생산에 대한 질곡으로 되였다. 그것은 페절되고 부정되여 많으나 적으나 간에 장구한 중간 단계를 거쳐 사유(私有)로 전화하였다.

그러나 바로 토지 사유에 의하여 도달되는 보다 높은 발전 단계에 이르러서는 반대로 토지 사유가 생산에 대한 질곡으로 된다. 여기에서 이번에는 토지 사유를 부정하고 그것을 다시 공동 소유로 전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원시적 토지 공동 소유의 부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더 발전된 사회주의적 공동 소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정의 부정》 이다.

이와 같은 엥겔스의 사상은 객관적으로 실증되였다. 이미 쏘련에 있어서의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실현되였으며 공화국 북반부와 다른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도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가 확립되였거나 또는 확립되여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 력사의 전 과정을 한개 부정의 부정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하나의 사회 구성 내에서와 몇 개의 사회 구성에 걸쳐 진행되는 현상들을 통해서도 부정의 부정을 찾아 볼 수 있다.

맑스는 자기 자신의 로동에 기초한 개인적 소유의 자본주의적 소유 형태에로의 전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형태의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에로의 전화 과정을 《부정의 부정》으로서 파악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자본주의적 취득 방식, 따라서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는 자신의 로동에 기초한 개인적인 사적 소유에 대한 첫째번 부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하나의 자연적 과정의 필연성으로써 그 자체의 부정을 낳는다. 이것은 부정의 부정이다》 (《자본론》로동당 출판사 판 제1권 2분책 533 페지)라고. 이것은 자본주의적 축적의 력사적 운명을 론하면서 지은 맑스의 결론이다.

자본가들은 자기 로동에 기초한 개개인의 분산된 사적 소유를 수탈하여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로 전화 (첫째번 부정)시켰으나 이 수탈자들은 다시 수탈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는 사회주의적 공동 소유로 전화하지 않을 수 없다.(둘째번 부정) 여 부정의 부정에 의하여 첫 출발점에로 즉 개개인의 로동에 기초한 분산된 사적 소유에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단계에로의 전진이 달성된다. 이에 대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쓰고 있다: 《이 부정은 사적 소유를 재건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의 획득물 즉 협업과 토지 및 로동 자체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에 기초한 개인적 소유를 낳는다》(동상).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는 로동 생산물의 일부는 생산 수단으로서 사회주의적 공동 소유로 되고 다른 일부는 근로자들의 생활 수단으로서 분배된다. 즉 거기서는 로동자들 자신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기초로 하여 개인 소유가 부활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탈자의 수탈(부정의 부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사회주의적 소유하에서는 개인 소유가 말살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단계에서 긍정된다. 따라서 사회주의하에서는 개개인들의 분산된 사적 소유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는 부정되는 동시에 개인 소유는 보다 높은 단계에서 긍정되여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근로자들의 물질적 복리의 무한한 증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해방전 우리 나라에는 기본적으로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일제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조선 인민은 자기의 인민 주권을 창설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토지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일제와 조선인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수탈하여 토지 없는 농민들과 토지 적은 농민들에게 분여하였다. 토지를 분배 받은 우리 나라의 농민들은 협동 조합에 망라됨으로써 사회주의적 소유에까지 제고되였다. 이것은 해방 전후를 통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일어난 토지에 대한 소유 형태가 부정의 부정에 의하여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자연과 사회의 령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정의 부정》의 극히 간단한 몇 개의 실례를 취급하였다. 그러면 이제부터 인간 사유의 령역, 인식의 령역에서 수행되는 부정의 부정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인간 사유의 일반적 행정은 변증법의 다른 법칙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부정의 부정》의 법칙에도 복종한다. 사유의 령역은 인식의 령역이며 과학 발전사와 철학 발전사의 령역을 포괄한다. 인류의 인식 발전의 과정을 고찰해 보면 사람들은 물질적 세계의 제 현상을 통하여 본질을 인식하며 개별적이며 특수적인 것을 통하여 일반적인 것을 인식하며 구체적인 것을 통하여 추상적인 것을 인식한다. 이리하여 다시 개별적이며 특수적이며 구체적인 것에로, 나아가서 지식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더욱 풍부화함으로써 구체적이며 일반적인 과학적 지식에 도달한다. 이러한 인식 과정에서 분석과 종합, 추상화와 구체화의 두개 모순되는 행정의 통일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려고 할 때 우선 무엇보다 먼저 연구 대상의 일반적 면모를 보게 된다. 그 개별적이며 특수적인 부분들은 다소 후경으로 물러 가고 전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에는 불명확하고 막연한 일반성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그 사물의 개별성과 특수성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그 사물의 제 요소들의 련관성을 막연하게 알려 주는 데 불과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고 더욱 나아가서 그 대상의 부분들을 분석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연구 대상에 대한 최초의, 분석되지 않은 총체적 견해 (일반적 정경에 대한 인식)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식 발전에 있어서 첫째번 부정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에 의하여 대상의 부분들이 충분히 연구된 후에는 그 부분들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지식들이 종합되여 그 대상에 대한 일반적 종합적인 견해가 형성된다. 이때에는 연구 대상이 분할된 부분들로가 아니라 전체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전체에 관한 종합적인 견해는 인식 발전에 있어서의 부정의 부정이다. 이것은 최초의 일반적 정경에 관한 지식에로의 복귀가 아니라 그 부분들의 인식에 기초한 전체성에 관한 풍부화된 인식에로의 전화인 것이다.

분석이 최초의 총체적 견해에 대한 부정이

라면 종합은 부분적 일면적인 분석을 다시 부정하고 총체적, 전면적인 인식에로 전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발전 행정에서 분석과 종합은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으며 이 량자의 련관은 인식 발전 행정에서의 《부정의 부정》의 체계를 이룬다.

이와 같은 분석과 종합의 행정 즉 인식 발전에 있어서의 부정의 부정은 개개인의 두뇌에서의 인식 발전의 행정일 뿐만 아니라 인류 력사에 있어서의 인류 전체의 인식 발전의 행정으로도 된다.

인식 발전 행정에서의 부정의 부정은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인 것에로,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에로의 행정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인식에서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에는 점점 더 추상적인 것으로 나아가면서 이보다 단순한 규정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추상화가 없이는 현상으로부터 본질에로의 인식이 이루어질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체 개별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이다. 우리가 개별적,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인식하기 시작하여 일반적, 추상적인 것에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 현상으로부터 본질에로 인식이 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것에서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것을 인식해 내는 것은 사상(捨象)과 일반화가 없이는 불가능한바 이는 구체적 개별적인 것의 부정이며 인식에 있어서 첫째 번 부정이다.

우리가 일단 도달하게 된 추상적인 것이 아직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식은 더욱 전진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이 구체적인 것에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알게 된 추상적인 것을 더욱 풍부화하며 구체화하여 더욱 내용이 충실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추상성의 부정이며 부정의 부정이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인 것에로,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에로의 인식 발전의 과정 즉 《부정의 부정》은 우리의 인식을 현상으로부터 본질에로 심화시키는 동시에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확대에 의하여 최초의 구체적인 것에 단순히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더욱 우리의 지식권 내에 끌어들이면서 본질에 관한 우리의 인식을 풍부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과학 발전사도 또한 《부정의 부정》에 의하여 우리의 일면적인 지식들을 전면적인 지식에로, 불완전한 지식을 완전한 지식에로 발전시켜 왔다. 례컨대 생물학 발전사의 일단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1809년에 불란서에서 유생 자연의 발전에 대한 진화론적 견해를 서술한 라마르크의 저작 《동물학의 철학》이 나왔는바 그 견해는 일정한 력사적 제 조건의 제약으로 인한 일면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그것은 생물 발전을 단순한 량적 장성의 과정으로만 보고 사물 발전의 질적 비약을 부인하는 속류 진화론이였다. 이에 뒤이어 큐비에의 저작 《지구 표면에서의 변혁에 관한 관찰》이 출현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사물 발전의 량적 변화 과정을 부인하고 《천변지이적》, 《돌변적》 비약의 사상만이 강조되였다. 이것은 전자 라마르크에 대한 부정이였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견해는 다 일면적인 견해로서 생물 발전에 관하여 각각 그 일면만을 반영한 데 불과하였다. 현실에 있어서 유생 자연의 발전은 온갖 발전 일반과 마찬가지로 량적 변화와 질적 변화, 점차성과 비약성, 진화와 혁명의 두 계기의 통일적 과정이다. 생물 발전에 관한 전면적인 견해는 다윈의 로작들과 그후의 미츄린의 로작들에서 나타났다. 다윈의 견해는 맑스와 엥겔스의 유물 변증법을 위하여 자연 과학적 기초를 쌓는 데 고귀한 기여를 하였으나 그러나 아직 적지 않은 부족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맑스주의 변증법을 의식적으로 적용한 미츄린의 생물학은 생물 발전에 관한 전면적인 견해를 확립하였다. 이리하여 바로 생물학의 발전에서도 부정의 부정이 진행되였다. 즉 다윈과 미츄린은 라마르크의 견해에 단순히 복귀한 것이 아니라 라마르크의 견해도, 큐비에의 견해도 변증법적으로 부정하고 전면적이고 완성된 유물 변증법적 생물학을 창시한 것이다.

사회 과학의 발전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저러한 일면성을 반영하는 리론들과 견해들을 변증법적으로 부정하고 전면적인 고찰에 기초한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바 이는 역시 과학 발전에서의 《부정의 부정》의 과정이다.

맑스주의 유물 변증법에 기초한 일체 과학은 전시대의 과학적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거기에 있는 낡고 부정적인 것을 변증법적으로 부정함으로써만 전진할 수 있었다.

철학 발전사도 역시 《부정의 부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엥겔스는 우리의 2천 년래의 철학의 발전사를 부정의 부정의 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고대의 철학은 원시적인 자생적(自生的)인 유물론이였다. 따라서 그것은 사유의 물질에 대한 관계를 해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의 명백성을 얻을 필요성은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령혼에 관한 학설을 초래하였고 다음으로 령혼 불멸에 관한 견해, 끝으로 일신(一神)적 신앙을 초래하였다. 이리하여 낡은 유물론은 관념론에 의하여 부정되였다. 그러나 관념론은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었다. 드디여 관념론은 현대 유물론에 의하여 부정되였다. 이것은 부정의 부정이다. 그러나 현대 유물론은 낡은 유물론의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낡은 유물론의 기초에다가 철학, 자연 과학 및 전체 력사의 2천 년의 발전에서의 가치 있는 사상 내용들을 첨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미 철학이 아니고 그 어떤 특수한 과학의 과학에서 확증 또는 실현될 것이 아니라 실재적인 제 과학에서 확증되는 하나의 세계관이다. 이리하여 철학은 《지양(止揚)》 다시 말하면 《동시에 극복도 되고 또 보유도 된》것이다. 형식에 있어서는 극복되였고 그 실제적 내용에 있어서는 보유되여 있는 것이다.

상술한 모든 례들은 자연, 사회 및 사유의 령역에서 든 실례들이다. 물론 이것은 허다한 례들이 있는 가운데서 몇몇을 취한 데 불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에서 든 례들은 우연적인 사실들이 아니라 자연, 사회 및 사유의 령역들에서 보편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엥겔스는 《부정의 부정》의 법칙의 보편성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썼던 것이다: 《〈부정의 부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극히 일반적인,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극히 널리 적용되는 중요한 자연, 력사 및 사유의 발전 법칙이다. 이 법칙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동식물계에 지질학, 수학, 력사, 철학에 나타나는 법칙이며 듀링씨도 그의 모든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지부식간에 자기식으로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법칙이다》(《반듀링론》 상동 184 페지)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의 부정》의 법칙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또 그 특수성도 인정하여야 한다. 이 법칙의 특수성의 문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로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매개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들의 발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에 고유한 특수성을 나타내는 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점이다. 둘째로는 유물 변증법의 다른 기본 법칙들에 비하여 《부정의 부정》의 법칙 자체가 일정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그러면 우선 첫째 특수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만일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다 《부정의 부정》이다 하는 일반적인 주장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매개 사물의 발전 과정의 특수성은 알지 못하며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개 발전 과정의 특수성을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한개 부정의 부정과 다른 부정의 부정을 구체적으로 검토 대비하고 그들 간의 차이와 특징들을 밝혀야 한다.

가령 나비가 알을 부정한 후 발육하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성적으로 성숙된다. 일정한 단계에까지 성숙한 암나비는 수다한 알을 쓸고 죽는다. 그러나 식물 혹은 다른 동물들에 있어서는 이 과정이 그처럼 간단하게 행해지지는 않는다. 동식물들 가운데는 보통 죽기 전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알, 종자 또는 새끼를 낳는다. 이러한 사실은 부정의 부정이 나비의 경우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사회적 현상에서 토지에 대한 원시적 공동 소유 형태가 사적 소유 형태로 전화하고 다시 사회주의적 공동 소유 형태로 전화하는 부정의 부정은 인류 력사의 전 발전 과정을 포괄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구한 발전 과정이 임의의 시점에서 시작하여 임의의 시점에서 끝나는 부정의 부정도 있다. 례컨대 개개의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분산적 사적 소유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함께 점차로 대규모적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로 전화하였다가 다시 사회주의적 공동 소유로 전화하는 데 있어서의 부정의 부정과 같은 것이다. 이 량자는 역시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적 발전 과정의 법칙으로서의 모든 《부정의 부정》은 각각 사물들의 발전 과정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정한 자기의 특수성을 가진다.

《부정의 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은 매개 발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서이다. 우리 나라의 력사와 과학, 문화 예술 등의 발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그리고 진행되면서 있는 부정의 부정의 과정을 역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아야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들이 매개 사물들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부정의 부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이 없이 일반적 공식으로서 파악한다면 이 공식은 사물 발전의 현실적 련관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도식으로 전화되여 헤겔의 《3단법》 즉, 정, 반, 합과 같은 순수한 사유의 형식으로 되고 말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헤겔은 《부정의 부정》을 한개 《리념》 발전의 법칙으로써 정식화하고 이것을 도식으로 하여 이것으로부터 자연과 사회의 모든 현실적 련관을 도출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유물 변증법의 다른 기본 법칙들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는 이 법칙의 특수성의 둘째 측면이다.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유물 변증법의 다른 기본 법칙들에 대하여 독특한 위치에 있다. 유물 변증법의 한개 기본 법칙인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의 법칙은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사물들이 한 질적 상태로부터 다른 질적 상태에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법칙이다. 따라서 이 법칙은 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단계 (발전 과정의)가 한 개의 결절선에 의하여 련결되여 있는 경우에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은 량적 변화를 하는 동안에는 아직 전면적으로는 작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질적 변화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작용하고 그 전면적인 작용은 량적 변화의 일정한 단계에서 즉 질적 변화의 준비가 다 되였을 때에 나타난다. 그리고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은 또 이와는 다르게 작용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은 온갖 운동과 발전의 원인에 관한 법칙으로서 운동과 발전의 매개의 모멘트, 임의의 점에서 작용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소여의 경우에 운동과 발전이 그 원인을 상실하고 정지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은 가장 뚜렷하며 보편적이다.

그런데 《부정의 부정》의 법칙의 경우는 사태가 다르다. 이 법칙의 경우에는 발전 도상의 어떤 개별적 단편이나 모멘트를 고찰하는 것으로써는 이 법칙의 작용을 전면적으로 리해할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부정의 부정》이 작용하는 범위는 최소한도 두 개의 결절선 즉 첫째 부정이 넘어야 하는 결절선과 둘째 부정이 넘어야 하는 결절선을 포괄하여야

하며 보통 그 이상의 범위를 포괄하여야 하는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발전의 어느 단편에서만 작용하는 법칙인 것이 아니라 발전 과정의 일정한 체계(그의 장단은 각이하나 최소한도 두 개의 결절선을 포괄하는)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또 《부정의 부정》의 법칙이 작용하는 발전 과정의 일정한 체계는 발전 과정의 한개 주기를 이루는데 이 주기가 완료되면 계속하여 다음 주기가 시작되는바 이 새로운 주기에서는 전주기의 시초에서 가지였던 약간의 특징들과 징표들이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반복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발전 과정의 어떠한 단계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계에서 작용하는 것은 부정의 부정의 법칙의 한 요소로서의 변증법적 부정이다) 발전 과정의 일정한 주기에서 일정한 체계에서 작용한다.

이상과 같이 유물 변증법의 세개 기본 법칙은 각각 그 작용 범위와 성격이 다르다. 이들 중에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은 발전 과정의 가장 적은 부분에서까지도 작용하며 그 작용의 성격은 가장 보편적이다. 그리고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의 법칙은 발전 과정이 한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로 이행하는 데서만, 따라서 한 개의 결절선에 의하여 두 개의 단계가 련결되는 데서만 작용한다. 그리하여 이 법칙은 전(前)법칙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에 비하여 그 작용이 비교적 넓은 범위를 요구하며 따라서 그 보편적 성격은 전(前)법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이 법칙이 보편적이 아니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왜냐 하면 이 법칙은 자연, 사회 및 사유의 임의의 령역들에서 작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기 때문이다.

3, 《부정의 부정》의 법칙이 과학적 인식과 실천 활동을 위하여 가지는 의의

유물 변증법의 기본 법칙의 하나로서의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우리의 객관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그의 개조를 위한 실천 활동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가 있다. 이 법칙을 과학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처음으로 현실 세계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리해할 수 있게 되였다. 만일 우리들이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의 법칙만 알고 《부정의 부정》의 법칙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면 사물, 현상들의 발전 과정에서 한 질적 상태로부터 다른 질적 상태에로의 이행은 고찰할 수 있어도 사물 및 현상들이 자기 발전의 주기를 완료하고 최초의 출발점에로 복귀하는듯 하면서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하는 라선형의 발전의 체계를 리해할 수는 도저히 없을 것이며 따라서 발전의 일정한 부분은 알아도 발전 과정의 전모는 알지 못할 것이다.

례컨대 보리알이 발아하여 싹이 나오며 그것이 발육하여 줄기와 잎으로 변화되는 것은 보리알의 질적 변화이며 한 개의 변증법적 부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보리알의 일보 전진이며 발전인 것이다. 그러나 이 보리알로부터 나온 줄기와 잎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새로운 보리알이 달린 이삭을 결실하지 않고서는 보리알의 발전 주기는 완료되지 않는다. 보리알이 자기의 주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보리알의 확고한 발전 과정이 끝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부정의 부정에 의해서만 발전의 주기는 완료되며 발전의 확고한 성과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하여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사물, 현상들의 발전의 체계를 리론적으로 완전히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도 반단적인 성과에 도취하지 말고 확고한 발전의 성과를 위하여 투쟁하도록 우리들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실천적 의의도 가진다. 그리고 또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객관 세계의 변화 발전을 외곡 거부하는 형이상학자들이 생각하는 함부로 하는 부정의 무익성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우에서 사물들의 발전 과정은 부정의 부정의 과정이라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사물들의 발전이 부정의 부정에 의하여 새로운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한

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들은 발전의 계기로서의 부정이며 첫째번 부정과 둘째번 부정간에는 일정한 내적 련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그 무엇이 나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것은 결코 낡은 것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생각할 수도 없다.

새 사회는 낡은 사회로부터의 일체 긍정적인 요소들을 섭취함으로써 자기 발전의 길을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된다. 일체 낡은 것, 진부한 것들이 부정되고 가장 새롭고 진보적인 것들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낡은 것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 있어야 하며 새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일체 낡은 것 속에 있는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요소들을 섭취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5차 전원 회의에서 지적하시기를;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선조들이 써 놓은 력사나 지리나 기타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고귀한 유산들을 맑스—레닌주의적 견지로 분석하고 그를 섭취하여 발전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귀한 유산들을 집어 치우는 아주 용서 못 할 엄중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옛말이나 노래도 남의 것은 다 좋고 자기 것은 다 못쓰겠다고 하는 현상들까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고귀한 과학, 문화의 유산에 대한 이러한 참을 수 없는 현상들과 앞으로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고귀한 과학, 문화의 유산을 옳게 섭취하여 그를 발전시키는 기초 우에서만 타국의 선진 과학 문화들을 급히 또는 옳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는 우리의 민족 문화의 건설을 위한 지침으로 된다. 이것은 사물의 발전 과정에서 낡은 것이 부정되고 새것이 긍정되는 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변증법적 련관성을 밝혀 준 과학적인 결론이다. 만일 우리들이 우리의 문화 유산들을 일률적으로 케케묵은 것으로 간주하고 일소에 부치거나 함부로 부정해 버린다면 이러한 부정은 무익한 부정이며 또 우리의 문화 유산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로 될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의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자기들의 문화를 우리 나라에 억지로 이식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우리의 민족 문화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정책은 패배하고야 말았다.

모든 민족들에는 그 민족에게 고유한 민족 문화가 있다. 그리고 모든 계급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민족의 문화는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낡고 사멸해 가는 착취 계급의 문화이며 또 하나는 새롭고 선진적인 계급의 문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사회의 지배 계급을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적이고 선진적인 계급의 문화는 이미 낡은 사회의 태내에 뿌리를 박고 있다. 그리하여 새 사회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응당 낡은 사회의 문화 유산을 계승하여야 한다. 낡은 사회의 착취 계급들의 문화에 대하여도 새 사회의 문화 건설에 이바지 하는 것들에 대하여는 그를 비판적으로 섭취하며 부정적인 것들에 대하여는 비판을 통해서 극보해 버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낡은 사회의 문화에 대한 변증법적 부정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낡은 문화에 대한 변증법적 부정을 실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의 민족 문화에서 우수한 것들을 부단히 섭취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 민족 문화 유산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와 다른 나라의 민족 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이것들은 모두가 우리 민족 문화 건설에 대하여 부정적인 경향들이다. 우리 당 제3차 대회가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우수한 민족 문화 유산들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며 다른 나라들에서 선진 과학, 문화를 옳게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과학 문화를 가까운 장래에 세계적 수준에까지 제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체를 확립하며 우리 나라의 과학, 문화 유산들의 비판적 계승과 선진 국가의 과학,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섭취의 태도이다. 이것이 곧 《부정의 부정》의 법칙이 가르치는 변증법적 부정의 태도이다.

서적 해제 및 평론

문학, 예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의 심오한 연구를 위하여

—《맑스, 엥겔스 예술론》과 《웨. 이. 레닌 문학에 관하여》에 대하여—

리 효 운
김 명 수
김 민 혁

《맑스, 엥겔스 예술론》(조선 작가 동맹 출판사 1957년 6월 발행)과 《웨. 이. 레닌 문학에 관하여》(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7년 8월 발행)는 맑스, 엥겔스, 레닌의 저서, 론문 및 서한들 중에서 중요하게 문학, 예술과 관련되는 재료의 일부분을 발취 수록한 선집들이다.

이 선집들에는 문학과 예술의 각이한 측면에 대한 맑스, 엥겔스, 레닌의 주요한 미학적 견해들이 심오한 사상적 깊이에서 천명되여 있다. 이것은 과학으로서의 미학——맑스-레닌주의 미학——을 확립한 주요한 기본적 명제들과 사상적 견해들이다.

따라서 이 선집들의 연구는 우리 작가, 예술가들이 맑스-레닌주의 미학 원칙들을 보다 철저히 인식하며 그 기초 우에서 창작 활동의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이 선집들의 연구는 우리 작가, 예술가들로 하여금 우리 당 문에 정책의 과학적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이 선집들의 연구는 최근 년간에 나타난 맑스-레닌주의 미학의 주요 원칙들에 대한 일부 나라의 몇몇 작가, 예술가들의 수정주의적 견해의 본질을 옳게 분석 비판하며 또한 우리 나라 작가, 예술가들 속에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대한 독단주의적인 비속적 리해의 오유를 시정할 중요한 리론적 방향들을 찾을 수 있으며 그리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 조국의 거창한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인민들에게 강력한 사상 미학적 무기를 제공하여 줌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본 서적 해제에서 문학, 예술에 관한 맑스, 엥겔스, 레닌의 천재적 교시들을 모두 들어 해석하지는 않으련다. 실제 독자들이 이 선집들을 광범히 리용하고 있는 조건하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 선집들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 사상 중에서 우리 작가, 예술가들을 위하여 당면하게 요구되며 우리 당이 제시한 문예 정책을 심오하게 연구함에 있어서 도움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들을 분석 고찰하려고 한다.

*　　　　　*

이 두 선집에서는 우선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의 문학, 예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중요한 교시들을 찾을 수 있다. 그들에 의하면 문학, 예술도 포함한 사회적 의식의 제 형태는 모두 다 상부 구조로서의 이러저러한 공통적 특징——례컨대 그의 사회적 존재에 대한 반영 과정과 발전 과정 및 계급적 내용 등등에 있어서——을 가지지만 동시에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 그것은 예술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현실을 반영함에 있어서 우선 그 형식이 형상적이며 감수적이라는 데 있다. 그런데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에 의하면 형식은 내용의 반영이며 어데까지나 내용에 대한 형식이다. 이것은 문학 예술의 형식상 특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가 내용으로 하는 대상의 독특성도 인정해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예술을 다른 사회적 의식 형태들과 구별함에 있어서 형식에만 의거하려는 편향들을 반대하고 내용의 특성을 찾으려는 작가, 예술가들의 노력은 정당한 것이라고 본다.

맑스, 엥겔스, 레닌은 사실주의적 문학, 예술이 반영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이며, 객관적 현실이라는 것을 철두철미 강조하였다. 맑스, 엥겔스는 문학, 예술도 역시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인간을 출발점으로 삼아가지고 이들의 현실적인 생활 과정에서 이 생활 과정의 이데올로기적 제 반영 및 반향의 발전도 또한 도출해낸다》(예술론 22—23 페지)고 하였으며, 레닌은 《위대한 예술은 혁명의 본질적 측면 중에서 비록 몇 가지나마……반영》(문학에 관하여 116 페지) 하여야 하며 소설에서의 《온 초점은 개별적인 사정에 있으며 일정한 전형들의 성격과 심리의 분석에 있다》고 하였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예술이 단순히 사회의 물질적 제 관계의 발전, 경제의 진보에 그대로 조응한다고 생각하는 기계론적 견해와는 적대적이였다. 례컨대 맑스는 자기의 저서 《정치 경제학 비판》(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물질적 생산의 발전과 례컨대 예술적 생산의 발전과의 비률이 같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진보의 개념은 보통의 추상에서 파악되어서는 안된다. 예술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불균형은 아직 실제적 사회 관계의 령역에 있어서와 같이는 중요하지도, 리해하기 어렵지도 않다…….

예술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 전성기가 사회의 일반적 따라서 또 사회의 조직의 골격인 그 물질적 기초의 발전과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맑스, 엥겔스 예술론 70—71 페지). 그러나 이 말은 예술이 사회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있어서의 물질적 관계의 반영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맑스가 《정치 경제학 비판》(서론)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희랍 예술의 기초에 놓여 있는 자연 및 사회 관계에 대한 견해는 결코 자동 방적기, 철도, 기관차 및 전신이 있는 조건하에서는 불가능하였었다. 왜냐 하면 그런 조건은 결코 희랍적인 신화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온갖 신화적 관계, 자연의 온갖 신화화를 배제하는, 따라서 예술가에게 신화로부터 독립한 환상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회 발전은 결코 〔희랍 예술의 지반을 형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상동서 72 페지).

이것은 우리 작가, 예술가들에게 사회 발전과 예술 발전의 호상 관계의 연구를 위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에 있어서 문학, 예술의 사회적 의의에 대한 견해도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들에 의하면 문학, 예술도 포함한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물질적 존재를 단순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반작용하면서 사회의 물질적 존재의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는 그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의식이 가지는 사회적 의의가 있는바 그것은 우선 문학, 예술의 인식적 역할에 있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에 의하면 예술가가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작품은 거대한 인식적 역할을 수행한다.

엥겔스는 발자크의 《인간 희극》의 인식적 의의를 평가하면서 발자크는 자기의 《…<인간 희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불란서 <사회>의 가장 현저한 사실주의적인 력사를 명시하여 주었습니다.……그는 불란서 사회의 전체 력사를 분류하고 있는바, 이 력사에서 나는 경제적인 디테일(례컨대 혁명 후의 실질적이며 개인적인 소유의 재분배)이라는 의미에 있어서조차, 전문적인 력사가, 경제학자, 통계학자들의 전체 저서에서 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아 내였습니다》(상동서 352 페지)라고 썼다.

특히 레닌에게 있어서 문학, 예술의 인식적 의의는 아주 높이 평가되였다. 그는 《똘쓰또이와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이라는 자기의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레브 똘쓰또이의 예술적 작품들을 연구함으로써로써야 로동 계급은 자기의 원쑤를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며 똘쓰또이의 교리를 리해함으로써 전체 로써야 인민은 자기들의 해방 사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없게한 자체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반드시 리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리해하여야 한다》(문학에 관하여 163 페지).

그러나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인식적 의의는 단순히 인식적 의의만으로써가 아니라 교양—혁신자적 의의와 유기적 통일을 이루고 있었다. 즉 인식한다는 것——그것은 혁명 사업을 위한 그 무엇을 인식하며 거기에서 새로운 추동적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맑스는 동물로부터 구별되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의식의 사회적 존재에 대한 반작용적 능동적 측면을 항상 강조하였다. 그는 1844년에 쓴 철학—경제학 원고 중에서 《동물은 자기 자신만을 생산하는데 인간은 전 자연을 재생산한다》(맑스, 엥겔스 예술론

20 페지)고 하였다.

레닌은 그의 문학, 예술에 관계되는 제 론문 및 서한의 많은 부분들에서 예술의 거대한 교양적 역할에 관한 원칙을 해명함에 바쳤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의 노래 《인터내쇼날》을 지은 불란서 로동자 시인 유제니 폿치에 서거 25주년에 제하여 발표한 시인에 대한 회상기에서 그의 시 작품들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1840년 이래 그는 불란서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대사변에 노래로써 호응하여 락후한 자들의 의식을 깨우쳤으며 로동자들을 단결에로 불렀으며 불란서의 부르죠아지와 그 정부를 내려쳤다》(상동서 220 페지).

이렇듯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에 있어서는 예술의 사회적 의의, 인식적 및 교양적 의의란 곧 계급 투쟁의 무기로서의 의의를 말하는 것이였다.

이상에서 고찰한바 사회적 의식에 대한 맑스, 레닌주의 창시자들의 유물 변증법적 반영론의 립장은 우리 당 문예 정책에 따라 우리 작가, 예술가들에게 유일의 창작 방법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대한 철학적 기초로 된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의해서만 우리 문학, 예술은 해방 이후 우리 나라에서 수행된 거대한 혁명적인 사회 경제적 전변에 기초한 인민들의 생활적 변천과 정신적 발전을 제때에 옳게 반영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우리 문학, 예술사에 전례 없는 거대한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우리 문학, 예술은 인민들의 사랑 속에 사회주의 건설과 원쑤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추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당 사상 사업의 주요한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담당하고 있다.

* *

《맑스, 엥겔스 예술론》과 《웨. 이. 레닌 문학에 관하여》는 문학 예술의 사상적 내용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미학의 고전적 원칙들도 천명하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을 창시함으로써 문학, 예술에 대한 리해에 있어서도 혁명적 변혁을 일으켰다. 이로써 력사적으로 발전하여온 문학, 예술의 계급성, 인민성 및 그의 당성 원칙, 문학, 예술의 본질과 사회 생활에서의 그의 역할, 사실주의에 관한 제 문제 등 문학, 예술의 사상적 내용을 천명하면서 그것을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의 강력한 무기로 복무케 하였다.

맑스, 엥겔스는 《사회의 지배적인 물질적 힘인 계급이 동시에 사회의 지배적인 정신적 힘》(예술론 45 페지)으로도 된다고 가르치였다. 이것은 문학, 예술도 포함하는 정치, 경제, 철학, 법률, 종교, 도덕적 견해도 역시 그가 계급적 물질적 기초를 반영하는 이상 계급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인간은 물질적 및 정신적 창조물을 미의 제 법칙에 맞게 생산할 줄 안다는 것, 예술은 로동하는 인간의 두뇌의 산물이라는 것도 해명하였다. 따라서 로동하는 인간들의 미적 견해와 활동은 로동하는 인간들의 력사적으로 처해 있는 계급적 처지와 리해관계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을 천명하였으며 작품의 내용이 갖는 객관적 성격도 그가 반영한 력사적 생활과 현실의 계급적 력량의 배치 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예술론 85—86 페지 참조).

레닌은 맑스, 엥겔스의 혁명적 학설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과정에서 새로이 형성 발전되는 프로레타리아 문학, 예술의 경험과 그 방향을 리론적으로 분석 총화하였다.

레닌은 《당 조직과 당 출판물》, 《청년 동맹의 제 과업》, 《프로레타리아 문화에 관하여》를 비롯한 많은 로작들에서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에 의하여 주장되는 예술의 《초계급성》, 《초당파성》, 《순수 예술》 등의 기만적 가면을 벗기면서 그런 예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오직 지배 계급이 자기들의 반동적 본질을 음폐하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레닌은 문학, 예술이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한 사상적 무기로 되어 왔으며 또 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레닌은 자기의 천재적인 강령적 로작 《당 조직과 당 출판물》에서 문학, 예술 사업이 맑스—레닌주의 당 사업의 유기적인 일부분으로 되여야 하며, 또 당에 의하여 조직되고 계획되고 통일되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특히 《당 조직과 당 출판물》에서 천명된 이러한 문학, 예술에 관한 레닌적 당성 원칙은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 박 헌영, 리 승엽, 림 화 도당의 소위 《문화 로선》에서와 그리고 오늘 구라파의 일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학, 예술에 대한 허울 좋은 《자유》의 기치 밑에 당성 원칙을 거부하려는 수정주의적 편향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우리의 작가, 예술가들에게 행동적 지침으로 된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문학, 예술의 당성, 계급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튼튼히 립각하

여 우리 나라 문학, 예술 발전의 총로선과 정책들을 정확히 제시하였으며 박 헌영, 리 승엽, 림 화 도당을 비롯한 온갖 반당적 비계급적인 따라서 배족적인 부르죠아 문예 로선과 이색 분자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하였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어떤 작품 또는 어떤 작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분석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성 원칙과 더불어 력사주의적 원칙의 견지에 서야함을 교시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작가, 예술가의 주관적 의도와는 관계 없이 그 작품이 갖는 객관적 내용이 력사적으로 구체적인 당대의 현실에서 조성된 계급적 력량의 배치와 그의 지향을 어떤 견지에서, 어느만큼 진실하게 반영하였으며, 당대의 혁명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작품의 객관적 내용이 전(前)시대에 비하여 어떠한 진보적인 것을 첨가하였으며 그 후세에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남겨 놓았는가에 의하여 작품과 작가, 예술가의 력사적 위치와 의의, 장점과 약점이 구명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레닌은 고리끼에게 보낸 한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일단 당신이 써 놓으면 그것은 대중 속으로 들어 가는데 그 의의는 당신의 선량한 희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력량의 호상 관계에 의해서, 계급들의 객관적 호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문학에 관하여 265 페지)라고.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문학, 예술의 사상적 예술적 내용의 심도는 그가 현실을 력사적으로 어느만큼 진실하게 반영하였는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천명하였는바 우리는 그 모범을 랏살의 《프란츠 폰 직킹겐》에 대한 맑스의 분석에서 볼 수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랏살이 자기 희곡의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과 사상적 내용을 약화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실은 민족적 귀족 혁명의 수행은 도시와 농민과의 특히 후자와의 동맹하에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본 조건인 농민과의 동맹이 불가능했다는 점, 이 결과 귀족의 정책이 부득이 보잘것 없게 되고 말았다는 점, 귀족이 민족운동의 선두에 서려하자 민족의 다수인 농민들이 그들의 령도를 반대했다는 점, 그리하여 귀족들이 불가피적으로 몰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바로 이러한 점에 비극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예술론 98 페지).

레닌은 여러 로작에서 위대한 작가 똘쓰또이의 창작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역시 철두철미 력사주의적인 립장을 견지하였다. 레닌은 똘쓰또이의 창작에 반영된 현실은 1861년 농노 개혁 후 1905년 혁명에 이르는 기간의 로씨야 혁명 운동의 장점과 약점을 반영하였으며 똘쓰또이는 수백만 가부장적 농민의 분노와 비판과 지향을 자기 창작에 반영함으로써 혁명의 본질적인 측면을 반영한 위대한 사실주의 작가로 되였다는 것을 분석 평가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하에 개화 발전되여 가는 우리 문학, 예술의 유일하게 정당한 창작 방법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현실에 대한 작가, 예술가들의 가장 철저한 과학적인 력사주의적 견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그의 모체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문학, 예술의 발전과 우리 당에 의하여 령도되는 사회주의적 문화 건설은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의 지도적 안받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레닌은 로작 《프로레타리아 문화에 대하여》에서 《오직 맑스주의 세계관만이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리해 관계, 관점 및 문화의 정확한 표현》(문학에 관하여 369 페지)으로 된다고 교시하면서 이것은 수천년에 걸친 인류 문화의 합법칙적 계승으로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이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심오한 체득과 인민 대중의 생활에로의 침투가 참된 예술 창작의 원천과 토양을 이룬다는 것을 가르친 것으로서 오늘날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과 수정주의자, 우경 기회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체득하지 않아도 인류의 선진 문화,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떠벌림에 대하여 치명적 타격을 준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문학, 예술 작품의 정치—사상적 및 예술적 내용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형 및 전형화 문제에 대하여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엥겔스는 《사실주의란 디테일의 진실성 외에 전형적 환경 속에서 전형적인 성격들을 진실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맑스, 엥겔스 예술론 351 페지)한다고 하였으며, 인간 성격은 인물마다 전형인 동시에 극히 명확한 개성이여야 하며, 그 개성을 시대 정신의 단순한 전성관(傳聲管)으로 만들어서는 아니되며, 작품은 《커다란 사상적 깊이, 의식적인 력사적 내용하고 행동의 쉑스피어적 묘사성과 풍부성하고의 완전한 융합》(상동서 94 페지)이 있을 때라야만 그의 사상—예술성이 보장된다고 하였다. 맑스, 엥겔스는 작품의 사상—예술적 《경향은 환경과 행동에서 특별한 지적 없이 저절로 흘러 나와야 하며 작가는 그가 묘사하는 사회적 분쟁들의 장차의 력사적 해결을 독자들에게 기성 형태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사상적 모찌브들이 활기 있고 적극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작품에 묘사된 《행동 자체의 행정에 의하여 저절로 전면에 나서도록》(상동서 95 페지)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레닌은 전형성 문제를 력사적 사회적 범주에서 고찰하였다. 론문 《사환'군 방에서》는 《정치가의 견지에서, 즉 수백만 사람들과 그들의 호상 관계의 견지에서 문제를 고찰할 때에는 위선과 비겁이야말로 사회적 타이프로서의 사환'군의 주요 본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정직하거나 가정에서 모범적이라거나 훌륭한 공민일 수도 있는 개개인의 며습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다.(문학에 관하여 341 페지 참조)

이상과 같이 맑스, 엥겔스, 레닌은 문학, 예술의 사상은 창조되는 인간 성격들의 전형화를 통하여 구현되며 전형은 사회—력사적 일반성과 개별적 구체성, 진실성 및 생동성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동시에 문학, 예술 작품이 인간들의 행동 및 내면 세계의 심오한 분석과 묘사가 없이는 그 사상적 내용을 진실로 높은 수준에서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당 제3차 대회 후 특히 문학, 예술에 있어서 도식주의와 비속 사회화를 반대하는 투쟁이 승리적으로 진행되여 온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투쟁이 문학, 예술의 진실성과 생명력을 심화하는 데 얼마나 큰 공헌을 하고 있는가를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 *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에 의해서만 미학 령역에 있어서도 자기 이전의 모든 미학 사상들과는 달리 고전적 문화 유산의 진정한 의의도 완전히 과학적으로 리해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고전적 예술 작품들의 거대한 의의를 루차 지적하였는바 그것은 특히 고대 희랍과 문예 부흥 시기의 작품들에 대한 평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맑스는 희랍의 예술을 평가하면서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도 예술적 쾌락을 주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규범 및 도달할 수 없는 모범으로서의 의의를 보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생명의 장구성의 비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왜 인류 사회가 가장 훌륭하게 발전한 그 유년기는 결코 다시 돌아 오지 않는 단계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매력을 주어서는 안 되겠는가?…그들의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은 그 예술이 성장한 기초로 된 발달하지 못한 사회적 단계와 모순되지 않는다. 반대로 그 매력은 그러한 사회적 단계의 결과로서, 그 예술이 그 밑에서 발생한 또 그 밑에서만 발생할 수 있은 미숙한 사회적 제 관계가 결코 다시 반복될 수 없다는 사정과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는 것이다》(맑스, 엥겔스 예술론 72—73 페지). 여기서 맑스는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인류 사회의 유년기인 당시의 사회 제도의 진실한 반영 속에서 이 작품들의 영원한 매력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고 그는 이 예술의 우월성의 한 측면을 인간의 자유롭고 조화된 발전의 사상으로 관통되고 있는 데서 보았다.

엥겔스는 고대 희랍의 문화 유산들이 《인류가 그때까지 체험한 변혁 중에서 최대의 진보적인 변혁》인 문예 부흥 시기의 예술 발전에 끼친 영향, 이 시기의 《미증유의 예술의 개화》, 《새로운 문학 즉 최초의 근대 문학의 탄생》과정에서 논 역할을 강조하였다.(상동서 154페지 참조)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즉 《비잔찐의 붕괴시에 구출된 수사본(手寫本)과 로마의 폐허에서 발굴된 고대 조상(彫像)에서 새로운 세계, 즉 고대 희랍이 놀란 서구라파 앞에 나타났다. 고대의 찬란한 형상 앞에 중세기의 유령은 사라졌다. 그리하여 이태리에서는 고전적 고대의 재현과도 같은 미증유의 예술의 개화가 도래하였는데 이러한 개화는 그후 다시는 한 번도 달성되지 못하였다》(상동서 153—154 페지).

그러나 맑스와 엥겔스는 미래의 인류와 예술에 대한 력사적 락관주의에 충만되여 있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예술 발전에 적대적이며, 문예 부흥 시기에서와 같은 예술의 개화를 《그후 다시는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하》게 한 자본주의의 청산은 인류 앞에 예술 발전에 있어서의 미증유의 가능성들을 다시 열어 놓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미래의 자유로운 예술의 특징들을, 묘사의 힘과 사상적 심오성의 통일 속에서 보았는바 이것은 미래의 사회주의적 예술이 묘사의 생동성, 사상적 심오성과 같은 과거 예술의 전통에서의 모든 우수한 것들을 자체 속에 계승하고 새로운 사회적 제 조건하에서 그것들을 일층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교시한 것이다.(상동서 94 페지 참조)

미래의 사회주의적 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성들에 대한 맑스, 엥겔스의 이와 같은 견해들은 극히 중요

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 하면 이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선행 및 현재 진보적 문학과 예술의 력사적 발전에서의 새롭고도 가장 높은 합법칙적 단계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방법을 작가들의 사회주의적 세계관의 표현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술 자체의 령역에서의 오래인 창작, 예술적 탐구의 결과로서 연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발생 및 형성에 관한 문제를 이와 같은 교시에 립각하여 해명하는 문제는 온갖 허무주의적 및 적대적 경향들을 폭로함에 있어서 특히 커다란 중요성을 띠고 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세계 혁명 운동의 중심은 서구라파로부터 로씨야로 옮겨졌고 로씨야는 로씨야 및 세계 문화의 최고 달성으로 되는 레닌주의의 조국으로 되였다. 예술의 제 문제에 관한 웨·이·레닌의 사상들과 국내에서의 문화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쏘련 공산당의 모든 실천적 활동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예술의 발전을 위한 체계 정연한 미학적 강령을 형성하고 있다. 이 미학 강령에서 고전 유산 계승에 관한 문제는 특히 중요한 자리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문학에 관한 과학에의 웨·이·레닌의 가장 중요한 기여로 되는 문학의 당성에 관한 원칙을 천명한 고전적이며 강령적인 문헌 《당 조직과 당 출판물》(1905년)에서 아미 레닌이 자유로운 사회주의 문학은 파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간의 부단한 호상 작용을 조성한다고 말하였다.

웨·이·레닌은 《청년 동맹의 제 과업》(로씨야 공산 청년 동맹 제3차 전로 대회에서 진술한 연설). 《〈쁘롤레트꿀트〉와 프로레타리아 문화》, 《프로레타리아 문화에 관하여》 및 기타 문헌에서 죄악적인 쁘롤레트꿀트의 파거 예술 유산의 허무주의적 부정에 대한 리론에 치명적 비판을 가하였으며 파거의 예술 유산에 대한,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태도에 대한 정연한 학설을 창시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맑스주의는 그가 부르죠아 시대의 가장 귀중한 쟁취물을 내던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2천 년 이상에 걸친 인류 사상과 문화 발전에서의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섭취하고 개작함으로써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자기의 전 세계사적 의의를 쟁취하였다. 오직 이러한 토대 우에서와 이러한 방향에서의 장래 발전만이, 온갖 착취를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최후 투쟁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실제적 경험에 의하여 고무되는 이러한 사업만이 실로 프로레타리아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문학에 관하여 369 페지).

웨·이·레닌은 선행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사상을 《로씨야 로동자 출판물의 력사에서》, 《게르쩬의 추억》 및 기타 여러 론문들에서 피력하고 있다.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만이 똘쓰또이의 창작——물론 여기서는 선행의 모든 문화 유산에 대한 견해가 표명된 것이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문화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어떤 동형(同型) 또는 동종의 것은 아니였다. 파거의 문화는 계급적 모순에 의하여 분렬된 사회에서 창조되였는바 그것은 그 문화 속에 반영된다. 따라서 과거 문화 유산에서 어떤 것을 섭취할 것이며 어떤 것을 배격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그들의 교시는 비상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파거 문화 속에는 일방으로는 진보적인 사회주의적 및 민주주의적 요소들이 있으며 타방으로는 반동적 반인민적 요소들이 있다.

레닌은 자본주의하에서 매개 민족 문화 안에 존재하는 두개 문화에 대하여 말하였다. 《…우리는 매개 민족 문화로부터——하고 레닌은 말하였다——다만 그 민주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만을 취할 뿐이며, 다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매개 민족의 부르죠아 문화와 부르죠아 민족주의에 대립시키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다》(상동서 251 페지).

파거의 문화 유산에 대한 맑스, 엥겔스의 평가들은 단테, 괴테, 하이네, 발자크 등 일련의 탁월한 진보적 작가들과 샤토브리앙 등 반동적 작가들 및 창작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서 주어지고 있다. 그들은 여기에서 문화 유산에 대한 원칙적이며 방법론적 문제에서 우리 작가, 예술가들을 지도하여 주고 있다.

레닌은 《로씨야 혁명의 거울 레브 똘쓰또이》를 비롯하여 엘·엔·똘쓰또이에 관한 일련의 론문들에 관하여서와 《게르쩬의 추억》, 《우리는 어떠한 유산을 거부하는가?》, 《〈농민 개혁〉과 프로레타리아—농민 혁명》, 《전투적 유물론의 의의에 대하여》 및 교외 교육 관계자 제1차 전로 대회에서의 연설, 《게이텐 백작의 추억》 등에서 똘쓰또이, 게르쩬, 체르늬셰쁘쓰끼, 네크라쏘브 및 쌀띄꼬브—쉐드린 등의 창작의 인민적 성격 및 그 본질을 맑스주의적 견지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고전적 모범을 주고 있는 동시에 다른 편으로 《자본주의와 출판물》, 《출세의 길》, 《〈웨히〉에 관하여》 등에서 부르죠아 문화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레닌은 고전 유산 계승에서의 비판적 섭취의 문제, 혁신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유산을 보존한다는 것은 결코 유산에 국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상동서 55 페지). 《그는 (맑스—필자주) 인류 사회가 창조한 모든 것에 모조리 주의를 돌려 이를 비판적으로 개작하였다… 인류의 전 발전에 의하여 창조된 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의해서만, 그 개작에 의해서만 프로레타리아 문화를 건설할 수 있다…》(상동서 353 페지). 그리고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문화에 관한 결정서 초고에서 우리의 목적은 《현존 문화의 훌륭한 표본과 전통과 결과들의 발전》(상동서 366 페지)이란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새것을 위한 새것을 통렬히 배격하였다. 즉 그는 클라라 쩨트낀과의 담화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물리치며 그것이 〈낡은것〉이라는 리유 하나만으로써 마치 그것이 앞으로의 발전의 출발점으로 될 수 없는듯이 배격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듯이 새로운 것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는 리유 하나만으로 그것에 굴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위선이며 《서구에서 지배하고 있는 예술성의 류형에 대한 맹목적 숭배》라고 규정하였다(상동서 409 페지 참조).

새로운 사회주의적 예술의 건설을 위한 레닌의 이와 같은 미학 강령의 생명력은 오늘 많은 진보적 예술가들에 의하여 달성된 사회주의적 예술의 개화 속에서 표현되였고 실증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파거 문화 유산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교시는 우리 당의 문예 정책에서도 자기의 창조적 구현을 발견하고 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민족 문화의 우수한 전통의 계승에 기초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를 건설할 과업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민족 문화의 진보적 전통에 대한 일체 허무주의적 태도들은 그것들이 출현할 때마다 제때에 타격을 받았으며 이와 아울러 한 민족 문화에서의 두개 문화의 존재에 관한 레닌적 학설을 부인하는 미제의 고용 간첩이였으며 종파 분자였던 림화 따위의 《유일 조류》론이 또한 폭로되였다. 조선 력사에 있어서 우리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파거의 우수한 유산들이 전 인민적 소유물로 되였으며 그 유산들이 가지는 진정한 의의와 내용이 비로소 정당하게 과학적으로 평가되며 분석되고 있다. 고전 유산에 대한 이와 같은 과학적 평가는 동시에 그의 비판적 섭취 및 혁신을 요구하는바 김 일성 동지는 《민요, 음악, 무용 등 각 부면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있는 우수한 특성을 보전함과 아울러 새로운 생활이 요청하는 새로운 리듬, 새로운 선률, 새로운 률동을 창조하여야 하겠습니다》(선집 3권 246—247 페지)라고 말씀하였다.

오늘날 국외에서 일부 론자들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공격하면서 고전적 유산, 특히는 사실주의적 전통을 허무주의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만큼 파거 문화 유산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과학적 명제들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할 과업이 우리들 앞에 나선다.

*　　　　*

맑스—레닌주의 미학은 맑스 이전의 미학에서 달성된 모든 진보적인 것을 비판적으로 섭취하고 그것을 새로운 철학적 기초 우에서 발전, 풍부화시켰다.

맑스주의의 출현과 함께 즉 전면적으로 발전 천명된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의 출현에 기초하여 비로소 미학은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진정한 과학으로 되였다.

맑스주의 발생 이전에는 어느 철학자나 미학자도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예술의 본질에 관한 문제, 그의 발생 및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에 관한 문제를 철저하게 유물론적으로 해명할 수 없었다.

맑스주의적 미학은 예술을 처음으로 사회적 존재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회적 의식의 특수한 형태로서, 인식과 계급 투쟁의 도구로서 설명하였다. 그는 아름다운 것을 객관적 실재, 사회—력사적 실천과 불가분적으로 련결시켰다.

맑스—레닌주의 미학은 맑스—레닌주의 학설 자체가 그러한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투쟁과 분리될 수 없는,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예술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미학은 세계의 고전적 예술의 경험 뿐만 아니라 프로레타리아 예술의 예술적 실천을 일반화하였다.

맑스—레닌주의의 창시자들에 의하여 연구된 미학상의 문제들을 렬거만하더라도 과학적인 미학의 창조에 그들이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중요하게 사회의 생산력 발전과는 직접적으로 합치하지 않는 예술 발전의 불균형성에 대해서와 위대한 예술 작품들의 장구한 불멸의 의의에 대한 원인들을 해명하였다. 그들은 예술에서의 사실주의 창작 방법, 예술성 및 경향성과 같은 가장 중요한 미학적 개념들의 본질을 천명하였으며 비극, 희극과 같은 극문학의 가장 중요한 형식들의 의의와 그 개념들의 력사적 성격을 특징화하였다. 문학, 예술 현상들에 대한 구체적—력사적 고찰의 원칙들이 그들에 의하여 지적되였다.

웨·이·레닌의 유물론적 반영론은 미학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예술에서의 예술적 형상 및 형상성에 관한 개념을 정확히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레닌은 문학의 위대한 당성 원칙에 관한 학설로써, 부르죠아 사회에서의 매개 민족 문화 내에서의 두개 문화의 존재에 관한 학설로써 맑스—레닌주의 미학을 무장시켰다.

엘·똘쓰또이에 관한 일련의 천재적 론문들에서 레닌은 유물론적 반영론을 적용하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 주었는바 그는 여기서 세계관과 창작 방법의 기본 문제들, 또한 위대한 작가의 창작이 가지는 사회—정치적 및 예술적 의의를 맑스주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남긴 미학상에 있어서의 고귀한 업적들은 쏘련 공산당을 비롯한 각국의 맑스—레닌주의 당들에 의하여 그의 문예 정책의 기본으로 되고 있으며 실천적인 문화 혁명, 문화 건설의 경험들로서 창조적으로 발전 풍부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집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맑스—레닌주의 미학의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 우리 나라의 현실적—력사적 조건에 그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문예 정책의 과학적 정당성과 그의 현명성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이 고귀한 문헌들을 심오하게 연구 학습함으로써 자기의 피와 살로 되게 하며, 우리의 창작 활동과 리론 활동에서 생활적 지침으로 삼으면서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근 로 자》 제2호 (루계 제147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인쇄 1958년 1월 27일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발행 1958년 2월 1일

ㄱ—40 796 값 45 원